

# 명주짜기

글 장경희 — 사진 최원진



## 글 장경희

1960년 서울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문학박사(문화재 전문위원)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직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저서

『한국미술문화의 이해』(공저)

『종이조형』(공저)

『탕건장』, 『갓일』, 『망건장』,

『바디장』 등 다수

## 사진 최원진

1962년 생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과 졸업

일본대 사진연구소 수료

현 혜천대 영상디자인계열 교수

개인전 4회

『한밭문화제 멀티미디어영상전』 기획 전시

『미디어 미래전』 기획 등





# 명주짜기

중어만화만화재 제 87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도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87 호

# 명주짜기

글 장경희 — 사진 최원진



화산문화



##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를 발간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과 예능에 의해 전승됩니다. 그런 까닭에 유형의 문화재보다 쉽게 사회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변형되거나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5년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도서를 제작·발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와 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 각 권에는 국가가 지정한 개별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실연 과정 전체와 역사적 전승 양상 등을 기록·고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고, 전통 문화만을 고집스럽게 담아온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실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로 이번에 발간하는 『명주짜기』는 명주짜기의 유래와 역사, 뽕나무 재배와 누에 치기, 명주의 재료와 제작 도구, 명주의 제작 과정, 명주짜기의 전통과 전승 실태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새 역사의 시작을 맞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가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를 올바르게 전승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전통 문화의 토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2.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두리실 마을에서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키워 실을 뽑고 물레로 자아베틀에서 생명을 짜고 익명주로 다듬는 장인의 작업 과정과 직조기술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서술한 논고이다.

우리 나라에서 명주는 삼한시대부터 짜기 시작하였고 일찍부터 중국에 조공품으로 바쳐왔다. 신라는 어아주(魚牙紬)와 조하주(朝霞紬)를 당나라에 조공하였으며, 고려 말 고종 때부터 금은그릇과 함께 세면주(細綿紬)수천 필을 원나라에 바치고 있었다.

이후 조선 초에는 세종 11년(1429)부터 명나라에 바치던 금은(金銀)을 면공(免貢)받는 대신 세면주 200여 필을 조공품으로 바쳤는데, 명나라 선종이 우리 나라 사신들이 입고 갔던 명주비단을 극찬했을 만큼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명주를 중국인들이 선호하게 된 까닭은 우리 나라의 명주가 보름새 이상의 섯수로 가늘고 얇게 짜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은면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던 세종 연간을 전후한 시기에 정부가 명주의 원료인 고치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고치실 생산을 장려하였다.

조선 조정은 전국 각지에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늘리고 잠실을 설치하게 하여 생산한 고치실을 공물로 수납하였으며, 그리고 정부는 중앙의 해당 관청에 실을 뽑는 연사장(練絲匠)과 실을 합쳐 꼬는 합사장(合絲匠)을 배속하고, 명주를 짤 방직장(紡織匠)은 제용감과 내섬시와 내자시에 각각 30명씩 소속시켜 조공용 명주의 생산과 품질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도 명주는 여전히 청나라에 보냈던 중요한 조공품이었다. 병자호란으로 항복한 인조 15년(1637)에 청나라는 연간 3,000여 필을 조공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 부담이 엄청난 것이어서 감액을 요청한 끝에 동지 사행 때 매년 600필을 조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명주는 평직으로 짚던 모시베나 무명베와도 제작 방법이 동일하여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베틀만 있으면 산골 벽지의 촌부(村婦)도 짤 수 있어 민간에서도 널리 성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8세기 이후에 유행하던 여러 풍속화에서도 쉽게 찾아보게 된다.

이 당시에는 청나라의 『패문재경직도』라는 판화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고, 숙종이 진재해에게 그리게 했다고 전해지는 <잠직도>에 담긴 사연들은 왕실이 양잠에 대해 가졌던 관심도의 일단을 드러내는 사례였으며, 18세기에 김홍도를 비롯한 화가들이 그린 풍속화 중의 민간의 명주짜기, 19세기 말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타나는 명주짜기의 제작 과정 등은 명주짜기가 민간에서 유행한 단면들이다.

곧 명주베는 다른 베와 마찬가지로 날실과 씨실이 1대1로 교차되는 평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베틀 한 대만 갖추면 누구나 짤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면방직의 산업화 추세에 따라 개량직기가 도입되자 재래식 베틀을 사용하여 명주를 짜는 기술은 겨우 몇몇 사람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경상북도 성주의 안동 권씨 댁에서 전승되어 오던 ‘명주짜기’의 재래식 기술을 198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조옥이(曹玉伊) 할머니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명주짜기 보유자가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것부터, 고치에서 실을 뽑고,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날실을 날고, 풀을 발라 베를 매긴 후, 베틀에서 생명주를 짜고, 잣물에 삶아 익명주를 만들어 다듬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내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조사하고 면담하였다. 이를 보면 각 과정마다 조옥이 보유자와 두 동서(이규종, 백문기)가 필요한 도구를 갖춘 다음, 작업 현장에서 실제 발휘했던 기술과 솜씨를 빠뜨리지 않고 원형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고, 아울러 각 단계마다 진행되는 순간의 동작은 사진으로 포착하여 명주짜기 장인의 작업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 12

장경희



발간사	4
-----	---

머리말	6
-----	---

## 1 명주짜기의 유래와 역사

1. 중국 조공품 명주의 종류와 품질	15
2. 풍속화로 그려진 명주짜기	22

## 2 뽕나무 재배와 누에 치기

1. 뽕나무의 재배	45
2. 누에 치기와 뽕잎의 채취	51

## 3 명주의 재료와 제작 도구

1. 실 씨기(製絲) 재료와 도구	70
2. 실 내리기(解絲) 도구	75
3. 실 날기(整經) 도구	79
4. 베 매기(加糊) 재료와 도구	85
5. 베틀(織機)과 부속품	95
6. 갯물 내리기(精練) 재료와 도구	109

## 4 명주의 제작 과정

1. 실 씨기	113
2. 물레질하기	126
3. 날실 정경(整經)하기	134
4. 날실을 바디에 꿰기	153
5. 날실에 풀 먹이기	158
6. 베틀에서 생명주짜기	175
7. 정련(精練)하여 익명주 만들기	227
8. 익명주 다듬질하기	241

## 5 성주의 명주짜기 전통과 전승 실태

1. 성주 두리실 마을의 명주짜기	256
2. 명주짜기의 전승 실태	261
참고 문헌	273





# 1 명주짜기의 유래와 역사

비단은 매끄러운 표면에 광택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사르락거리는 소리(絹鳴)가 아름다워 누구나 입고 싶어하던 옷감이다. 비단을 널리 선호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원전 2~3세기 경 삼한시대부터 명주를 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비단 제작기술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고급 비단의 직조 문양을 개선하는 등 제작 기법을 개선시켜 왔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오색 비단실로 예술적인 문양을 아로새긴 비단(錦)을 짤 수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송·원과의 교섭으로 귀족적 취향에 맞춰 금은사(金銀絲)를 감입한 화려한 직금(織金)을 짤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도 명과의 교류를 통하여 담백한 사대부적 미감이 배어나오는 단자(緞子)를 생산할 수 있었다.

금·직금·단자 등의 비단을 짤 때는 당대에 유행하는 문양을 넣거나 능직·수자직과 같은 고난도의 직조기술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고급 비

단은 상류계층의 심미적 기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적 위상을 표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을 장악하여 그들의 수요만을 충당하도록 소량만을 제작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 명주는 산골의 촌부들조차 직접 누에를 치고 실을 뽑아 베틀에 앉아 짜낼 수 있어서, 널리 생산·유통되었던 소박한 직조품이었다. 그 때문에 당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여름철엔 삼베나 모시베를, 겨울철엔 명주베나 무명베를 짜서 국가에 공납하고 식구들의 옷감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에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다 재배하게 된 뒤에는, 목면 생산이 늘어나 비로소 무명베가 명주베를 대신하여 겨울철의 옷감으로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양잠과 식상(植桑) 및 명주생산을 권장하는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이는 곧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치던 금은(金銀)을 면제받는 대신 중국 황제가 선호한 세면주(細綿紬)로 바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조공으로 바친 우리나라 명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그 조공용 명주를 조달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그것에 의한 명주 제작의 확산 양상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조선 전기에 조공용 명주를 생산하기 위해 조정이 내놓은 정책은 원료가 되는 고치실을 증산하기 위한 뽕나무의 재배와 양잠의 권장이 전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조공용 명주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직조 관청의 설치와 장인의 숫자를 늘이는 방안 등을 살펴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조선후기에 명주 제작이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확산되었던 양상을 풍속화를 통해서도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 1. 중국 조공품 명주의 종류와 품질

명주베는 고치실로 짜는 비단옷감의 일종이지만, 삼베나 모시베 또는 무명베와 마찬가지로 날실과 씨실을 일대일로 교차시켜 짜는 평직이어서 '견주포(絹紬布)'라고도 불렀다.<sup>1)</sup> 이렇게 평직 기법으로 짜는 우리나라의 명주는 중국보다 우수하여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바쳤던 대표적인 조공품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는 당나라에 조하주(朝霞紬)와 어아주(魚牙紬)를 조공품으로 바치고 있었다.<sup>2)</sup> 신라의 명주는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아침 안개처럼 아른거리거나 고기 비늘처럼 반짝이는 얇은 비단이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문양을 넣어 짜는 최고 수준의 금(錦)을 짤 수 있었으나, 신라가 당나라에 조공한 옷감은 가늘게 짠 명주였다. 신라에서는 조공용이나 왕실·귀족용으로 사용할 고급 옷감을 짜기 위해 섬유의 원료와 직조하는 방법에 따라 세분된 직조를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있었다.<sup>3)</sup> 어아주와 어아금을 생산하던 관청은 금전(錦典)이었으며, 이 관청은 경덕왕대에 직금방(織錦房)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주의 일종인 조하주는 조하방(朝霞房)을 특별히 설치하여 짰는데, 이 관청은 경덕왕 때 신설된 관청으로서 당나라에 바치던 조공용 명주를 짜기 위해 세워진 관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관청에는 직조 장인들을 소속시켜, 조공용 조하주를 짜는 조하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23명의 모(母)가 종사하였으며, 어아주를 짰던 금전(직금방)에는

1)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0년조.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22년조.

3) 『삼국사기』 권38, 잡지 제7, 직관조 상.

14명의 모(母)가 직조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공용 명주의 양이 급증하면서 국가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부터였다. 고려가 원나라와 강화한 고종 6년(1219)부터 명주를 조공품으로 바쳤기 때문이다.<sup>4)</sup> 고려가 원나라에 조공품으로 보낸 명주의 연간 물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고종 때부터 원종 초년까지 50필에서 2,000~3,000필에 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곧 고종 7년(1220)에는 50필, 고종 8년(1221)에는 3,000필, 고종 18년(1231)에는 2,000필, 원종 4년(1263)에는 100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sup>5)</sup>

이처럼 많은 양의 조공품의 명주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금은기명의 경우 원종 연간(1259~1274)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재상부터 4품에게는 은 1근을 건었고, 외방 각도에서 공물로 받거나 사찰의 소장을 건어들었으며, 명주의 경우도 종실과 백관에게 차등 있게 부과하거나,<sup>6)</sup> 안동에서 비단실(眞絲)을 공납하게 하였으며,<sup>7)</sup> 지방에서 비단을 공납할 경우는 비단값으로 명주실 값을 책정하여 내려보냈다.<sup>8)</sup> 또 명주의 특산지인 경상도의 계림(鷄林)·복주(福州)·경산부(京山府) 등지로부터 공물형태로 거둬들여 덕천고(德泉庫)에 보관하거나,<sup>9)</sup> 전라도의 전주와 광주 등지에서도 명주를 공물로 부과하였다.<sup>10)</sup> 하지만 고려 말이 되면서 원나라

4) 『고려사』 권22, 세가 22, 고종 권1, 6년 2월 경인.

5) 『고려사』 권22, 세가 22, 고종 권1, 7년 3월 병신조 : 『고려사』 권23, 세가 23, 고종 권2, 18년 을묘조 ; 고종 18년 경진조 ; 고종 19년 하사월 임술 ; 고종 40년 무인조.

6) 『고려사』 권79, 지33, 식화1, 과렴4.

7)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7년 1월조.

8)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5년 6월조.

9)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녹봉9, 공민왕 5년 6월 교왈.

에 대한 조공 물량도 증가하여 고려 조정의 비축물량이 부족해지자 우왕 원년(1375)에는 혼인을 치를 때 사용하던 금은기명과 고급 비단의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이다.<sup>11)</sup>

그리고 고려 말에는 조공용 명주를 수급해 왔던 중앙과 지방의 직조 관청에서 담당할 역할이 증대하자 관청의 기능을 통폐합하였다. 중앙관청의 경우 잡직서나 도염서 등을 직염국(織染局)으로 개편하였고<sup>12)</sup> 어의(御衣)만 봉공하던 상의국을 충선왕 때 장복서(掌服署)로 확대·개편하였다가, 공민왕 때에는 몇 차례의 명칭 변화를 겪은 뒤 공양왕 3년에 공조에 병합하였다.<sup>13)</sup> 한편 지방에도 명주 생산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갑방(甲房)을 설치하고 장인들을 소속시켰다.<sup>14)</sup> 이들 갑방 중 충렬왕 때에는 진주의,<sup>15)</sup> 충선왕 때에는 경주의 갑방이 비단을 비축해 두었다가 공물로 바치고 있었다.<sup>16)</sup> 그러나 지방에서 공물로 바친 직물이 거칠면 지방 수령을 파면하는 등,<sup>17)</sup> 고려가 원나라에 바칠 조공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sup>18)</sup>

조선초기에도 고려때와 마찬가지로 명주는 금은기명과 더불어 명나라에 보내던 대표적인 조공품이었다. 조선 정부는 명주의 사용을 통제하

10)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1, 3년;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6, 신돈11, 공민왕 17년.

11)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금령47, 신우왕 원년 2월 교할.

12) 『고려사』 권77, 지31, 잡직서조, 도염서조.

13) 『고려사』 권76, 지30, 백관지1; 지31, 상의국조.

14) 『고려사』 지 권33, 식화2, 농상조.

15)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5년 6월조.

16)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3년 12월조.

17)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5년 6월조;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하4월 갑오조; 같은왕 22년 11월 갑진조.

18) 『고려사』 권89, 열전 후비2조.



거나 무역을 통해 그 비축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다. 태조 3년(1394)에는 도평의사사가 진상품 중 의식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이 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 등의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가선대부 이하 6품까지는 은술잔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7품 이하는 은술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sup>19)</sup> 그리고 정종 2년(1400)에는 어의용으로서 수입품인 능단 대신 토산인 주포(紬布)를 쓰게 하였으며,<sup>20)</sup> 태종 6년(1406)에는 관복용 자주색 명주의 사용을 금지하였다.<sup>21)</sup> 더 나아가 태종은 같은 왕 11년(1411)에 의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상도로 하여금 광흥창(廣興倉)에 바치는 정오승포 1만필로써 명주 등을 무역하게 하였다.<sup>22)</sup> 이렇게 많은 양의 명주를 구입해 두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조공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당시 마련한 명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듬해 광흥창에 보관된 명주 90필을 도난당했다거나,<sup>23)</sup> 명주를 녹봉으로 대신 반사하고 있는 사실로도 상당량이 비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조선 정부가 금은의 세공을 감면 받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사신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 길이었다. 태종과 마찬가지로 세종 또한 '금은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며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을 설득하고 있었고, 세종 1년(1419)9월에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명주를 비롯한 각종 공예품을 선사하고 있었으

19)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6월 갑오조.

20) 『태조실록』 권6, 태조 2년 11월 계유조.

2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7월 갑술조.

22)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갑진조.

2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갑자조.

24)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7월 임진조.

며,<sup>25)</sup> 이듬해에는 우리 나라 사신을 중국에 보내면서 명주 6필과 토산품들을 지급하며 금은의 면공을 요청토록 하였다.<sup>26)</sup> 특히 이때 세종은 금은을 감면하는 대신 명주와 화문석 백여 장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중국 황실에 공녀(貢女)로 보내어 뒤에 선종(神宗) 황제의 모모가 된 한(韓)씨와 의논한 결과였다.<sup>27)</sup> 그뒤 세종 11년(1429)에도 중국 사신들에게 태평관에서 전별연을 베풀 때 많은 선물들을 주기도 하였다.<sup>28)</sup>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세종 11년 겨울에는 드디어 금은세공이 감면되었으며, 이듬해인 세종 12년부터는 명주를 비롯한 각종 방물을 대신 바치게 되었다. 이때 금은그릇을 대신하여 바친 조공품의 연간 총수량은 명주 100필을 비롯하여 백저포 4필, 마포 254필, 만화석 23장, 만화방석 30장, 황화석 40장, 채화석 25장 등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명나라 조공용 명주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의 관청으로 하여금 비단실을 생산해 바치도록 하였는데, 공납이나 진상으로 바친 수량은 간혹 『읍지』에도 실려 있었다. 순천부에는 진사 15냥 1전을 상의원에서 수납하고 있었고, 성종 때에는 전라도 태인현에서 잠실에서 키운 고치 50두를 공납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도·각읍의 잠실에서 공납한 비단실이나 누에고치는 중앙의 해당 관청에 소속된 경공장들이 명주를 짤 수 있는 실로 만들었다. 상의원에 소속된 연사장 75명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생사를 속사로 익히

25)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병진조.

26)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1월 갑자조.

27)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5월 정축조.

28)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7월 무오조.

고, 합사장 10명은 이 비단실을 베틀의 바디에 걸기에 적합하도록 합치거나 매듭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굵기의 실로 합치고 있었다.<sup>29)</sup> 조선시대에 비단실을 만드는 장인은 연사장 75명과 합사장 10명으로 도합 85명이 중앙 관청의 장인이었는데, 이러한 숫자는 어의용 사라능단을 제작하던 최고급 기술자인 능라장 105명에 버금가는 많은 인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많은 제사(製絲) 장인들이 가늘고 긴 비단실을 만들어야 좋은 명주와 사라능단을 짜서 조공용의 명주와 대량의 별헌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관청의 장인들 중 명주를 짜는 장인들이 방직장이었다. 그들은 상의원에 20명, 제용감에 30명, 내자시에 30명, 내섬시에 30명 등 총 110명이었으며, 사라능단을 짜는 능라장은 상의원에만 10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제가 정비되기 이전인 문종 때에는 방직장은 인수부와 인순부, 내자시와 내섬시에도 소속되었고,<sup>30)</sup> 세종 때 내자시와 내섬시에 소속되어 있던 능라장을 상의원으로 이속시킴으로서 능라의 직조는 상의원에서만 전담하게 되었다.<sup>31)</sup>

조선 초기 방직장의 기술 수준도 능라장에 못지 않았다. 그러나 방직장과 능라장을 구분하는 것은 비단 바탕에 문양을 표현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명주를 짰던 방직장의 특기는 가늘고 섬세하게 제작하는 기술이었다. 그들은 잠자리 날개보다 얇은 20승포(스무새 베)를 짜는 기술자였던 것이다.<sup>32)</sup> 이렇게 방직장이 짠 조선의 가느다란 명주는 중국의 황제가 특히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명나라의 사신들은 조선정부에 특

29) 『경국대전』 권6, 공전, 경공장조, 상의원조.

30) 『세종실록』 권18, 4년 10월 을미조.

31) 『문종실록』 권3, 즉위년 8월 신묘조.



별히 부탁하여 황제가 요청한 보름새 이상의 자색 명주를 요구하였다.<sup>33)</sup> 이 보름새 명주가 조선 방직장의 숨씨였던 것이다. 성종 때까지 조공품과 함께 별헌품으로 중국에 보내던 가는 명주의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것들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성종 15년에 한(韓)씨가 죽어 별헌품이 삭감되어 연산군 이후 중종 때에는 조공용으로 사용하던 가는 명주가 민간에도 유포되어, 16세기 사치풍조가 유행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중종 때가 되면 사사로이 염색을 해주는 염가(染家)가 늘어나 그들은 비싼 값을 받으며 염색하고 있었다.<sup>34)</sup> 명주를 비롯한 각종 피륙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직(私織)도 성행하였고,<sup>35)</sup> 정부가 그들이 직조와 판매를 금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단의 직조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되었음도 알 수 있다.<sup>36)</sup>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중국제 백사를 수입하여 국내 기술로 비단을 제작하는 추세였다.<sup>37)</sup> 더욱이 상업 인구가 증가하고 상인 자본가인 부상대고들도 나타나,<sup>38)</sup> 지방의 산골에도 장시(場市)가 세워지는 등 당시의 상업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sup>39)</sup> 따라서 서민층에까지도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0)</sup>

결국 16세기 사회경제적인 제현상, 즉 사치풍조와 관장제 수공업의 붕

32) 『성종실록』 권131, 12년 7월 정유조.

33) 『연산군일기』 권42, 8년 1월 신축조.

34) 성현, 『용재총화』 권1, 『대동야승』 권1.

35)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무진조.

37)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기유조.

38) 한상진,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453쪽.

39)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1월 갑인조.

40)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기유조.

괴에 따른 사적 수공업의 진전, 견직물 수요의 증대에 따른 중국산 백사(비단실)의 수입, 그리고 상업적 분위기의 확산 등은 견직물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었다. 농업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소농민들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으로서의 견직물을 제조하게 되어, 양잠업이 농가의 중요한 부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선조대의 육의전에는 면주전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sup>41)</sup>

## 2. 풍속화에 그려진 명주짜기

조선 후기도 청나라에 조공할 명주의 수량이 증가하여, 조공용 명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었고, 명주의 생산지는 평안도와 황해도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직물업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명주가 지역 특산품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생활상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그려져 있었으며, 일제시대의 정황은 각종 사진 자료에 담겨졌다. 이때의 그림이나 사진에 수록된 베 짜기의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특히 민간에서의 베를 짜는 작업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 대한 조공용 명주의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을 그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지로 삼고자 하였다.<sup>42)</sup> 정묘호란으로 조선과 후금은 형제 관계로 전

41) 유원동, 「상공업개관」, 『한국사론』 11 (국사편찬위원회, 1984), 25쪽.

42) 김종원, 『근세동아시아 관계사 연구』 (혜안, 1999);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환하지만 곧 이어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의 내왕문제가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것은 후금이 조선에게 받을 예물량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조선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명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조선에서 후금에 보낼 각색 명주는 600필로서 조선전기의 조공품 100필과 별헌품 200필, 총 300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조선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sup>43)</sup>

청 태종이 등극하여 각지의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구는 증가하여 각종의 물자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청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조공 받는 막대한 물량으로 상당량을 해결해 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턱없이 부족하여 세폐(歲幣)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양국간의 마찰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항복하자 조선과 명나라의 조공 관계가 조선과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로 전환되었다. 인조 15년(1637)에 청나라가 조공품으로 요구한 각색 명주는 2,000필로서,<sup>44)</sup> 조선 전기의 조공품만으로 비교한다면 무려 20배에 달하는 수량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황제와 황태후·황후·황태자에게 바칠 동지행 방물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세폐의 양은 이후 17세기와 18세기 초반을 통해 감액되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되어 영조 5년(1729)부터는 매년 400필의 각색 명주를 조공으로 바치게끔 감소되었다.<sup>45)</sup>

43)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3월 무신조. 당시 보낸 직물은 저포와 마포가 각각 600필, 각색 무명 7,000필이었다.

44)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무신조. 백지포는 200필, 각색 무명은 10,000필, 각색세마포는 400필, 마포는 1,400필이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중국에 바치는 명주의 조공양이 많아지고, 명주의 일반 수요도 증가하면서 명주는 지역에 따라 특산물이 발전하였다. 조선 전기와 달리 관서 지방과 해서 지방의 성가가 타도보다 높았다. 유수원은 관서 지방의 명주를 특산품으로 들고 있으며,<sup>46)</sup> 박지원 또한 똑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sup>47)</sup> 견직물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성천의 분주, 영변 지방의 합사주, 덕천과 순천, 가천 지방의 향라 등이 특히 유명하였다. 이렇게 견직물은 사치품 성격이 강하여 모시베와 함께 상품으로서의 생산활동이 한층 활발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양잠과 명주 짜기가 성행하였다는 것은 당시 유행한 각종 풍속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청나라에서 판각한 <패문재경직도>라는 판화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숙종 연간에는 진재해의 <잠직도>가 그려지는 등 왕실에서도 양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단원 김홍도를 비롯하여 여러 화가가 그린 풍속화에 의해서는 민간에서의 명주짜기가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업과 양잠업의 생산활동과 이에 따른 풍속을 월별로 그린 <빈풍칠월도>는 『시경』을, <무일도>는 『서경』을 전거로 삼아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임금이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사와 양잠을 하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담아놓은 그림이다. 이 <무일도>와 <빈풍칠월도>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널리 제작되었다. <무일도>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유행하였으며, <빈풍칠월도>가 전래된 것은 조선 1402년이며 이후 세종 때에 조

45) 『통문관지』 권3, 사대 방물수목. 조공된 직물 중 무명은 3,000필, 저포는 200필이었다.

46) 『우서』, 사민총론, 15쪽.

47) 『열하일기』, 구신수필 중 북진요기 (차제)

선적인 그림으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인다.<sup>48)</sup>

<경직도>는 항주 어잠현의 현령인 누숙(樓璠, 1090~1162)이 빈풍칠월도를 모범으로 하여 고종에게 바친 그림으로서, 일의 종류와 순서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농사를 짓는 경작도 21장면과 길쌈을 하는 잠직도 24장면으로 구분되어 묘사되고 있는 <누숙경직도>는 1498년 권경우에 의해 전해져 조선 전기 경직도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조선 후기 풍속화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경직도>의 이와 같은 체제는 청나라 때 일부 조정되어 새로운 화풍으로 제작되는 패문재경직도로 이어진다. <패문재경직도>는 1689년 청나라의 강희제가 송나라의 <누숙경직도>를 보고 새로운 도상과 표현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耕部) 23장면과 길쌈을 하는(織部) 23장면의 총 46장면으로 그려 1696년에 동판으로 찍어 만든 판화집이다. 강희제는 이 화첩을 통해 주공이 성왕을 충고하듯이 다음 세대의 정치를 담당할 후손에게 농부와 직녀의 소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바깥 세계와 격리된 궁궐에서 그림으로나마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패문재경직도>의 길쌈 관련 23장면은 '누에알 미역 감기기(浴蠶)'를 비롯해 누에를 키우고 뽕을 따는 그림이 12장면이고 실을 빼서 짜고 염색해 무늬를 놓고 마름질하여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머지 11장면이다.<sup>49)</sup>

48)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120~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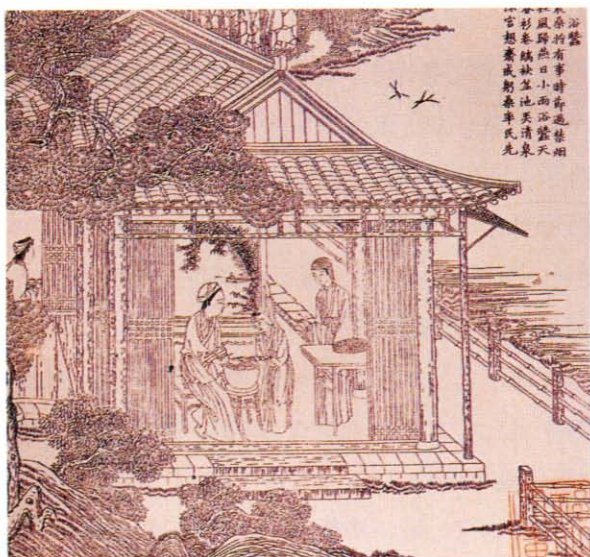
49) 織部는 1. 누에알 미역 감기기(浴蠶) 2. 두 잠 자기(二眠) 3. 세 잠 자기(三眠) 4. 한잠에서 깨기(大起) 5. 누에 쌓기(提績) 6. 누에실 고르기(分箔) 7. 뽕잎 따기(採桑) 8. 누에 올리기(上簇) 9. 누에실 소독하기(炙箔) 10. 누에고치 따기(下簇) 11. 누에고치 고르기(擇繭) 12. 변데기 버리기(簞) 13. 실 뽑기(練絲) 14. 누에나방 나오기(蠶蛾) 15. 누에에게 감사 제사하기(祀謝) 16. 씨실 만들기(緯) 17. 베 짜기(織) 18. 실 연결하기(絡絲) 19. 날실 걸기(經) 20. 염색하기(染色) 21. 무늬 넣기(攀花) 22. 마름질하기(剪帛) 23. 옷 만들기(成衣)



길쌈의 첫 번째 그림은 ‘누에알 미역 감기’로서, 그림의 내용은 『천공 개물』에서 절강성의 가흥과 오흥현의 두 지방에서 천로옥과 석회옥 및 간수로 누에알을 미역 감기는 방법을 설명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누에알을 받은 종이는 대나무나 나무 네 개로 네모진 틀을 만들어 그 위에 펴서, 통풍이 잘되고 햇볕이 들지 않은 곳에 높이 걸어둔다. 그리고 기름이나 석탄의 불과 연기 등을 피하고, 겨울에 큰 눈이 내릴 때 눈빛의 반사광도 피하여 보관한다. 이런 누에알은 미역 감기를 하면 병약한 누에알은 이때 자연히 죽어 개미누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뽕잎의 낭비를 막게 되고 살아 남은 알에서 많은 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미역 감기는 방법은 누에알을 받아놓은 종이 한 장을 아가리가 넓은 그릇에 담고 염창에서 흘러나오는 간수 두 되에 물을 더해 띄운 채, 음력 12월 12일에서 24일까지 서리, 눈, 바람, 비, 우레, 번개를 맞도록 그대로 담가 두었다가 12일 후에 꺼내어 약한 불에 쪄어 말린다. 말린 다음에는 상자 속이나 대로 엮은 채반 위에 펴 바람이나 습기를 쐬지 않게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청명을 기다렸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부화시킨다.<sup>50)</sup> <패문재경직도> 중 맨 첫 번째 장면인 ‘누에알 미역 감기’는 이와 같은 설명적인 내용이 화면에 그려 있다. 산수를 배경으로 중앙에는 집이 있으며, 문이 열려진 집안의 가운데에 서 있는 두 여인은 입이 넓은 항아리에 누에알을 담가 씻고 있으며 오른쪽에 선 여인은 미역 감긴 누에알을 채반 위에 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sup>51)</sup>

50) 송응성 저, 『천공개물』, 최주 주역 (전통문화사, 1997), 41~75쪽. 본 책자에서 언급한 『천공 개물』은 이 해당 쪽수 내에서 인용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각주 처리를 하지 않았다.

51) ‘누에알 미역 감기’, <패문재경직도>, 1696년, 동판, 36.4x23.8cm, 장서각 소장. 정병모, 앞 책, 135쪽. 도66;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2002), 69쪽, 도13; 중국판화 2,000년 전 제3부 『중국고대판화전』 (町田市立國際版畫美術館, 1988), 209쪽. 도23.



〈패문재경직도〉 중 '누에알미역감기', 1696, 청나라, 장서각



〈숙종어제잠직도〉, 진진재해 (1691~1769), 1697, 국립중앙박물관

1696년에 청나라에서 그려진 패문재경직도는 이듬해인 1697년(숙종 18)에는 이미 조선의 왕실에 전래되었다. 숙종은 농사와 양잠을 발전시키기 위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청나라의 <패문재경직도>가 빠른 속도로 수용된 배경이 되었다. 더욱이 숙종은 패문재경직도 판화를 모본으로 하여 진재해 등에게 <숙종어제잠직도> 병풍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 그림이 패문재경직도를 본 뒀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그림 위에 씌어진 발문에 패문재경직도 중 '제직도(製織圖)'의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sup>52)</sup> 이 그림에는 앞서 살펴본 '누에알 미역 감기기'의 장면이 맨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며, 그 장면 위쪽으로는 산수를 배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누에 두 잠자기'와 '누에 세 잠자기'를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하고 있다. 이 중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누에 두 잠자기'의 경우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산수를 배경으로 양잠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문을 열어둔 집안의 왼쪽에는 뽕잎을 충분히 먹은 누에를 채반(잠박)위에 담아 화면 왼쪽에 대나무로 가로질러 설치한 잠실에 올려 두 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화면의 중앙에는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일을 방금 마친 여인이 평상에 걸터앉아 오른쪽 여인에게 아이를 받아 젖을 먹이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국풍의 경직도로서 패문재경직도와 함께 조선에서 그려진 화목에는 <누숙경직도>가 있다.<sup>53)</sup> 잠직도 중 세 번째 장면에 해당되는 '누에 먹이기(餵蠶)'로서 화면 상단의 해서체 오연팔구와 하단의 그림으

52) <숙종어제잠직도>, 전 진재해(1691-1769), 1697년, 건본채색, 137.6x52.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3) <누숙경직도>, 필자미상, 18세기, 지본담채, 33.6x25.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풍속화』, 71쪽. 도14; 정병모, 앞의 책, 142-143쪽.



로 확인된다. 이 그림에는 집 안팎에서 누에를 먹여 키우기 위한 작업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집 안의 여인들은 채반 위에 올린 개미누에에게 먹일 뽕잎을 잘게 썰어 주고, 누에가 뽕잎을 잘 먹는지 살피고 있다. 집 밖의 남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뽕나무에서 어린 뽕잎을 따느라 손이 분주하다.

이처럼 궁중에서 중국풍을 따라 그리던 경직도는 18세기에 들어서면 민간의 양잠 모습으로 변형되는데, 이방운이 그린 <빈풍칠월도>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에서 유행한 월령 형식의 <빈풍칠월도>이지만 산수와 집 안팎의 모습에는 조선식이 가미되어 있다.<sup>54)</sup> 제3면에 그려진

‘잠직’은 야트막한 야산에 간직한 필치로 수목을 배치하고, 싸리를 엮어서 울타리를 두른 초가집의 안팎에서 잠직과 관련된 여러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화면 중앙의 집 안에 놓여 있는 베틀에 앉은 사람은 끝신을 끌면서 베를 짜고 있고, 곡식을 넣어 말리는 마당의 오른쪽에는 세명의 여인이 실을 날기 위해 가지런히 간추리고 있다. 화면 하단 왼쪽에



<누숙경직도>,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경직도>, 전 김홍도(1745~1806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그러져 있는 구지 뽕나무 주위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뽕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서 긴 장대 끝에 낫을 달아 뽕잎을 따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나무 아래에서 뽕나무 줄기를 아래로 끌어당겨 뽕잎을 따서 옆에 놓아둔 둥그미에 담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의 의복 등은 완전

한 중국옷이어서 중국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모본을 보고 베낀 상태인 것이다.

특히 뽕나무에서 뽕을 따거나 베들 위에서 베를 짜는 제재는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소재였다. 18세기에 들어서도 앞서 언급한 <경직도>류를 그릴 경우에는 중국풍의 인물을 그리는 반면 민간인을 소재로 그린 풍속화에서는 조선적인 머리갓춤새와 의복을 갖춘 남녀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그려지고 있다. 경직도류에서 여전히 중국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여겨지는 <경직도>에서도 발견된다.<sup>54)</sup> 이 그림의

54) <빈풍칠월도>, 이방운(1761~?), 지본담채, 25.6×20.1cm (각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풍속화』, 84쪽, 도21-제3면.

55) <경직도>, 전 김홍도(1745~1806 이후), 지본담채, 100.2×49cm (각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풍속화』, 76쪽, 도18.

소재는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산수를 배경으로 화면의 상단에는 구지 뽕나무에서 뽕을 따는 모습이, 하단에는 잠실에 세운 가로목에 채반을 올려 누에에게 뽕을 먹이는 장면이지만 인물의 머리 모양이나 의복은 중국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을 소재로 한 풍속화에는 조선적인 특성이 반영된다. 예컨대 심사정



<빈풍칠월도>, 이방운(1761~?), 국립중앙박물관

의 <전가락사>는 농사를 짓고 베를 짜는 모습인데,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쪽을 지었으며 간편한 바지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다.<sup>56)</sup> 이 그림에서는 화면의 오른쪽에 큰 나무가 서 있으며 그 아래 초가집에는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아낙네를 그리고 있다. 베틀의 앞을 걸어갔을 여인은 사침대와 비경이 및 잉아를 거쳐 온 날실 사이에 북을 놓고 바디를 쳐서 베를 짜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를 짜는 모습은 김홍도의 <길쌈하기>에서 파악된다. 이 그림은 상하단에 각각 두 가지 제작 과정이 그려져 있다. 상단은

56) <전가락사>, 심사정(1707~1769), 1761년작, 지본담채, 31.2×101.5cm, 개인소장. 『조선시대 풍속화』, 86~87쪽. 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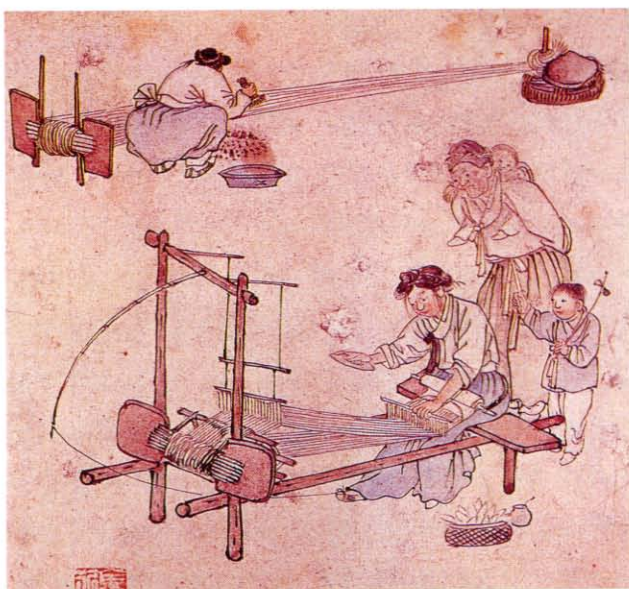


정경이 끝나 도투마리에 매단 낄실 위에 풀을 먹이는 ‘베 매기’ 과정을 그렸고, 하단은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베틀 위에 얹고 ‘베 짜기’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sup>57)</sup>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조선적인 머리 모양새와 옷을 갖춰 입고, 현재 보유자가 명주베를 매거나 짤 때와 거의 일치하는 작업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베 매기’를 하는 장면에는 한쪽에는 들말의 말뚝에 뱀뎁이를 잔뜩 끼운 도투마리를 걸었고, 다른 한쪽의 꼬싱개에는 무거운 돌로 누른 말뚝에 한 필의 낄실을 묶어 두었다. 들말과 꼬싱개 사이에 위치한 여인은 도투마리 쪽을 등진 채 앉아 소래기에 담아놓은 풀을 풀술에 묻혀 실 위에 바르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왕겨를 태운 곁불을 쪼여 풀이 발라진 낄실을 말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베 짜기’의 장면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베틀과 베 짜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선 베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2002년 현재 명주짜기 조옥이 보유자가 사용하는 베틀과 거의 흡사하다. 누운다리의 앞쪽에는 선다리를 높이 세우고 뒤쪽은 키가 낮은 뒤다리를 놓고 그 위의 앞을개에 앉은 직녀는 짚신을 오른발에 신은 채 앞뒤로 끌고 있는 것이다. 선다리에 는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세웠고 그 앞쪽에는 비경을 끼워 낄실과 낄실을 일대일로 교차시키고 그 사이가 X자형으로 크게 벌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 낄실 중 한올은 앞쪽의 잉앗대에 끼운 다음 눈썹노리를 거쳐 눈썹대에 묶어 용두머리에 걸리도록 하였으며, 용두머리의 맞은편에 활처럼 휘어 끼운 신나무에 연결되어 아래쪽의 끌신에 의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잉아는 바디에 꿰어져 있으며, 한손에 바디를 쥐고 또 한손에

57) 『한국의 미』 19 풍속화 (중앙일보사 · 계간미술, 1985), 도107. 김홍도, 길쌈 (풍속화첩중)



<김쌌하기>,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는 북을 들고 베를 짜고 있다.바디 앞쪽의 피륙은 반 자 이상 짠 모습이며,베 위에는 직물의 좌우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활처럼 흰 최활을 꽂아 두었다.어느 정도 짠 피륙은 말코에 걸어서 감아 두었으며,말코의 양 옆에는 부테와 연결된 부테끈으로 고정되어 있다.직녀의 오른쪽에는 씨실 여러 가락을 보관해둔 대소쿠리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있는 작은 단지에는 기름이 들어있다.한 치의 베를 어느 정도 짜면 바디에 꿰어둔 날실과 날실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서 북도 넣을 수 없게 된다.이때 도투마리를 눕히고 도투마리에 걸린 날실을 풀어 말코에 감은 다음,최활을 앞으로 이동해서 꽂고 바디가 매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기름병에는 얇은 붓을 하나 넣어두었다가 수시로 꺼내어 바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민간에서 베를 짜는 장면에 조선적인 복색을 갖춘 아낙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에도(江戸)시대 일본의 <베틀에서 베를 짜는 여인>에서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인을 그리고 있다.<sup>58)</sup> 여인은 조선의 베틀과 같은 구조의 요기(腰機)의 앞을개에 앉아있다. 그녀의 오른쪽 발에는 끌신을 신듯이 끈을 묶어 발을 뒤로 당겼다 앞으로 밀었다 할 수 있으며, 허리에는 부테를 두르고 부테끈으로는 말코를 감았다. 오른손에는 북을 들고 왼손에는 바디집을 쥐고 있으며, 날실과 날실은 눈썹노리에 매달린 잉아와 누름대, 비경이와 사침대에 의해 상하로 가르고 있다. 일본의 베틀 또한 조선의 베틀과 마찬가지로 선다리가 높고 뒷다리가 낮으며, 선다리 위 용두머리에 끼운 두 개의 눈썹대에는 잉앗대가 걸려 있다. 이 잉아의 날실은 신끈에 의해 상하로 벌어지고, 날실과 날실은 사침대, 비경이, 누름대, 잉아에서 전달되어 바디를 치면 갈라져 북을 넣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 있어 베틀의 각종 부속품은 형태와 기능이 거의 대부분 일치되었으나, 다만 비경이의 경우 조선식은 삼각기둥형인데 반해 일본식은 사각다리형인 점만 다를 뿐이다.

조선적인 베 짜기를 그림으로 기록한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자리 짜기'에는 18세기 조선에서 물레질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sup>59)</sup> 화면의 하단에는 사방관을 쓴 남정네가 자리틀을 앞에 두고 고드랫돌을 옮기며 옆에 놓아둔 지푸라기를 넣어 자리를 짜고 있으며, 상단 왼쪽에는 아낙이 물레질을 하고 있고, 상단 오른쪽에는 어린 아이가 글을 읽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물레질하는 아낙네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치마 저고리를

58) 『중국고대판화전』, 55쪽. <機織女> 錦繪, 江戸時代.

59) 『한국의 미』 19 풍속화, 도96. 김홍도, 자리 짜기 (풍속화첩 중)

〈베틀에서 베를  
짜는 여인〉,  
江戸時代, 일본



〈자리짜기〉중 ‘물레질하기’,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입은 영낙 없는 조선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물레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데, 물레는 기둥살 8개를 삼꾼으로 묶고 있으며 그 물레와 가락바퀴 사이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 놓았다. 가락바퀴에 끼운 가락은 물레질을 해서 가운데 부분이 도톰해진 상태이다. 이렇게 마련한 여러 개의 가락이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으며, 이 가락을 날뜰에 올려 베 날기를 하고 베 매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8세기에 유행한 풍속화를 통해 조선후기에 양잠이나 물레질, 베 매기나 베 짜기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시에 사용된 각종 도구나 제작 과정이 현재와 거의 흡사하고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세기의 서울은 문물이 가장 번성하던 상공업의 중심지로서 육의전에서는 비단 등 고급 직물을 생산하면서 상업 자본과 직물 수공업자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서울의 시전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입전(立廛)은 1829년(순조 29)에 공장과 짜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사(常絲)를 매점하여 중국 견직물을 모방하여 직조하고 판매하였던 것이다.<sup>60)</sup> 당시 비단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면 전국의 장사에서 거래된 물종 중 쌀은 전국 253곳의 군현에서 거래하였는데, 명주는 73곳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에 명주의 수요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명주의 수요는 민간의 수공업으로 해결하였을 것이며, 19세기 말 명주짜기의 제작 모습이나 실태는 기산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에 의해 파악된다. 현재 여러 종류의 『기산풍속도첩』에 산재된 그림

60)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출판부, 1973), 154쪽 참조.



들을 명주의 제작 과정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양잠으로부터 익명주를 만드는 명주짜기의 모든 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물론 명주베는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와 마찬가지로 평직의 베를 짜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제작과정은 현재 명주베를 짜는 방법과 연관되어 이를 순서대로 확인해본 결과, 누에를 치고, 물레질하고, 날실을 날고, 풀을 먹여서, 베틀에서 짜고, 빨래하는 모든 과정이 파악되었다.



김준근, <기산풍속화>, '누에에게 뽕주기'

누에를 치는 모습은 <누에 뽕 주는 모양>이라는 그림에서 알 수 있다.<sup>61)</sup> 네모난 채반 위에는 누에알에서 깨어난 개미누에들이 오글오글 움직이고 있으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꼬신을 신은 아낙네가 누에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다. 그녀는 광주리 가득 뽕잎을 따도마 위에 올려 누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고치에서 실을 뺀 다음에는 <물레질>을 하게 된다.<sup>62)</sup> 머리를 앞으로 틀어 올린 아낙네가 짧은 회장 저고리에 폭넓은 치마를 입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앞쪽에는 물레를 무거운 돌로 눌러놓고 가락꽃이에는 가락을

61)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130쪽. 도판3-나-3. 뽕잎주기.

62) 같은 책, 111쪽. 도판 3-라-5. 물레질.

꽃아 두었다. 물레는 4개의 십자형 기둥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에 등근 바퀴가 끼워 있으며 양쪽은 삼끈으로 연결하고 손잡이를 달아서 아낙이 오른손으로 돌리고 있다. 왼손에 잡은 실 한 가닥을 물레에 걸고 그 가닥은 가락꽃이에 끼운 가락에 묶은 다음, 물레의 손잡이를 돌리면 가락에 실이 감겨 중간 부분은 도톰해진다. 이렇게 마련한 가락이 여러 개 모이면 광주리에 담아두었다가 베를 날게 된다.

한편, 물레질 대신 돌것에 타래실을 걸어서 가락이나 꾸리를 감기도 한다.<sup>63)</sup> <녀인 뵈 낫는 모양>이라는 그림에는 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소녀가 어린 동생을 안고 어르면서 아낙들의 길

쌈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왼쪽 하단의 두 아낙은 삼실을 입에 넣고 짜며 무릎에 대고 치대어 길게 연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한 여인이 받침대 위에 십자형 날개살을 놓고 사방의 날개살마다 가느다란 갈퀴손을 끼운 곳에 타래실을 엮어놓고 ‘돌것’을 돌리면서 가락이나 꾸리를 감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다.

베실이 준비되면, 마당에 나가 <베 날기>를 하게 된다.<sup>64)</sup> 베 날기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아낙네 두



김준근, <기산풍속화>, '물레질하기'

63)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89), 262쪽. 도12. 생업-길쌈, Weaving, 덴마크 국립박물관 소장.

명이 하는 것이다. 날뜰에는 10가닥의 실을 걸고 마당에는 걸뜰용 말뚝을 박아 두었다. 날뜰 앞에 선 아낙은 10가닥의 실을 '새 쫓기'의 방법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손에 건 날실은 마당에 박아둔 첫새에 걸고 맞은편 10자 위치에 또 한 명의 아낙이 앉아 있는 중간새 말뚝까지 걸어 간다.



김준근, <기산풍속화>, '베 날기'

중간새에 날실을 건 다음 다시 날뜰이 있는 곳에 두 개를 연달아 세워둔 참새와 막새 말뚝에 X자형으로 날실을 걸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필에 해당되는 셋수만큼 날실 걸기를 반복하면 실 날기가 끝나는 것이다. 조선 말기의 실 날기 또한 현재 조옥이 보유자가 실 날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나 작업 방식과 대체로 흡사하다.

실 날기가 끝나면 바디에 날실을 한올한올 켜 다음에는, 다시 마당에서 실 전체에 풀칠을 하는 <베 매기>를 해야 한다.<sup>65)</sup> 마당에는 베실에 풀

64)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131쪽, 도 3-자-5. <베실 날고>

65)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262쪽. 덴마크 국립박물관 소장 도 11. 생업-길쌈. 베 날기와 베 매기 가동시에 그려져 있다.;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10쪽, 도 3-라-3. <베 매는 모양>



김준근, <기산풍속화>, '베 매기'

칠을 하기 위해 두 여인이 짚방석 위에 앉아 있다. 마당에 박아 놓은 들말 쪽에 앉은 여인은 풀칠이 끝난 날실을 뽕땡이까지 끼우면서 도투마리를 감고 있으며, 옆에는 앞으로 사용할 뽕땡이를 놓아두었다. 들말 앞쪽으로는 도투마리에 연결된 날실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왕

겨에 불을 붙여 만든 곁불이 타고 있다. 곁불 앞에 앉은 여인은 오른손에 풀솔을 들고 왼손에 바디를 잡고 날실을 가지런히 빚으면서 풀칠을 하며 곁불에 말리고 있다. 한 필 분량의 실은 마당 맞은편에 놓인 ∠자형 꼬싱개 앞의 말뚝에 묶여 있고, 꼬싱개 위에는 무거운 돌이 얹혀 있으며 그 위에 광주리를 올리고 나머지 여분의 실을 담아 두었다. 이와 같이 조선말기에 베 매기를 할 때 사용하는 들말과 꼬싱개, 뽕땡이와 도투마리, 바디와 풀솔 등은 현재 조옥이 보유자도 여전히 사용하는 도구이다. 아울러 날실에 바디를 꿰고 베폭을 맞춰 풀칠을 하고 뽕땡이를 끼워 도투마리에 감는 제작방법 역시 현재에도 계속 사용되는 기법이다.

풀칠이 끝난 날실을 도투마리에 다 감았으면, 베틀에 올려 베 짜기를



한다.<sup>66)</sup> <항라 짜기>에 사용된 베틀은 누운다리의 앞쪽에는 선다리를 높이 세우고, 뒤쪽에 있는 뒷다리는 낮으며 그 위에 앞을개를 놓고 아낙네가 앉는다. 선다리에는 베를 맨 도투마리가 세워져 있으며 그 위에 엮는 용두머리의 경우 짜야할 피륙의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명주베를 짤 때에는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용두머리가 필요 한데 비해, 항라를 짜기 위해서는 상하단 2중의 용두머리가 필요한 것이



김준근, <기산풍속화>, '항라 짜기'

66) 『국립 프랑스기메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111쪽. 도 3-라 6. <항라짜는모양>양

다. 향리를 짜기 위해 용두머리를 상하단 2단으로 놓으면 그에 수반되는 눈썹대와 신나무의 숫자도 각각 2배로 불어나고, 눈썹대에 걸리는 잉아와 신나무에 묶는 끝신도 마찬가지로이다.

명주베나 모시베와 같은 평직의 직물은 한 개의 잉아와 한 개의 끝신으로 날실과 씨실이 일대일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향리는 날실과 씨실이 여러 번 교차되어 문양을 만들기 때문에 상하단에 두 개를 놓은 용두머리에 의해 2개의 잉아가 매달리고, 끝신 2개를 양발에 신고 다양하게 작동시키는 것이다. 신나무 2개에 각각 끝신이 매달려 있어서 앞을개에 얹은 아낙의 오른발과 왼발에 각각 하나씩 신고 있다. 눈썹대에서 눈썹노리에 묶은 잉아도 앞 뒤로 하나씩 두 개여서 끝신의 움직임에 따라 잉아가 X자형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 사이를 각각 누름대가 눌러주고 있으며, 아낙은 오른손에는 바디를 쥐고 왼손에는 복을 쥐고 향리를 짜고 있다. 아낙 앞쪽에 짜여진 피륙에는 최활이 꽂혀 있고, 그 앞의 말코에는 그동안 짠 향리가 감겨 있으며 말코의 양쪽은 허리에 둘러맨 부테에 연결된 부테끈으로 동여매고 피륙을 짠다.

베틀에서 짠 명주는 생명주이다. 이 생명주는 베 매기를 할 때 쌀풀과 콩즙을 섞어서 발랐기 때문에 표면이 뽀뽀할 뿐만 아니라 노란 콩물이 들어있다. 따라서 베틀에서 끊어낸 생명주는 흐르는 시냇물에 가서 세탁을 해야 한다. 맑은 물에 넣고 행구어 콩즙을 뺀 다음, 잿물에 푹푹 삶고 난 익명주는 자배기에 담아서 냇가로 가져와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잿물기를 없애야 한다. 기산 김준근이 그린 <빨래하는 모양>에는 맑은 시냇가에 앉은 두 아낙네가 명주베를 빼는 모습을 담고 있다.<sup>67)</sup> 한 아낙은 주

67) 윗책, 112쪽, 도 3-라9. <빨래하는 모양>

섬주섬 만져서 생명주의 풀기를 빼내고 있으며, 또 한 아낙은 자배기에 가득 담은 익명주에서 잣물기를 얹어고자 빨래 방망이를 들어 힘차게 두드리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누에를 기르고 물레질이나 돌것에서 실을 감고, 마당에서 실을 날고, 바다에 켜 낚실에 풀질을 하고, 베틀에 올라 베를 짜는 조선시대의 제작 도구와 제작과정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제작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현재 조옥이 보유자의 명주짜기 기술은 조선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공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가락사, 심사정, 1761년 작, 개인소장.

## 2 뽕나무 재배와 누에 치기

명주베는 누에를 키워 얻은 고치실로 짜며, 누에는 오직 뽕잎만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명주를 짜려면 우선 뽕나무를 길러서 누에가 먹을 뽕잎을 마련하고, 5월이 되어 국가에서 누에를 키울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군청에서 누에알을 배부하면 온돌방에 잠실을 설치하고 누에를 키울 준비를 한다.

누에는 누에알로 겨울을 나며 따뜻한 봄에 뽕나무의 가지에 뽕잎이 너댓 개 달려 있을 때 알에서 깨어 개미누에(蟻蠶) 혹은 1령 누에가 된다. 그 후 깨어 있는 누에는 뽕잎을 먹으며 한 달간 4번의 탈바꿈을 하기 위해 4차례의 잠을 자고 나서 5령 누에, 혹은 익은누에(熟蠶)가 된다. 익은 누에가 실샘에서 실을 토하여 2~3일 동안 만든 고치가 명주를 짤 원료가 된다. 이 때 한 개의 고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의 길이는 1,200~1,300m이고, 실의 굵기는 0.002mm이다.

그러나 원래 누에의 일생은 번데기(蛹)와 누에나방(蛾)을 거쳐 다시 누



에알을 낳아야 끝나는 것이다. 고치 속에서 다시 2~3일이 지난 후 탈피를 하여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기간은 12일 정도이며, 이후 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오자마자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고, 한나절이 지난 후 500여 개의 알을 낳고 4~5일이 지나면 죽는다. 이렇게 누에는 일생을 마치지 못하고 인간의 옷감인 비단을 짤 고치를 만들고 죽기 때문에, 누에를 추모하는 잠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 1. 뽕나무의 재배

뽕나무는 한 번 심으면 20년 이상 계속 뽕잎을 딸 수 있어야 하므로 좋은 품종을 골라 잘 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심는 주요 품종은 청일뽕(일지뢰)과 개량서반이라 부르는 개량종이다.<sup>68)</sup> 이 두 품종은 모두 봄누에와 가을누에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뽕잎이 많이 열리고 전국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누에의 먹이가 되는 뽕나무를 전국적으로 심도록 장려하였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농상에 심혈을 기울여 15세기 말엽에는 각 궁궐 내를 비롯하여 밤섬, 삼전도, 추자도 및 원단동 등 한강을 따라 많은 국용 뽕밭(公桑林)이 조성될 수 있었다. 뽕나무의 증식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는 태종이 금은의 면공을 요청하던 같은 왕 9년(1409)부터이다.<sup>69)</sup> 이후 태종은 농상에 밝은 자를 각 도의 안무사(按撫

68)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는 뽕나무의 품종은 대륙뽕, 수계뽕, 신일뽕, 수원뽕, 용천뽕, 검설뽕, 청울뽕, 홍울뽕, 수봉뽕 등이다.

6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갑진조; 권20, 태종 10년 11월 무자조.

使)로 삼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와 평안도로 보내어 여러 도에 뽕나무 심는 일 등을 권장하였다.<sup>70)</sup> 그러나 누에를 먹일 뽕나무는 항상 부족하여 잠실에서 뽕잎을 따는 사람(摘桑軍)들이 국가의 뽕잎 대신 민가의 뽕잎을 채취하여 물의를 일으켰다.<sup>71)</sup> 이에 세종과 세조 및 성종은 뽕나무를 증식할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세종은 궁궐과 밤섬에 국용 뽕밭을 조성하되,<sup>72)</sup> 밤섬 안에는 경작을 금지하고 뽕나무만 심도록 하였다.<sup>73)</sup> 세조는 민간용 뽕밭을 조성하기 위해 민가에 심어야 할 뽕나무의 숫자를 정하면서,<sup>74)</sup> 같은 왕 5년에 「양잠조건」을 반포하면서 대호는 300그루, 중호는 200그루, 소호는 100그루 등으로 차등 규정하였다.<sup>75)</sup> 성종은 세종과 세조의 증식 대책을 계승하되 국용 뽕밭을 늘려 민간인이 심은 뽕밭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심화시켜 「상목배양절목」을 반포하였다. 이때 추가된 내용에는 낙천정과 연희궁 잠실 부근에 있는 여러 관청으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게 하고 그 숫자를 세어 민가의 뽕밭을 보호하게 하고, 호조로 하여금 밤섬의 뽕나무를 관리케 하며, 각도의 잠실도회 부근에 뽕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그 실적이 나쁘면 해당 관리를 문책한다는 것이다.<sup>76)</sup>

이러한 조선시대의 노력에 의해 뽕나무는 우리 나라의 어느 땅에도

70)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11월 기미조.

71) 『태종실록』 권36, 태종 18년 7월 경술조;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1월 무술조; 권38, 세종 9년 10월 갑진조; 권38, 세종 9년 11월 신묘조; 권51, 세종 13년 3월 을유조; 『세조실록』 권46, 세조 14년 5월 임오조; 『성종실록』 권2, 성종 원년 1월 기해조; 권3, 성종 원년 2월 계유조.

72)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정묘조.

73) 『문종실록』 권7, 문종 원년 4월 기축조.

74) 『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8월 무진조.

75)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무인조.

76)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무인조.

심을 수 있게 되었으나, 뽕나무를 심을 때에는 뿌리가 깊고 넓게 뻗을 수 있도록 심는 기술이 필요하다. 뽕나무를 처음 심을 때, 골을 좁게 파면 뿌리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처음에 파는 뽕나무의 골을 크고 깊게 파서 뿌리가 잘 번어야 뽕나무가 잘 자라고 뽕잎도 많이 얻게 된다. 뽕나무를 심기 전에 병들거나 상처가 났거나 너무 긴 뿌리는 잘라주어 새 뿌리가 잘 나오도록 한다. 퇴비를 10cm 정도 깔고 그 위에 굽비와 곶흙을 주고 심어야 할 뽕나무 뿌리를 가지런히 펴서 심으며 다시 15cm 정도 흙을 더 붓는다. 이렇게 심은 뽕나무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발로 꺾꾹 눌러 밟아준다.

뽕나무는 심은 그 해 가을부터 뽕잎을 딸 수 있다. 봄에 심은 뽕나무는 5월말에서 6월초가 되면 뽕 순이 30cm 정도 나오게 되며 이 때 아래쪽의 잔가지를 베어낸다. 아울러 여름에 뽕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가을이 되어 가을누에를 키울 시기가 되면 가지에 열린 뽕잎은 따고, 이후 1.5m 미만으로 자란 뽕은 60cm를 남기고 줄기채 잘라서 뽕을 따낸다. 이듬해 봄이 되면 여름 배기를 하여 그루를 만드는데, 줄기 위 끝 부분에 얇은 싹만 남기고 바싹 잘라낸다. 그러면 이듬해부터는 봄누에를 키울 때 그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번어나오고 새 뽕잎이 나오므로 이 뽕잎을 따서 개미누에에게 주게 된다.

한편 소규모로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 가지를 내리 눌러서 번식시키는 휘묻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휘묻이 방법은 명나라 때 가흥이나 오흥현에서 시행하던 내용이 『천공개물』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해 자란 뽕나무의 옆가지를 대나무 갈고리를 써서 땅바닥 가까이로 차츰 끌어내려 겨울에 흙을 덮어 눌러 둔다. 그러면 다음해 봄에 마디마다 뿌리가 생겨 이를 잘라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 이렇게 자

란 나무의 양분은 잎에 다 모여 있기에 더 이상 꽃이 피거나 오디를 맺지 않는다. 누에에게 먹일 뽕나무가 7,8척이 되면 잎을 따기 쉽도록 꼭지의 잎을 잘라 내는데, 잎이 무성하면 손으로 끌어 뽕잎을 딸 수 있어서 사다리를 걸치거나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명나라에서 뽕나무를 키우던 방법은 조선시대에도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재 회문이를 하는 시기는 뽕나무에서 봄 새순이 10~15cm 자랐을 때이고, 15cm 깊이로 골을 파고 완전히 숙성시킨 퇴비를 고루 퍼서 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뽕나무 한 그루에서 한 가지만 땅에 회문어야 하는 것이다. 땅에 휘어서 묻은 가지가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 고리를 박아 고정을 시킨다. 회문이를 한 다음 가을이 되면 뿌리에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와 뽕잎이 무성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회문이 방법은 뽕밭에 뽕나무가 듦성듬성 심었을 때 다시 한 줄을 만들어 주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청주 잠업시험장내 3,000평의 뽕밭에서 자라고 있는 뽕나무.





200년 이상 자란 구지뽕나무, 청주 잠업시험장.



이렇게 뽕나무를 키워 뽕잎을 따서 기르다가 누에가 많아져 뽕잎을 다 줄 수 없을 경우, 야생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서 주게 된다. 이것이 구지뽕나무이다. 구지뽕나무의 잎은 뽕잎이 부족할 때 보충용으로 사용하며, 이 구지뽕나무의 줄기는 단단하지만 잘 휘어지기 때문에 활을 만들 때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지 뽕나무로 기른 누에가 만든 고치실은 극견이라 하여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가야금이나 거문고의 줄이나 활의 시위로도 활용하였다.

현재 조옥이 보유자의 집 안뜰 30평에는 뽕나무 5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요 근래 마을 어귀에 있는 뽕밭은 근처 논이나 밭 혹은 산에 생긴 병충해를 예방·방제하기 위해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뽕잎이 농약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 뽕잎을 따서 누에에게 주면 누에가 다 죽어 버려서 키울 수 없게 된다. 누에는 담배연기는 물론 농약에도 민감하

게 반응하며, 오직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안된 청정한 뽕잎만을 먹기 때문이다. 따라서 뽕잎만 먹고 자라는 누에를 전래적인 방법으로 키워 명주 짜기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집에서 뽕나무를 키워야 한다.

봄이 되면 보유자의 집에 심은 뽕나무에서는 새 가지가 나온다. 3~4월의 따뜻한 햇볕을 받아 뽕나무의 가지마다 뽕잎의 새순이 돌아 오르고, 5월이 되면 벌써 집안을 가득 덮을 정도로 뽕잎이 무성하게 된다.

뽕나무 새 가지에서 어린 뽕잎이 나오는 모습.



## 2. 누에 치기와 뽕잎의 채취

명주의 원료는 누에고치이다. 오로지 뽕잎만을 먹고 자란 누에가 번데기가 되기 전에 지은 고치에서 실을 뽑아 명주를 짜야 한다. 따라서 명주 짜기를 하려면 누에를 먹일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치면서 뽕잎을 따서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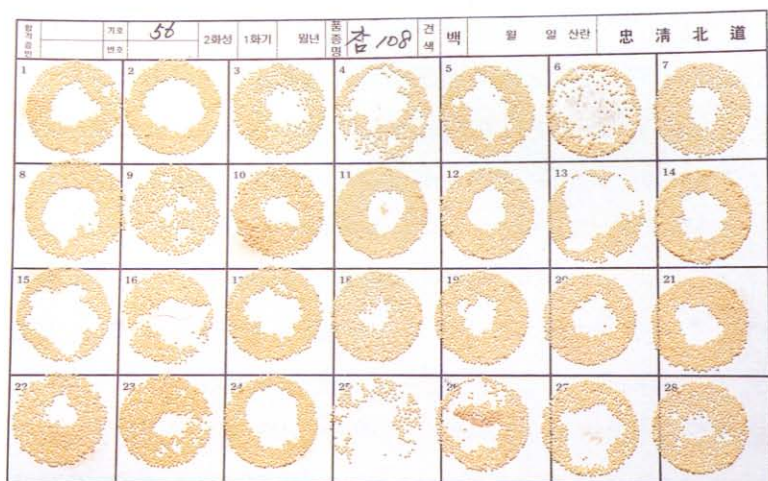
안동 권씨 종가집의 안 뜰에는 누에가 먹고 자랄 뽕나무 5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따뜻한 봄볕을 받으면 뽕잎이 새로 돌아나고 잎이 무성해질 무렵 국가에 신청을 하여 배급을 받은 누에알에서 누에가 깨어난다.

누에알은 조선 태종 때부터 이미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도 그와 같은 관례를 따라 시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양잠은 우량종 누에의 확보와 이것의 보급에 의해 그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조선 초 태종 이전에는 국산 누에알[蠶種]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파악할만한 기록이 없다. 다만 누에의 품질이나 우수한 누에 종자의 보급에 관심을 가졌던 태종이 양잠업이 발달한 중국에서 누에 종자를 수입하고 있어서,<sup>77)</sup> 이전까지 키우던 국산 누에보다 우량종을 확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우량종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매년 일정 수량의 누에알을 각도에 설치된 잠실에 직접 분배하고 있었는데, 그 때 차등을 두었던 기준은 잠실의 크기와 뽕나무의 재배면적 등이었다. 그 결과 각도에 위치하여 규모가 큰 잠실도회에는 누에알 10장을 배포하였으며,<sup>78)</sup> 소규모의 각읍 잠실에는 매 읍당 1~2장을 나눠주었

77)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 계유조.

78)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9월 갑자조.

다.<sup>79)</sup> 배포된 누에알이 깨고 누에를 키워 생산된 고치실의 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벌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잠실의 관리자가 원래 정한 10장 이외에 더 많은 양을 먹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국가의 뽕잎이 부족하여 민간의 뽕잎을 따서 물의를 일으키면,<sup>80)</sup> 배포할 누에알의 수량을 줄이기도 하였다.<sup>81)</sup> 금은 대신 조공용 명주의 물량이 증가되는 세종 12년 이후에는 그에 수반하여 양잠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누에알을 내려주는 배포 대상과 지역이 확대되었다. 세종 13년(1431)에는 종친 및 2품 이상에게 누에알을 분배하였다.<sup>82)</sup> 그동안 국산



여러 종류의 누에알(蠶種), 청주 잠업시험장

79)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무인조

80)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0월 갑신조

81)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1월 신묘조; 계사조

82)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2월 경신조

누에알을 보내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였던 회령, 경원, 종성, 경흥, 부거 등 함경도나,<sup>83)</sup> 평안도 지방에도 기후에 맞는 누에알을 선정하여 보내고 있었다.<sup>84)</sup>

이와 같이 양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누에알을 배포하는 제도는 조선 초기에 확립되어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주 잠사관이시험장에는 누에의 품종을 개량하고자 우수한 원종을 받아 키우고 있었다. 같은 청주군 내의 잠사박물관에서는 이 누에알을 박물관 앞 3,000평에서 채취한 뽕잎이나 인공사료를 먹여 누에로 키워 건강식품인 동충하초로 개발하거나 고치실인 생사를 뽑고 있었다.

국가에서 농가에 배급하는 누에알은 저온으로 냉동을 시켜 아직 겨울잠을 자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배자가 들어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비록 누에알이 잠을 자는 상태라 해도 매우 예민하므로 운반할 때 심하게 흔들려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누에는 기온에 민감하므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고온·고열·건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누에알을 만질 때 손이 붙결하거나 담배 피운 손으로 만지면 안되고, 비료와 농약 혹은 기름 등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쉽게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하지 못하므로 주의한다. 밀폐된 캐비닛이나 서랍에 두면 누에알이 숨을 쉴 수 없으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도록 한다.

조옥이 보유자와 이규종 조교의 경우에도 누에알은 매년 국가에 신청하여 배급받고 있었다. 그녀들이 말하는 봄누에는 음력 4월 그믐께 씨가 나오고 가을누에는 음력 7월 그믐이나 돼야 나와서 네 번 잠을 자고 네

83)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정월 임진조.

84)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무인조.



번 허물을 벗으면서 고치가 된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다들 이 누에에게 뽕잎을 주고 고치를 쳐서 명주를 짜야 아이들의 공납금을 냈기 때문에 뽕나무는 “공납금 나무”로 불렸다고 자조적으로 말하였다.

보유자는 1년에 2필 내지 4필의 명주를 짜는데, 2필을 짤 경우에는 1년에 봄누에 한 차례만 누에알을 신청하고 4필을 짤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봄가을에 누에알을 신청하여 받는다고 한다. 매년 누에를 키울 사람들이 군청에 누에알을 신청하면, 군청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아 5월 봄누에 때 한 차례 나눠주고, 다시 8월 가을누에 때 한 차례씩, 두 번을 나눠주고 있었다. 2002년에도 조옥이 보유자와 이규중 조교는 신청한 누에알을 5월 첫째 주에 성주군청에서 받아와서 누에를 키우고 있었다

군청에서 받아온 누에알은 종이 채 채반(잠박)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한다. 누에는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실’이라고 불리는 온돌방에서 키운다. 이러한 잠실을 각도와 각읍에 설치한 것 또한 조선 초기 태종 때 부터였다. 태종은 각도에 잠실도회를 설치하여 누에고치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였는데, 태종 16년(1416)에 경기도 양근군 미원과 가평군 조종에 최초로 잠실을 설치하였다.<sup>85)</sup> 이듬해에는 북방을 제외한 각 도마다 한 곳씩 잠실도회를 설치하여, 개성(황해), 조종(경기), 청풍(충청), 태인(전라), 수안(황해), 의성(경상)이 그 곳이다.<sup>86)</sup> 세종 때에는 홍천(강원)에도 세워 각 도마다 잠실도회가 설치되었다. 잠실도회는 설치 직후부터 각종 폐해로 인하여 폐지가 논의되었는데,<sup>87)</sup> 잠실의 폐해는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잠실관리자가 잠실에서 생

85)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정해조 양근과 미원은 현재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이며, 가평과 조종은 같은 군 하면 현리에 해당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근면 속현조)

8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정월 무술조.



산되는 고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고과를 판정 받기 때문에 민간인을 부역(役)에 동원하거나, 다른 고을의 잠모(蠶母)와 적상노(摘桑奴)를 데려다 누에를 키우고 뽕잎을 따게 만들거나, 민가의 뽕잎을 갈취하고 민간의 각종 도구를 동원시키는 것 등이다.<sup>88)</sup>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단종 2년(1454)에 잠실도회 대신 각 읍에 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sup>89)</sup> 이후 성종 원년(1470)까지 16년간은 각읍 잠실이 운용되었다. 그러나 각읍 잠실보다는 각도 잠실도회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는지 성종은 각도 잠실도회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회귀하였다.<sup>90)</sup> 이 때 별헌품의 부담으로 조공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큰 도에 2개소와 작은 도에 1개소로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각 도마다 1개의 잠실도회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sup>91)</sup> 결국 별헌품에 대한 부담이 컸던 성종 15년(1485)까지 잠실도회가 계속 유지되다가 별헌품을 면제받는 성종 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흉년을 핑계로 임시로 폐지하였다가 복원이 되지 않은 채 완전히 폐지되었다.<sup>92)</sup>

한편 백성에게 양잠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중앙에도 잠실(京蠶室)을 설치하였다.<sup>93)</sup> 그러나 이들 경잠실의 실제 목적은 조공용 명주의 재료를 비축하여 명주를 직조하는 상설아문에 고치실을 안

87) 잠실도회는 흉년이 들면 1년간 임시로 폐지할 뿐이었다.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정월 계사조;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정묘조; 『성종실록』 권131, 성종 12년 7월 을유조.

88)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3월 병진조;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4월 계미조; 권43, 세조 14년 5월 임오조.

89)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9월 갑자조.

90) 『성종실록』 권3, 성종 원년 2월 계유조.

91) 『성종실록』 권8, 성종 1년 11월 기해조; 12월 정묘조; 무진조.

92) 『성종실록』 권181, 성종 16년 7월 기유조.

9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계해조; 권36, 태종 18년 7월 경술조.

정적으로 공급하려는데 있었다. 명나라에 조공용 명주의 부담이 컸던 세종 5년(1423)에 경복궁과 창덕궁에 잠실이,<sup>94)</sup> 같은 왕 8년(1426)에는 낙천정 잠실(외잠실)이,<sup>95)</sup> 13년(1431)에는 연희궁 잠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sup>96)</sup> 내잠실을 혁파하여 외잠실에 소속시켰다가 단종 때에는 다시 설치하였고,<sup>97)</sup> 세조대에는 내외잠실과 아차산 잠실(동잠실)을 설치하였다.<sup>98)</sup> 별헌용 명주까지 대폭 늘어난 성종대에는 오늘날의 잠원동(한강변 원단동) 근처에 왕실에서 직영하는 신잠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sup>99)</sup> 이후 경잠실은 대신들이 끈질기게 혁파하도록 주장하여 종종 연간에는 완전히 폐쇄되었다.<sup>100)</sup>

조선시대 각 도에 있는 잠실도회의 규모와 시설은 전라도 태인의 잠실도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태인 도회의 규모는 원래 150칸에 온돌로 만들어 초가를 이었다.<sup>101)</sup> 그런데 잠실의 초가를 매년 짚으로 덮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 백성들이 불평을 심하게 하자, 태인현 근처 창평현에 있던 200여 칸의 기와를 인 빈 관청으로 잠실을 옮겨서 그 불만을 해소하였다.<sup>102)</sup> 잠실도회의 내부에 비치된 시설은 숯, 돛자리, 채반, 잠박, 도가니, 버들고리, 나무반 등이었으며, 각종 집기나 쌀 · 콩이나 온돌에 소용될 땔감과 숯, 종이와 등유 등의 물건은 해마다 인근 여러 고을의 백성들

94)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정해조.

95) 『세종실록』 권28, 세종 8년 4월 계해조.

96)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정미조.

97)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 12월 을사조.

98)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4월 계미조; 권36, 세조 11년 8월 임오조.

99) 『용재총화』 권10.

100) 『중종실록』 권7, 중종 4년 2월 임오조.

101)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 2월 계묘조.

102)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정묘조.

에게 거두어 들였다.<sup>103)</sup>

이러한 조선시대 잠실에서 누에를 키우는 전통적인 방식은 조옥이 보유자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보유자의 앞마당에는 50그루의 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뽕잎이 너댓 개 돌아났을 때가 봄누에를 키우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조옥이 보유자의 개인 잠실은 마당 건너편 종가집의 사랑채에 설치하고, 이규종 전수조교는 집 안의 건넌방을 잠실로 만든다. 잠실 내부에는 대어섯 개의 굵은 통나무를 열기설기 얹어 대나무로 만든 채반(잠박)을 얹으며, 습도는 90% 정도이고 온도는 27℃ 정도가 적당하다. 대나무 채반에는 신문지나 창호지를 깔고 군청에서 배급받은 누에알을 올려놓는다. 따뜻한 햇빛이 비쳐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 누에알은 며칠 후에 비로소 알을 깨고 개미만큼 작은 애기누에 혹은 개미누에가 나온다. 이 개미누에를 '1령 누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미누에가 알에서 깨어나면 뽕잎을 따서 주어야 한다. 뽕잎을 딸 때는 반드시 새 가지에서 나온 뽕잎의 새순을 손으로 따낸다. 뽕잎을 따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봄누에를 키울 때 뽕잎을 따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가 좋고, 가을누에는 아침 9시부터 10시경에 따낸다. 1령 누에가 약 3일간 먹는 뽕잎은 얇고 보드랍고 작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 보유자와 조교는 앞장에서 기산 김준근이 그린 조선 말기 풍속화에서 보았던 방법대로 도마 위에 뽕잎을 올려놓고 크기는 작고 잎의 모양은 가늘게 잘라 주어야 한다. 1령 누에 때 썰어주는 뽕잎의 크기는 1~2cm 미만이다. 이렇게 잘게 잘라주는 또 다른 까닭은 1령 누에는 그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먹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누에는 상항성 동물이어서 뽕잎

103)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 2월 계묘조.



누에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 부지런히 뽕잎을 따서 주는 보유자와 두 동서.

개미누에에서 두 잠을 더 자고 많은 양의 뽕잎을 먹고 부쩍 자란 3령 누에.





을 먹을 때 채반 아래에서 뽕잎을 타고 위로 올라 가며 먹어야 하는데 뽕잎이 너무 크면 누에가 뽕잎 위로 제대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누에를 키울 때 너무 어두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밝은 곳의 누에가 어두운 곳의 누에보다 운동을 하거나 뽕을 먹는 것이 활발하다. 따라서 누에에게 뽕잎을 주기 전에는 잠박의 윗쪽을 밝게 하여 누에가 뽕 속에 묻히지 않게 유의한다.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는 잠박에 뽕잎을 올려주는데, 잠박이란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엮어 만든 것으로 통풍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보유자는 채반을 잠박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분배받은 누에알 1장에서 깨어난 1령 누에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모든 누에가 한꺼번에 깨어나지도 않고 한꺼번에 자지도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깨어나서 비슷하게 잠을 자곤 한다. 1령 누에가 3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난 뒤 하루 동안은 뽕잎을 먹지 않고 잠만 잔다.

하루 동안 잠을 자고 난 후에 첫 번째 허물을 벗으면 2령 누에가 된다. 2령 누에는 1령 누에에 비하여 체중은 20배로 늘어나고 고치실이 담겨 있는 실샘은 30배로 커진다. 2령 누에 때 떨어주는 뽕잎의 크기는 1령 누에 때의 1~2cm보다 2배 정도 큰 2~2.5cm이다.

2령 누에는 또 다시 약 이틀 반 동안 뽕잎을 먹고 자라서 두 번째 허물을 벗고 3령 누에가 된다. 3령 누에는 1령 누에에 비해 체중은 120배나 늘은 것이고, 실샘의 크기는 70배로 커진 것이다. 3령 누에 때 떨어주는 뽕잎의 크기는 1령 누에 때보다 두 배 반이 늘어난 2.5~3cm이다.

이처럼 1령 누에부터 3령 누에까지를 애누에(稚蠶)라 부르며 누에알에서부터 약 10일 동안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이다. 애누에들은 큰누에



(壯蠶)와 달라서 뽕잎을 먹는 양은 적으나 소화되는 비율은 대단히 높다. 1령 누에의 경우 1장의 뽕잎을 주면 먹는 양은 25%이고 소화율은 63%인데 비해, 2령 누에의 경우 1장의 뽕잎을 주면 먹는 양은 40%로 늘면서 소화율은 50%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들 애누에가 먹는 뽕잎은 뽕나무의 새순에서 나온 연한 뽕잎을 골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누에가 어릴 수록 뽕나무 가지 끝의 어린 잎으로 주어야 한다.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을 먹고 자라므로 부지런히 뽕잎을 따야 한다. 뽕잎은 매일 5~6차례씩 주어야 하므로,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먹이는 일은 쉴 틈이 없다. 누에에게는 언제나 방금 딴 신선한 뽕잎을 주어야 하지만, 간혹 많은 양의 뽕잎을 따 놓았을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갈무리해 두었다가 준다. 이때 뽕잎의 바닥에는 물을 적신 거적을 깔고 그 위에 뽕잎을 올리고 맨 위는 다시 물을 적신 천이나 거적을 덮어두면 뽕잎이 마르지 않고 그 신선함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

3령 누에쯤 되면 1령 누에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다. 따라서 이때는 뽕잎을 부지런히 따 주어야 한다. 오월 한낮의 따가운 햇살 아래 뽕잎을 따는 세 할머니들의 손길은 줄기를 잡고 잎을 하나 하나 떼 내어 담느라 분주하다. 『천공개물』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누에가 자려고 하면 뽕잎을 실컷 먹여서 재웠다. 누에가 잠에서 깨면 반나절 늦게 먹여도 괜찮지만 안개로 젖은 뽕잎은 누에를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안개가 끼었을 때는 결코 뽕잎을 따서는 안 된다.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다가 날씨가 맑을 때 가위로 잎을 따도록 한다. 뽕잎에 이슬방울이 맺힐 때에는 따지 않고 기다렸다가 해가 떠서 마르고 난 다음에 가위로 따나.

누에가 자고 깰 때는 뽕을 먹을 때와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누에 다루기에 유의한다. 누에를 튼튼하고 고르게 키우는 여부는 이때에 어떻게



온돌방을 잠실로 삼아 가로목을 설치하고 잠박 위에 올린 5령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보유자.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누에가 잠들려고 할 때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일자형이 되고 잠든 누에는 머리를 45도 각도로 위로 들고 잔다. 이런 누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잠을 자면서 싸는 똥을 갈아주는 '잠똥갈이' 용 망을 밑에 받쳐주고 누에가 잠자기 전에 뽕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넣어준다. 누에가 잠들려고 하면 잠실의 온도는 1~2도 낮추고 습도는 65%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 석회나 태운 겨를 뿌려 누에자리를 건조하게 만들어 준다. 누에는 잠에서 깬 때 다시 일자형이 되어 허물을 벗고 인누에가 껍질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누에가 보이면 잠실의 습도를 조금 높여준다. 인누에는 허물을 다 벗은 다음 3~5시간이 지나야 뽕잎을 먹을 만큼 식욕이 나므로 잠에서 깬 뒤의 첫 뽕잎은 이때 주어야 누에들이 골고루 자란다.

3령 누에가 3~4일간 뽕잎을 먹고 나서 잠을 잤다가 깨어나면 세 번

한달 동안뽕잎만먹고네 번을자고나서 개미누에때 보다1만배 이상자란5령 누에.





재 허물을 벗으며, 이 누에가 4령 누에이고 이 때의 누에를 큰누에(壯蠶)라고 부른다. 큰 누에는 개미누에에 비하여 체중은 730배나 늘어나고, 실샘은 220배나 커진다. 누에는 한잠 이후에는 젖은 잎을 바로 먹일 수 있으며, 비올 때 탄 잎은 그대로 바닥에 깔아서 먹인다. 맑은 날에 탄 잎은 물로 적어서 먹이면 실에 광택이 난다. 한잠 전에는 비올 때 탄 잎은 통풍이 잘되는 처마 밑에 걸어 때때로 줄을 흔들어서 바람을 쐬어 말린다. 손바닥으로 살짝 비벼서 말리면 잎이 마르더라도 윤기가 없어서 그 후 여기서 나온 실도 역시 광택이 없다.

4령 누에가 5~6일간 뽕잎을 먹고 녀잠을 자고 깨어나면 네 번째 허물을 벗는다. 이 누에가 5령 누에이며 익은누에(熟蠶)라고 부른다. 5령 누에는 1령 누에보다 체중은 2,640배가 늘고, 실샘의 크기는 1,800배로 커진 것이다. 5령 누에는 고치가 만들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이다. 누에는

짚으로 만든 지네蓆에 들어간 누에 한 마리마다 각자 1,200m 길이의 실을 뽑아 고치를 지은 모습.





고치에 들어있던 번데기 상태의 누에나방이 번데기를 깨고 나오는 모습.

번데기에서 나오자마자 몇 초 이내에 암수 한 쌍이 서로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는 모습.







작짓기가 끝난 암나방이 곧바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누에알을 낳는 모습.

하나의 암나방이 하나의 둥근 원형을 지으며 낳은 500여 개의 누에알.



큰누에와 익은누에 시기에 뽕잎을 가장 많이 먹는다. 1~3령에 해당되는 애누에가 먹는 뽕잎의 양이 누에가 한 살이를 사는 동안 먹는 양에서 고작 2%에 해당된다면, 4령 누에 시기에는 전체의 10%로 먹는 양이 이전 시기를 합친 것보다 5배가 늘어나며 5령 누에는 전체의 88%를 먹게 된다. 뽕잎을 따면 누에가 먹고 누에가 자라면 고치가 지어지고 고치가 지어지면 명주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뽕을 따는 사람의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 큰 누에는 누에가 한 살이를 사는 동안 먹는 양의 거의 90%에 해당되는 뽕잎을 먹기 때문에 뽕잎을 한 장 한 장 떼어서 주기에 벅차므로 이 때는 뽕나무를 가지 채 잘라주어 누에가 양껏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뽕잎을 마음껏 먹은 누에는 건강해져서 좋은 고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5령 누에는 6~8일간 먹이를 먹고 고치를 틀기 시작한다. 이렇게 다 자란 누에의 체중은 1령 누에보다 10,000배가 늘어난 것이고, 실샘의 크기는 140,000나 커진 것이다.

다 자란 익은 누에가 고치를 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에 올리기를 한다. 누에는 위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익은 누에가 보이면 누에 올리기를 하기 전날 아침에 새끼줄이나 망 혹은 싹을 깔고 나서 뽕잎을 준다. 익은 누에라도 성장속도는 누에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솔잎을 비롯하여 지네싹, 개량싹, 회전싹 등에 올라가는 시간은 10~15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누에가 모두 싹에 올라가면 잠박에서 분리하여 싹을 달아매고 싹에 올라가지 못하고 처진 누에는 손으로 집어 싹에 올려준 다음 누에의 자리가 평탄해지게 정리를 한다.

누에의 몸에 실샘이 차면 푸른색이 줄고 투명해지며 이 때부터 실을 뽑아내기 시작한다. 누에가 실샘에서 실을 토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일이며, 실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고치의 모양이 갖추어진다. 한 개의

고치실은 그 길이가 1,200~1,300m이다. 이처럼 고치 1개의 실 길이를 길게 하려면 누에가 양질의 뽕잎을 포식하도록 하고, 온도와 습도가 맞는 좋은 사육환경에서 누에를 병들지 않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누에는 고치를 다 짓기까지 약 1,500 미터의 실을 뽑아낸다. 타원형이 되어 가는 실뭉치 속에서 누에가 자리를 잡으며 서서히 고치를 완성해 간다. 완성된 고치들은 보기에도 탐스럽고 윤기가 흐른다. 명주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치를 짓는 여기까지가 한 과정이지만 누에의 한살이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약 한 달 후, 다 지어진 고치 속에서 누에는 7일 동안 번데기로 탈바꿈한다. 번데기로 된 지 7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누에나방이 고치를 깨고 밖으로 나온다. 나방은 고치에서 나오자마자 암수가 만나 짝을 짓는다. 즉 누에나방의 암컷과 수컷은 그 수가 같으며, 암컷은 옆드린 채 움직이지 않으나 수컷은 두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나면 곧 교미한다. 6시간이나 12시간 동안 교미한 후 떨어지면 수컷은 정력이 고갈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암컷은 짝 지은 지 4~5일이 지나 때가 되면 뱅글뱅글 원형을 그리며 돌면서 약 5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암나방은 곧바로 죽으며 이로써 누에의 한살이가 마쳐지는 것이다.

이처럼 누에는 누에알에서 깨어나 잠자기와 깨기를 너댓번 반복한 다음 고치를 거쳐 번데기에서 누에나방이 되어 알을 낳으면 일생을 마친다. 그러나 인간은 비단옷을 짓기 위해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순간까지만 살게 만들었다. 결국 비단옷은 누에가 자신의 일생을 희생해서 남긴 고치실로 짠 옷감으로서, 누에고치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신비한 선물이라 할 만하다. 때문에 이러한 누에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우리

조상들은 잠령제(蠶靈祭)라는 의식을 지내기도 했다. 잠령제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기 일생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누에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는 의식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매년 5월초에 거행되고 있다.



매년 5월초, 인간에게 비단옷감을 주고자 온전한 일생을 보내지 못하고 고치상태로 죽은 누에를 추모하는 잠령제.

인간을 위해 죽은 누에의 영혼을 추모하는 잠령비(蠶靈碑), 청주 잠업시험장.



### 3 명주의 재료와 제작 도구

명주베를 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명주 짜기의 제작 순서에 따라 각각 필요하다. 명주 짜기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명주실을 만드는 제사(製絲) 과정, 날실을 거는 정경(整經) 과정, 날실에 풀을 먹이는 가호(加糊) 과정, 베틀에서 베를 짜는 직조(織造) 과정, 그리고 생명주를 잿물에 담가 풀기를 빼고 빨래하는 정련(精練) 과정이다. 여기에 물레질을 하거나 바디에 실을 꿰거나 잉아를 매는 과정이 세분된다.

이는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를 짤 때에도 대체로 같아서 한 가지 도구를 갖추고 있으면 여러 종류의 베를 짤 수 있다. 예전에는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여름에는 모시베와 삼베를 짜고 겨울에는 무명베나 명주베를 짜서 가족들의 의복을 지었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실을 만드는 제사 과정이다. 특히 명주실을 만들기 위한 실 썬기 과정은 다른 옷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누에고치라는 독특한 재료와 도구가 사용되며, 그밖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는 옷감마다 대체로 공통된다.



## 1. 실 써기(製絲) 재료와 도구

조옥이 보유자의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50그루의 뽕나무에서 5월 한 달 동안 뽕잎을 따서 먹인 봄누에로는 2필 정도를 짤 수 있는 누에고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명주 1필(0.5m 폭×40자 길이)을 짤 때 필요한 누에고치의 양은 1.2관(4.5kg) 정도이다. 이렇게 마련한 고치에서 실을 뽑기 위해서는 끓는 술에 부을 맑은 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물은 항아리 가득 담아서 60리터를 마련하고 술에서 고치를 삶을 때 아궁이에 지필 장작 30kg도 필요하다.

명주 한 필에 드는 4.5kg의 누에고치는 수북하다. 고치 상태의 누에를



끓는 물에 삶지 않고 평온에 놓아두면 5~6월의 따뜻한 봄볕을 받아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탈바꿈한 누에나방이 황토색 똥을 싸면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명주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에 번데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실을 뽑아내는 실 썬기를 해야 한다.

실 썬기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에는 한 달 이상 잘 기른 누에고치가 담겨있는 광주리와 명주실을 다 뽑으면 사려서 담아놓을 소쿠리가 있어야 한다. 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때야 하는 아궁이 위에는 작은 솥을 걸고, 그 속에 고치를 넣은 다음 고치실을 건질 낫젓가락이 있어야 하고, 부뚜막 위에는 실을 꼬고 합사하는 자새(자애)를 돌로 눌러 놓고, 그 위쪽에 명주물레(왕챙이)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 놓는다.

이렇게 명주실을 뽑는 과정에 드는 작업도구는 무명실이나 삼베실 혹은 모시실 등에 비하여 훨씬 간단하다.

### 1) 자새(사투리 ; 자애)

자새는 명주실을 뽑아내는 연모이다. 가로×세로가 각각 29.3cm에 20.8cm이고 두께 2.3cm인 넓은 나무 판자 위에 한쪽 끝 가장자리에는 직경 1.0cm의 쇠고리가 바깥쪽에서 C자형으로 박혀 있다. 쇠고리 안쪽으로 6.5cm 위치에는 1×2.8cm 두께의 각목 두 개를 11.5cm의 폭으로 벌리고 17cm 높이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운다. 이 기둥의 안쪽에는 나무 바닥으로부터 6cm 높이와 그로부터 다시 6cm 올라간 12cm의 위치에 각각 수평으로 쇠꼬챙이를 꽂아 두었다. 이 쇠꼬챙이에는 대나무 대롱을 수평으로 꽂게 되어 있다. 이렇게 대나무 대롱을 수평으로 꽂은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앞쪽에 작은 고리를 박은 넓적한 나무 판자는 움직이지



왕챙이

자새

놓젓가락

누에꼬치

술

실씩기 도구

않도록 무거운 돌맹이로 눌러 놓았다.

이 C형 작은 고리의 아래쪽에 작은 술을 걸어 장착해 두어, 술에서 고치를 꿰이다가 낫젓가락을 넣고 몇 번 휘저으면 고치에서 풀린 대여섯 가닥의 실마리가 오른손의 낫젓가락에 걸린다. 낫젓가락에 실끝이 걸리면 낫젓가락을 내려놓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실끝을 돌돌 꼬은 다음 이 실끝을 잡아 올려 자세의 C형 고리에 걸게 된다.

술에서 고리를 거친 실끝은 자세의 중심부에 있는 대나무 대롱 밑으로 넣고 자세의 뒤쪽에서 합사한다. 합사된 명주실 가닥은 두 개의 솥대에 8자형으로 건다. 자세의 상하 솥대에 걸린 명주실을 왕챙이의 한쪽 기둥에 묶은 다음, 왕챙이를 돌리면 왕챙이가 돌아갈 때마다 명주실이 불어나게 된다.

## 2) 왕챙이(명주물레)

명주실을 자아내는 명주물레는 이 지방의 사투리로 왕챙이라고 부른다. 왕챙이의 재료는 단단한 참나무이다.



왕챙이는 넓적한 2층의 나무 바탕 위에 기둥 하나를 세우고 십자형으로 각목을 끼우며, 각목의 위쪽으로는 ㄷ자형으로 마무리해서 각목이 십자형으로 교차된 곳은 둥근 합석판으로 마감하고 있다.

나무 바탕은 크기가 55×29.6cm이며, 이 위에 22.2×11.1cm의 나무를 덧대



어 만든다. 그 위에 꽃은 나무 기둥은  $4.7 \times 4.7\text{cm}$  두께에, 높이는  $48.5\text{cm}$ 이다. 나무기둥의 중앙에 십자형으로 교차되는 4개의 물렛살은  $4.5 \times 5.5\text{cm}$  두께의 각목으로 만들며 한 변의 길이는  $22.5\text{cm}$ 이다. 각목의 뺨형 끝 부분은 아래쪽 각목보다 약간 두꺼운  $4.8 \times 5.8\text{cm}$ 로 만든다. 십자형 각목이 교차된 물렛살의 중앙 부위는 직경  $17\text{cm}$ 의 둥근 함석을 박아 마감하는데, 각목으로 되어 있는 물렛살의  $14\text{cm}$  부분까지의 외곽에는 길쭉한 함석판을 오려서 붙인다. 함석판을 각목에 고정시키고자 둥근 부분의 사방 4군데에는 못을 박았고, 각목 부분에도 각각 3개씩의 못을 박았다.

왕첩이의 네 물렛살 중 세 개의 물렛살은  $22.5\text{cm}$ 의 각목으로 이뤄진 데 비하여, 한 곳의 물렛살은 각목을 상하로 어긋나게 잘라 아래쪽은  $8\text{cm}$ 이고 위쪽은  $12\text{cm}$ 이며 약간 사이가 벌어진 채 나사로 맞물려 있는 형태이다. 물론 각목의 끝부분은 나머지 물렛살과 마찬가지로 뺨 형태인 점은 일치한다. 고치에서 실을 뽑아 왕첩이에 걸 때는 이렇게 상하로 나뉘고 나사가 박힌 물렛살을 끈으로 칭칭 동여매서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로 사용한다. 그러다 한 타래 분량의 실이 다 감기면 끈을 묶은 물렛살을 풀고 손으로 위쪽 각목을 톱 치면 나사가 풀리면서 위쪽 각목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원리이다.

왕첩이 물레의 특징은 네 개의 물렛살 중 특별히 하나의 물렛살은 기둥의 중간 부분을 상하로 나누고 나사로 맞물려 놓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다. 이 곳의 기둥에는 언제나 끈을 감아 둔다. 즉 물레를 돌려 명주실을 뽑을 때에는 끈을 묶어 두었다가 어느 정도 명주실이 만들어지고 물레에서 실을 빼낼 때 풀기 쉽게 하려고 풀었다 묶었다 하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끈으로 왕첩이의 한쪽 기둥을 고정시킨 이유는 명주실



을 뽑아서 왕챙이를 수백 번 돌려서 물레에 감은 다음 수북하게 쌓인 명주실을 물레에서 빼낼 때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4개의 물렛살 중에서 1개의 물렛살에는 직경 2cm의 구멍을 뚫고 7cm의 볼트를 끼우고 12.7cm 길이의 손잡이를 달아 둔다. 이 손잡이는 물레 꼭지 혹은 꼭두마리라 부르며 왕챙이를 돌리기 위해 달아 두는 것이다.

## 2. 실 내리기(解絲) 도구

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을 풀어서 가락이나 꾸리로 감는 방법이 해사(解絲)이다. 명주를 잘 때 해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사용한다. 하나는 직경 10.5cm 정도의 오동나무로 만든 원통형 기둥에 실타래를 끼워서 두 손으로 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물레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물



실 내리기 도구, 물레와 가락

레는 무명실이나 삼베실을 잣을 때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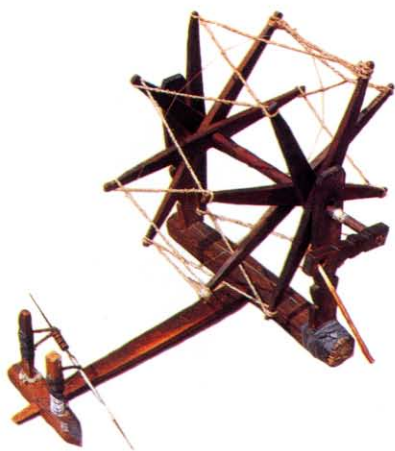
보유자는 물레를 이용하여 실 내리기를 한다. 물레질을 하기 위해 '물레'를 마련하고 물레에 연결된 막대 부분은 무거운 돌맹이로 눌러 놓고 그 끝에 있는 '가락꽃이'에 끼울 대나무 대롱인 '가락'을 준비하며, 물레가 돌아가면 풀리는 타래실은 '돌것'에 끼운다. 이렇게 돌것에 끼워진 타래실의 끝을 가락에 묶은 후 왼손으로 실의 중간을 잡고 오른손으로 물레를 돌린다. 물레가 돌아감에 따라 돌것이 따라 돌면서 가락에 실이 붙어나고, 한 필을 짤 정도의 실을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물레질을 해야 한다.

### 1) 물레와 가락

물레는 실을 잣는 도구로서, 피륙을 짜기 위해 날실이나 씨실로 사용할 실을 꾸리나 얼레, 혹은 가락 등에 감을 때 사용된다. 물레의 구성은 맨 오른쪽에 물레를 놓고 받침목 중간 구멍

의 왼쪽으로는 가로목을 놓아 무거운 돌로 누르며, 그 끝에는 가락꽃이용 버팀목과 쇠꼬챙이를 꽂아 가락을 꽂게 되어 있다.

물레는 두툼한 59.2×6.7cm의 나무 막대를 받침목으로 삼고 양쪽에 높이 39cm에 폭 6.7cm의 기둥목을 세운다. 기둥목은 위쪽에 직경 2cm의 구멍이 뚫려



있고 맨 위부터 21.5cm 아래쪽에는 5cm마다 삼각형으로 움푹 들어간 툇니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기둥목은 받침대의 앞 뒤로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가 꽂혀 있다. 기둥목 위쪽의 구멍에는 바람개비형 사이목 4개씩을 끼워, 전체적으로 바람개비형으로 꽂아 마치 8개의 사이목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목의 총길이는 57.5cm이며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서 가운데의 폭은 4.8cm이고 양끝은 1.0~1.7cm이다. 유선형 사이목의 끝 부분은 뭉툭한 갈고리처럼 약간 구부러져 있고 이 구부러진 곳에 삼근을  $\infty$ 자형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씩 꼬면서 반복하여 묶게 되어 있다. 나사로 조여진 기둥의 중간 부분은 기둥목으로부터 12.5cm 떨어진 위치에 직경 2.5cm에 길이 21.5cm의 손잡이를 달아서 물레를 돌릴 수 있게 만든다.

물레 받침목의 중간 32.3cm 부분에는  $1.7 \times 3.2$ cm의 구멍이 뚫려 있고 물레와 가락꽃이를 52cm 길이로 연결할 6cm 두께의 중간 가로목을 끼우게 되어 있다. 가로목은 길이 52cm  $\times$  폭 6cm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오랜 동안 물레질을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돌을 눌러 놓는다.

보유자가 앉아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물레의 맨 왼쪽에는 가락꽃이를 놓는다. 따라서 물레와 가락꽃이를 한 몸체로 연결하기 위해 물레에 끼워진 중간 가로목의 왼쪽 끝 부분에는 10cm 내외의 가락용 받침목이 연결되어 있다. 가락용 받침목의 왼쪽에는 높이 14.2cm에 두께 2.5cm 정도의 기둥목 두 개를 앞 뒤로 세우고 그 중간 부분에 각각 한 개씩의 단단한 나무를  $\cap$ 형대로 뒀다. 이렇게  $\cap$ 형 나무 안쪽에 가락이 꽂힐 41.3cm의 쇠꼬챙이를 끼운다. 가락꽃이라 할 수 있는 쇠꼬챙이의 중간 부분인 15.5cm 부분에는 쇠구슬로 도르래를 만들어 놓았다. 도르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실로 묶어 두었고 비닐까지 싸 두어 가락을 쉽게 꽃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락(경상도 사투리 ; 갯기)은 대나무로 만든 일종의 꾸리라 할 수 있다. 충청도에서 꾸리를 감는 대나무는 전대라고 부르며, 지역에 따라서는 솥대나 부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1년생의 비교적 가는 대나무로 만들며, 날실로 사용할 가락은 실을 감는 양과 정도에 따라 20개에서 30여 개를 미리 만들어 둔다.

## 2) 돌것(사투리 ; 돌궂)

돌것은 고치에서 뽑아 만든 타래실을 걸어 물레가 돌아갈 때 실이 내려지는 도구이다. 돌것의 구조는 바닥의 받침목과 그 중앙에 버팀기둥을 세우고 다시 십자형 날개나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한 다음 네 끝부분의 구멍에 대나무를 밖으로 휘어 갈퀴손처럼 만들어 꽃아둔다. 이 갈

퀴손에는 타래실을 걸고 실마리를 찾아 가락에 걸면서 실을 내리는 것이다.

돌것의 받침목은 예전에는 통나무를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십자형 나무를 끼워서 받침목을 만들고 있었다. 받침목의 나무는 길이 30cm에 폭 7cm이고 두께 3cm의 나무를 십자형으로 끼워서 사용한다. 받침목이 십자형으로 교





차된 중앙은 직경 2cm의 구멍을 뚫고 50cm 남짓의 대나무를 버팀기둥으로 세운다. 버팀기둥의 중앙 위쪽에는 65cm 길이에 폭 3cm이고, 두께 1cm의 십자형 날개나무를 올리는데, 이 부분은 물레질을 할 때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날개나무의 맨끝 부분에는 35~40cm 길이에 1cm 폭의 가느다란 대나무를 사용하되 중간 부분의 위쪽은 바깥쪽을 향해 흰 갈퀴손(사투리; 갈구잡이)을 끼워 둔다. 갈퀴손의 형태는 마치 기러기가 바깥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 모습이다. 갈퀴손에는 고치에서 뽑아 사려둔 명주실을 걸고 그 실끝을 가락에 묶어서 물레가 돌 때마다 가락으로 실이 내려 감기도록 한다.

### 3. 실 날기(整經) 도구

실 날기는 베틀에 걸 날실을 준비하는 정경작업이다. 명주를 짤 때 필요한 날실의 숫자는 셋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유자는 열넉 새 명주를 짜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한다. 날실을 걸기 위해서는 날씨 좋은 날을 택하여 마당에 날틀과 쇠꼬챙이 및 가락과 고무대, 그리고 걸틀로 사용하기 위해 마당 바닥에 박아야 할 막대 다섯 개 이상, 그리고 망치 등의 도구를 미리 준비한다.

각종 도구가 준비되면 날틀에 뚫린 10개의 구멍에는 명주실을 감은 가락 10개를 펜 쇠꼬챙이를 끼우고, 각 가락에서 찾아낸 실끝은 날틀의 빗금에 걸친다. 날틀에서 잡아 올린 10가닥의 실은 대나무를 십자형으로 묶어서 만든 고무대에 뚫린 10개의 구멍에 각각 끼운다.

걸틀로 사용할 막대는 마당에 망치질을 하여 박는다. 가장 먼저 박을

걸틀용 막대는 고무대 아래 첫 번째 부분에 '첫새'라 부르는 막대 한 개를 박고, 그 첫새로부터 10자에 해당되는 위치까지 자를 대고 재서 '중간새'라 부르는 막대를 박는다. 중간 막대에서 다시 고무대 쪽으로 와서 첫째 막대의 맞은편에 '개새', '참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막새'용 막대까지 모두 3개의 막대를 차례로 박는다. 명주 20자를 짤 때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막대만 박으면 된다.

그러나 보통 명주를 짤 때에는 한 필씩 짜기 때문에 날실을 날 때에도 한 필의 분량을 날기 위해서는 모두 일곱 개의 막대를 걸틀로 사용한다. 20자 짜리의 날실과 달라지는 점은 10자에 해당되는 중간 막대와 2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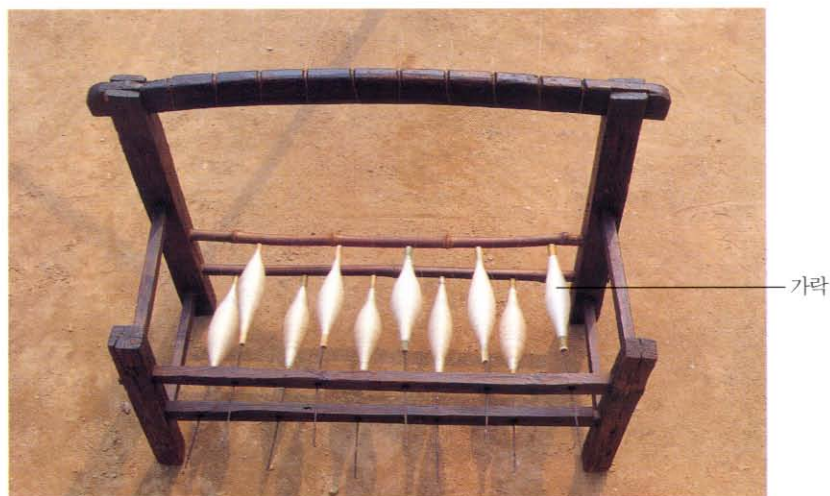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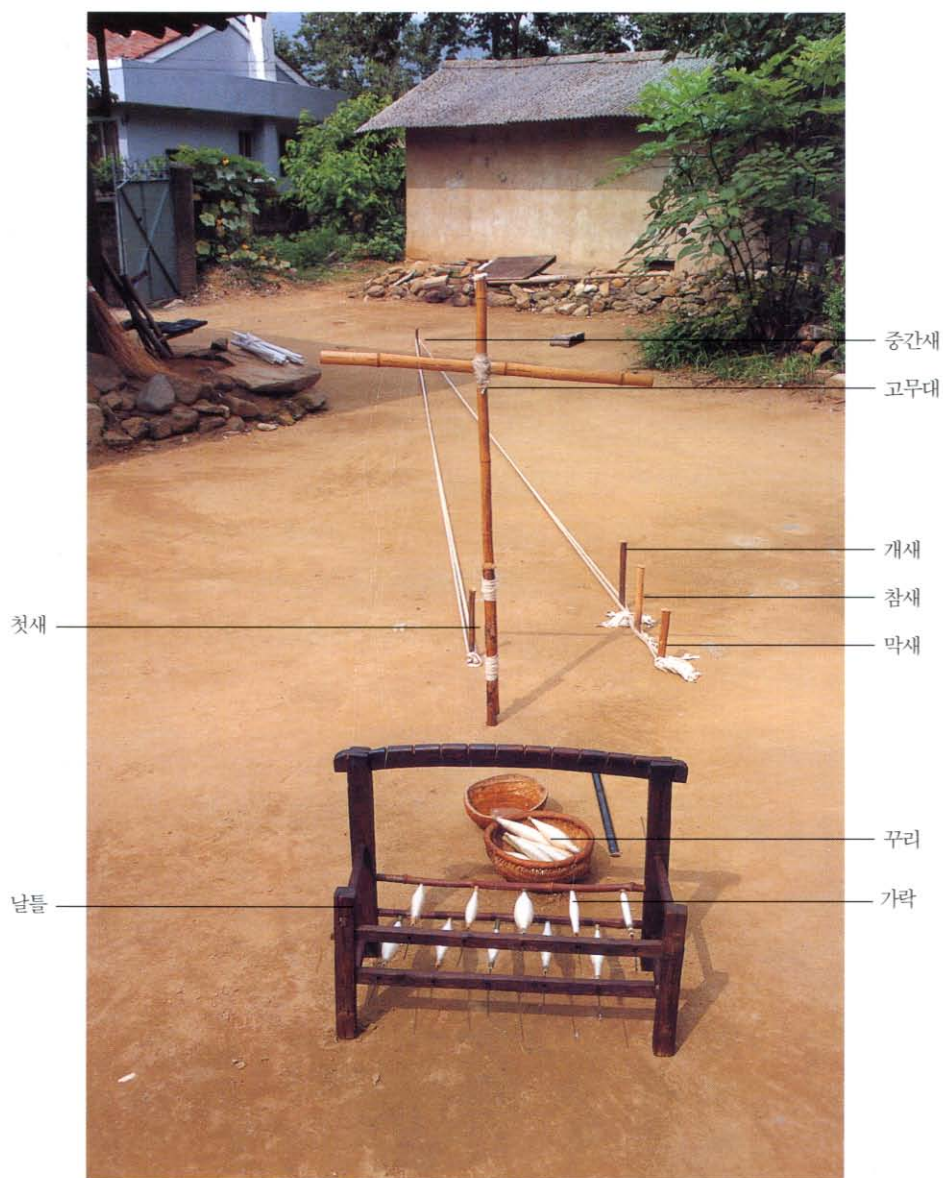
실날기모습

와 30자에 해당되는 두세 번째의 중간 막대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박는 것이다. 첫째 막대의 앞쪽과 중간 막대 쪽에 각각 한 개씩 두 개를 더 박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막대를 한꺼번에 박는다.

### 1) 날틀(전라도 사투리; 날상이)

날틀은 날실을 날기 위한 나무틀이다. 날틀의 앞 뒤 대나무에 뚫린 10개의 구멍에는 쇠꼬챙이를 끼워서 가락을 걸고, 가장 높은 쪽에는 빗금 10개가 그어져 있어서 가락에서 잡아 올린 실끝을 그 부분에 걸어서 고무대로 넘긴다. 전체적인 날틀의 형태는 골격으로만 되어 있고 그 사이를 가로지른 사이목은 앞뒤 2단인데, 고무대에 가까운 앞이 뒤보다 낮으면서 전체적으로 의자 형태에 가깝다. 날틀의 골격은 3.6×2.8cm 두께의 각목으로 앞쪽은 50cm의 높이로, 뒤쪽은 28cm의 높이로 네 군데에 기둥





배 날기 도구



을 세운 다음 그 옆면 또한 각목을 끼워서 형태를 잡는다. 앞쪽 사이목의 대나무는 위쪽의 것이 직경 1.5cm에 높이 20cm이고, 아래쪽의 것이 직경 2.0cm에 높이 11.0cm이다. 뒤쪽 사이목의 각목은 1.7×1.7cm 두께에 위쪽의 것은 높이 24.8cm이고 아래쪽의 것은 높이 15.5cm이다.

가락을 끼울 부분은 각목으로 골격을 세운 네 모서리의 안쪽에 해당되는 사이목이며, 그 사이목 부분의 앞에는 대나무를, 뒤쪽에는 각목을 끼우는데 그 길이는 각각 55cm이며 1쌍씩 수평으로 나란히 세운다. 앞쪽의 대나무와 뒤쪽의 각목으로 만든 사이목에는 각각 5개씩의 구멍이 10cm 간격으로 뚫려 있다. 가락은 앞뒤의 윗쪽 구멍과 아랫쪽 구멍에 쇠꼬챙이를 끼워서 꿰게 된다. 물레와 돌 것을 돌려서 만든 10개 이상의 가락을 준비하여 쇠꼬챙이에 꿰은 다음 날틀에 난 구멍에 앞쪽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도록 걸면 된다.

날틀의 의자형 걸이에 해당되는 앞쪽 윗 부분의 형태는 둥근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에는 두께 2.2cm에 4.5cm 넓이의 각목을 대고 있는데, 곡선형을 이룬 전체 길이는 68cm이며 5.2cm마다 한 개씩 총 10개의 빗금이 그어져 있다. 이 빗금에는 아래 날틀의 사이목에 걸어둔 가락의 실끝 10올이 걸리게 된다.

## 2) 고무대(전라도 사투리; 홀아비대)

고무대는 날틀에서 83cm쯤 떨어진 곳에 세운다. 고무대의 전체 모습은 반쪽으로 쪼갠 대나무를 십자형으로 얹어맨 형태이고, 수직 방향의 대나무 아래쪽은 땅에 박을 수 있도록 각목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매달아 놓는다. 수평 방향의 대나무에는 10개 내지 14개의 구멍이 뚫려 있



다. 이 10개의 구멍에는 날들의 빗금 부분을 걸쳐서 올라온 10올의 날실을 각각 1올씩 끼워 둔다. 이 고무대에서 10가닥의 실을 일정하게 긴장시켜 팽팽하게 잡아끌면서 뽑아 걸틀에 걸면 베를 날 수 있다.

### 3) 걸틀용 막대(전라도 사투리; 배꽃이)

채래식으로 날실을 정경하려면 넓은 앞마당에서 해야 한다. 날들과 고무대를 세우고 가락까지 끼워 실을 뺄 준비가 끝나면 고무대에서 10자 위치에 걸틀용 '중간새' 말뚝을 땅에 박으면 된다.

걸틀은 땅 바닥에 박는 여러 개의 말뚝이다. 말뚝의 숫자는 짜야할 명주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명주 반 필에 해당되는 20자를 짤 경우 가장 최소한의 말뚝 숫자인 5개가 필요하다. 이후 20자씩 늘 때마다 말뚝 두 개가 추가되어 명주 한 필인 40자를 짤 때는 7개의 말뚝이 필요하고, 한 필 반에 해당되는 60자를 짜려면 그보다 두 개가 많은 9개의 말뚝이 필요하며, 두 필을 짜려면 총 11개의 말뚝을 준비해야 한다. 즉 10자마다 말뚝 한 개를 더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첫새'에 해당되는 첫 번째 걸틀용 말뚝은 고무대에서 47~50cm쯤 떨어진 지점에 박는다. 첫새부터 10자에 해당되는 길이는 땅에 표시하면서 자로 재게 된다. 10자가 되면 그 지점보다 반 자 내지 한 자쯤 넘는 곳에 솥검덩이로 '개미'를 표시할 부분에 '첫새'용 혹은 '중간새'용 말뚝을 박는다.

첫새용 걸틀로부터 다시 고무대 쪽으로 걸어와서 '첫새'와 60~65cm 정도 떨어진 맞은편 위치에 3개의 말뚝을 차례로 박는다. 첫새의 반대편에 박은 맨 마지막에 거는 말뚝이 '막새'용이고, 그로부터 개미용 말뚝

을 향하여 22~25cm마다 떨어진 곳에 '참새' 용 말뚝과 '개새' 용 말뚝을 차례로 박으면 걸틀이 완성된다.

#### 4. 베 매기(加糊)재료와 도구

날실을 날기가 끝나 사려놓은 날실은 바디의 구멍에 꿰어야 날실에 풀을 먹일 수 있다.마당에서 정경한 14새 날실을 소쿠리에 사린 다음 14새 '바디'를 준비하고, '망치'(사투리 ;도치)에 묶어 고정시킨다.사침대를 벌려 잉아울과 사울을 잘 가른 다음 바딿살 한 구멍에 잉아울과 사울 1쌍을 각각 끼운다.열년새의 날실 1,120올을 모두 꿰면 소쿠리에 담아둔다.

바디에 날실을 다 꿰면 다음에는 명주실에 풀을 먹인다.명주 한 필에 풀을 먹이려면 온 종일 걸리므로, 햇별이 잘 드는 날을 택하여 안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시작한다.풀은 쌀이나 밀가루로 쑤며,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콩즙도 준비한다.하루 정도 물에 불려 놓은 콩을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찼어서 체로 거른 맑은 콩즙을 쌀풀과 함께 소래기에 각각 담아 놓으면 된다.

베 매기를 하려고 안 마당에 늘어놓는 도구에는 '들말' 1개가 있고 그 위에 무거운 돌맹이를 올리며,들말 앞쪽 기둥에는 '도투마리'를 세운다.도투마리의 왼쪽에는 '콩즙 그릇'과 '풀 그릇'과 '풀솔'을 마련해 놓고,오른쪽에는 채반에 여러 자잘한 도구를 넣어 둔다. '채반'에는 날실에 풀칠을 해서 말리고 도투마리에 감을 때마다 실과 실이 붙지 않도록 사이를 벌리기 위해 넣을 대쪽이나 나무판자를 넣게 된다.이렇게 넣는 '뱀



베 매기 전 바디 꿰기 도구; 바디, 쇠도끼, 소쿠리

쌀풀과 콩즙이 각각 담긴 소래기





꼬싱개

비경이

목대비

뱌뎡이

채반

도투마리

돌맹이

들말



베 매기 도구



맹이' (사투리; 뱀다구, 전라도 사투리; 배비)는 모두 50여개 이상이다. 이중 도투마리에 맨 처음에 넣는 것이 둥근 막대기 형태의 '참뚱대'이다. 참뚱대는 베 매기 작업이 시작될 적에 날실을 알맞은 너비로 벌려서 도투마리에 잡아 맬 때 지지대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참뚱대를 넣은 후 날실을 감을 때 넓직한 나무판자형으로 생긴 '목대비'를 끼워야 한다. 넓직한 목대비는 감이들 날실이 고루 힘을 받아 긴장되도록 하면서 날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목대비 다음부터는 대나무를 반쪽으로 쪼갠 땃개비로 만든 뱀맹이를 많이 준비해 둔다. 이때 명주에 사용할 뱀맹이는 창호지로 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거친 무명베와 달리 명주실을 가늘고 곱기 때문에, 뱀맹이에 창호지를 감싸 갈끔하게 처리해 두어야 날실을 곱게 걸 수 있다. 그리고 채반에는 참새에 끼운 사침대와 마찬가지로 개새 부분에 묶은 끈을 풀고 끼워 넣을 '사침대'와 중간 중간 날실의 간격과 사이를 벌리기 위해 넣는 '잡을대', 그리고 베를 다 맨 다음 '부테허리'의 끈에 감아들 '개뚱대' 등도 마련해 둔다. 개뚱대는 베 매기 작업이 끝날 무렵 날실의 간격을 바디의 폭만큼 벌려주어 알맞은 너비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개뚱대는 막상 베틀에서 베 짜기를 시작할 적에는 명주베를 짜기 시작하는 곳에 '말코'라고 부르는 가로 걸린 막대의 양끝을 부테끈으로 함께 잡아맬 때에도 사용된다.

들말에 도투마리를 걸고 바다에 켜 날실을 묶고 난 다음 소쿠리를 들어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마당의 중간 지점에 멈춰서 '비경이'를 놓는다. 들말부터 풀어 당겨온 명주실의 길이가 2m가 넘기 때문에 명주실이 축 쳐져서 땅에 닿으면 더러운 흙이 묻고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비경이 위에 명주실을 올려서 실이 땅에 끌리지 않게 한다. 비경이로부터 2m

이상 더 간 다음 '꼬싱개'를 놓고 한쪽 끝에 튀어 올라온 막대에 명주실을 묶는다. 꼬싱개가 들팔 쪽으로 당겨 오지 않도록 무거운 돌맹이를 올려 누르고, 그 돌맹이 위에는 명주실을 사려 담은 '광주리'를 올려놓으면 베 매기 도구가 다 갖춰진 셈이다.

### 1) 바디에 실 꿰기

날실을 날기가 끝나 사려놓은 날실은 바디의 구멍에 꿰어야 날실에 풀을 먹일 수 있다. 보유자가 날실을 정경한 14새 숫자에 해당되는 14새 '바디'를 준비한다. 소쿠리에 사려둔 날실에서 막새 부분을 조금 풀어서 '도끼' (사투리; 도치)에 묶는다.

도끼에 묶는 이유는 바디에 날실을 뿔 때 사려둔 날실이 너무 많이 끌려와 풀어지거나 헝클어지지 않도록 무거운 힘으로 누르기 위한 것이다. 도끼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은 성주의 안동 권씨택에서 전래되어온 비법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 도끼보다 더 무거운 돌맹이를 들어서 올려놓으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맹이를 자칫 잘못 올려놓으면 거친 돌맹이의 표면에 닿아 얇고 가



도끼에 날실을 묶은 모습

는 명주실 끝이 떨어지면서 바디에 펜 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 같다. 또 도끼는 농촌 등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조상들의 번득이는 삶의 예지는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한산에서 모시를 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연옥 보유자의 경우에는 도끼 대신 방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강을 대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다.

날실을 조금 풀어 도끼에 묶은 다음 소반 위에 바디를 올리고 바디옷 위에는 한새 80올의 날실을 꿰면서 걸어놓을 ‘바늘’을 꽂아 둔다. 바디에 날실을 순서대로 꿰기 위해 끈으로 묶어둔 참새와 개새의 X자형으로 나뉜 부분에는 ‘사침대’ 두 개를 각각 끼운다. 사침대를 놓아야 가느다란 명주실이 헝클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바디구멍에 넣을 잉아올과 사올에 해당되는 두 올의 날실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찾아 바디에 뿔 수 있다.

열넉 새의 명주를 짜기 위해서는 열넉 새 바디를 준비한다. 재래식 베틀에 사용하는 바디는 대나무의 피죽을 갈라서 만든다. 명주에 사용되는 바디의 길이는 40cm이고 바딿살 상하의 높이는 6cm이다. 바디옷은 바딿살보다 각각 1.5cm 위쪽으로 무명천을 발랐으며, 마구리대의 두께는 1cm이다. 한새가 80올이므로 열 넉새 날실은 80올 × 14새여서 놓아야 할 날실의 개수는 총 1,120올이 된다. 바딿살 한 구멍에는 잉아올과 사올 각각 한 올씩, 즉 바딿살 하나에 날실 두 올씩 넣기 때문에 바딿살과 바딿살이 이룬 구멍은 총 560개가 된다. 따라서 바딿살 560개의 구멍에 날실 1,120올을 모두 꿰어야 베 매기를 할 수 있다.

## 2) 들말

들말은 베를 맬 때 도투마리를 걸쳐놓는 나무틀로서, 두 개의 말뚝이  $\wedge$ 형으로 벌어진 앞쪽에 달려 있다. 들말용 나무는 직경 7.0cm의 굵기이고  $\wedge$ 형의 한쪽 막대의 길이는 119cm이다. 들말 끝에 도투마리를 세울 말뚝의 직경은 3.7cm이고 높이는 29.2cm이다.  $\wedge$ 형으로 벌어진 끝 부분의 폭은 97cm이며, 말뚝과 말뚝 사이에는 도투마리를 엮을 수 있도록 72cm의 사이가 떨어져 있다.

명주실에 풀칠이 끝나고 다 마른 날실은 뱀뱃이를 끼우면서 도투마리를 돌려 감는데, 들말은 이 때 도투마리에 걸린 날실이 팽팽하고 고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아가지형으로 벌어진 중심부에 무거운 돌을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두 가지 끝 부분에 각각 말뚝을 고정시켜 도투마리가 걸려 있게 한다.





### 3) 꼬싱개(사투리; 꼬싱개, 꼬시렁꼬)

베 맬 때 들말의 반대 방향에서 끌려오는 도구이다. 꼬싱개는 마당의 맞은 편에 놓고 들말에 얹힌 도투마리의 실을 감을 때마다 조금씩 끌려가도록 날실을 매어 둔 말뚝을 박은 나무틀이다. 들말을 축소한 것같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angle$ 형으로 되어 있으며, 꼭지점이 모인 둥치 부분에는 한 개의 말뚝이 박혀 있다. 꼬싱개에 사용된 나무는 직경 4.8cm에 길이 64cm이고  $\angle$ 형으로 벌어진 사이의 폭은 32.5cm이다. 날실이 묶인 말뚝의 직경은 3cm, 높이는 14cm이다.

꼬싱개 앞쪽의 말뚝에는 들말의 도투마리로부터 풀어온 날실을 묶고, 꼬싱개 위에는 무거운 돌을 여러 개 올려 날실이 끌고루 힘을 받으면서 팽팽하게 긴장하도록 만들어준다. 물론 도투마리에 풀칠이 다 된 날실을 감을 때 쉽게 끌려오지 않도록 버터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돌맹이 위에 는 말뚝에 묶고 남은 날실을 담은 소쿠리를 올려 놓아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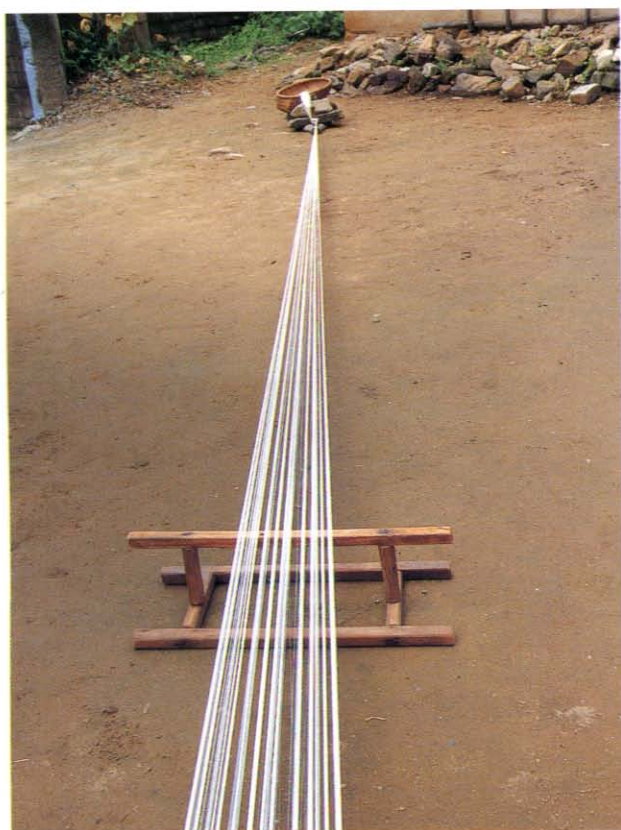


꼬싱개, 돌맹이, 소쿠리, 날실

#### 4) 비경이(사투리 ;비게미,빙어리)

비경이는 원래 베틀의 부속품이다. 베틀에 끼우는 비경이는 사침대와 잉아대 사이에 △ 형태로 끼워, 사침대에 의해 X자형으로 교차되어 갈라진 날실이 이 비경이를 거치면서 위아래의 사이가 더욱 확실하게 벌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비경이는  $3.5 \times 2.0\text{cm}$  두께에 길이 57cm의 각목 세 개가 높이 21.5cm로 △을 이룬 형태이며, 세 개의 각목에는 양쪽 끝 부분의 세 방향으로 뺀친 가지발을 끼운 형태이다.

비경이는 베맬 때에도 사용되는데, 들말과 끄싱개 사이에 5m 정도 떨어진 중간에 세워 날실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날실에 풀



비경이

을 먹일 때 비경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풀을 먹여 무거워진 낱실이 땅에 끌리면서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므로, 비경이를 중간에 세워 낱실이 땅에 끌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아울러 실에 풀을 바르면서 들말 위에 엮은 도투마리에는 바디의 폭만큼 펴서 감게 되는데 꼬싱개 부분은 하나의 말뚝에 실이 묶여 있어서 폭이 좁아지므로, 비경이를 중간에 끼워 낱실과 낱실의 간격과 폭을 넓히는 역할도 해준다.

## 5) 풀솔

베를 땔 때 쌀풀과 콩즙을 섞은 풀을 문혀 풀칠을 하는 솔이다. 풀솔은 속새풀 뿌리를 손질하여 소나무 뿌리로 빈틈없이 감아서 만든 귀얄이다. 나팔처럼 끝이 벌어진 솔끝에다 풀을 문혀 낱실에 칠하는 일을 할 때 사용한다. 풀이 지나치게 많이 묻어 되게 발라지면 마르면서 풀이 뽁뽁해져 낱실이 딱딱해지고, 풀이 너무 묽거나 칠을 골고루 하지 않아서 덜 바르게 되면 표면이 꾸들꾸들해지고 힘이 없어 의도한 피륙을 짜지 못한다.



## 5. 베틀(織機)과 부속품

베틀은 베 매기가 끝난 날실을 걸고 30여 가지 부속품을 움직여 베를 짜는 도구이다. 베를 짜지 않을 때의 베틀은 분해하여 공간에 넣어 두거나 추녀 끝에 매달아 두었다가 사용할 때마다 꺼내어 조립하고 대청마루나 방안에 놓고 사용한다. 명주베를 비롯하여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를 짤 때 사용하는 베틀은 그 구조가 동일하다.

30여 가지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지는 베틀이 베를 짤 수 있는 형태로 되려면 '누운다리'에 앞뒤 기둥인 '선다리'와 '뒷다리'를 세우고 '가로목'을 받치고 '용두머리'를 끼운 후 '신나무'와 '눈썹대'를 박아 기본 골격을 이루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풀칠하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선다리에 기대어 세우고 날실이 끼워져 있는 '바디'를 길게 끌어서 가로목에 늘어뜨린 다음, 도투마리와 '사침대' 사이에는 '비경이'를 끼워 날실 사이를 X자형으로 넓게 벌리고 '잉아틀'에 잉아울과 사울을 각각 나누어 건 후 '잉앗대'를 '눈썹대' 끝의 '눈썹노리'에 건다. 잉아를 다 걸면 '누름대'로 누르고 바디 앞에 날실을 묶어둔 '개툼대'를 당기며, 개툼대의 끝은 허리에 맨 '부테'의 끈으로 묶은 다음 바디의 폭에 맞춰 날실의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활'을 쫓으면 베를 짤 준비는 다 된 셈이다.

베틀 옆에는 작은 소반을 놓으며, 그 위에는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담은 '북'과 '젓을개', '기름접시', '풀그릇', '밀침대', '반진고리' 등을 놓아두었다가 베를 짜면서 필요할 때마다 집어서 사용한다.



## 1) 잉아틀(사투리; 잉아걸이)

잉아틀은 잉앗대에 잉아를 걸기 위해 잉아를 만드는 도구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angle$  형태로 되어 있으며, 직경 2cm 정도의 자연 상태의 나뭇가지를 활용하되 한 번의 길이는 30.5cm이다. 잉아틀을 사용하여 잉아를 거는 것은 베틀 위에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걸고 비경이를 끼워 날실을 X형으로 가른 다음에 한다.

잉아틀은 왼손에 쥐고 6합사의 무명실을 묶은 다음 오른손으로 실고리 매듭을 S자에서 8자형으로 만들면서 잉아올을 한 올씩 꿰는 것이다. 잉아올은 비경이를 거쳐 X자형으로 나뉜 날실 두 올 중에서 홀수에 해당되는 비경이 아래쪽에 있는 올이며, 짝수에 해당되어 위쪽에 있는 올은 사올이라 한다. 비경이와 잉앗대에서 XX형으로 반복되면서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기 위해 잉아틀에는 잉아올을 한 올 집어 실고리에 꿰고, 잉아올과 짝을 이루는 사올 하나는 그냥 넘긴 다음 다시 잉아올과 사올을 반복하여 꿰는데 사용한다.

잉아틀에는 총 560개의 실고리를 걸게 된다. 그 이유는 날실의 총수가 1,120올인데 그중 잉아올이 560개이고 사올이 560개이기 때문이다. 잉아틀에 실고리의 양이 많아지면 왼손으로 실고리의 중앙부분을 꼭 쥐어 오목렌즈처럼 실고리의 안쪽이 움푹 들어가게 해 준다.



잉아틀에 실고리를 상하로 만든 후 잉앗대로 사용할 50cm 내외의 대나무 세 개를 끼워 눈썹대에 건다. 그중 첫 번째 잉앗대는 위쪽 기둥의 실고리에 끼우고, 두 번째 잉앗대는 첫 번째 잉앗대를 건 실고리의 바로 아래쪽에 끼우며, 마지막 세 번째 잉앗대는 아랫쪽 기둥에 끼우면 잉아가 완성된다.

## 2) 베틀

베틀은 주로 소나무와 피나무로 만들어진다.

베틀은 가장 굵고 긴 '누운다리' 1쌍을 길게 뻗치고 그 앞뒤로 '선다리' 혹은 '앞다리' 라고 부르는 1쌍과 '뒷다리' 1쌍을 각각 끼워 기본 골격을 갖춘 다음, 누운다리의 중간 부분에 가로목을 끼워 누운다리의 양쪽을 연결하고 뒷다리 위에는 '앉을개' 를 놓아 직너가 그 위에 앉아서 베를 짤 수 있게 한다. 가로목과 앉을개의 중간에는 왼발을 걸어 힘을 줄 수 있도록 천을 꼬아 만든 '버팀끈' 을 묶어둔다.

누운다리는 200~205cm 남짓한 길이에 6~7cm 두께의 두꺼운 각목으로 세우고, 앞에서 34cm 위치에 끼운 선다리는 두께가 아래쪽은 4×5cm 이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 2×2cm이며 높이는 126cm인데 앞다리에 해당되는 높이는 72cm이다. 선다리와 선다리가 벌어진 간격은 87cm이다. 누운다리의 중간에는 선다리로부터 49cm에 해당되는 위치에 4.5×4.5cm 두께에 길이 53.5cm의 가로목을 박는다. 이 부분의 벌어진 간격은 68.5cm이다. 뒷다리는 23cm의 높이로 선다리에 끼워 있으며, 뒷다리와 뒷다리의 벌어진 간격은 53.5cm이다. 앞다리 부분은 87cm, 가로목 부분은 68.5cm, 뒷다리 부분은 53.5cm로서 점차 벌어진 간격이 좁아져, 베틀

의 앞다리로부터 뒷다리까지의 전체적인 형태는 역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뒷다리 위에 올려놓는 앉을개는 두께 2cm, 15.5cm의 폭에 길이 71.5cm이다. 한편 가로목으로부터 40cm쯤 위치에는 천끈 100cm로 두툼하게 꼬아 오른발에 끝신을 신고 끌거나 밀 때 왼발을 올려서 힘을 주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든 버팀끈을 묶어 둔다.

베를 앞쪽의 선다리와 선다리 위쪽은 나사형으로 빙 둘러 파서 베를 짤 때마다 앞뒤로 움직이는 '용두머리'를 올린다. 용두머리는 8각기둥의 형태이고 직경 8cm에 전체 길이는 79cm로 두툼하다. 위쪽 끝으로 올라갈수록 얇아져 2cm의 굵기인 선다리 위에 올라가는 부분의 용두머리에는 3cm의 폭으로 8각의 면에 홈이 깊어 패여 있다. 선다리 위에 올려진 용두머리의 중앙에는 100cm 길이의 '신나무'를 큰 활처럼 둥글게 휘어서 박아 둔다. 그 신나무가 휘어져 내려간 끝 부분에는 삼끈을 꼬아서 132cm 길이의 '신줄'을 묶고 그 끝에는 짚신으로 만든 '끝신'을 매달아 둔다. 베를 짜는 직녀가 끝신을 끌 때마다 용두머리는 선다리 위에 올려진 패인 홈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용두머리의 또 다른 쪽 좌우에는 마치 두 개의 뿔뿔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긴 '눈썹대'를 끼운다. 용두머리에 끼워진 눈썹대 1쌍의 길이는 66cm이고 용두머리를 제외한 길이는 51.5~56cm이다. 이 한 쌍이 용두머리의 좌우에 각각 끼워져 있으며, 눈썹대의 끝에 해당되는 '눈썹노리'에는 32.5~35cm 길이로 무명실을 꼬아 만든 '눈썹끈'이 매달려 있다. 눈썹끈에는 잉아틀에서 분리해낸 세 개의 잉앗대 중 첫 번째 잉앗대를 묶게 된다. 한편 오른쪽 눈썹노리에는 솜뭉치이나 무명 실오라기 혹은 바늘꽃이 등을 매달아 두는데, 꿰어진 날실을 이을 때 오른손 검지에 솜을 약간 뭉치고 풀을 조금 문혀 비벼서 연결할 때 사용된다.

베틀에서 풀칠하여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엮어 베틀의 선다리에 세우면 베틀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도투마리는 전체적으로 H형의 □-□ 모양이다. 도투마리 전체의 가로 길이는 95cm이고 높이는 42cm이다. □-□ 형태 중 □ 부분은 가로 26cm에 세로 31.5cm이고, -자형 부분은 길이 42cm이고 두께는 8.5cm이다. 중앙부를 가로지른 나무 부분에는 풀칠하여 잘 말린 낱실을 감아둔다. 이 때 낱실이 서로 엉키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호지로 싸거나 표면이 잘 손질된 대나무 뱀뎡이를 만들어 끼우는 것이다. 도투마리는 베를 짤 때와 짜지 않을 때의 상태가 다르다. 베를 짤 때 도투마리는 선다리에 세워져 있지만 베를 짜는 것을 멈추었을 때에는 누운다리 쪽에 누워 있다. 막상 베를 짜면 낱실이 풀리면서 눕게 되지만 말코에 감아 부테에 팽팽하게 매면 도투마리가 긴장되면서 서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자형의 양쪽 □의 모서리 부분이 비스듬히 닳게 된다. 낱실로 둘둘 말은 도투마리의 끝에는 낱실을 쥔 바디가 걸려 있는데, 선다리에 세우면서 바디 부분의 낱실을 풀어서 가로목 부분까지 끌어당겨 내려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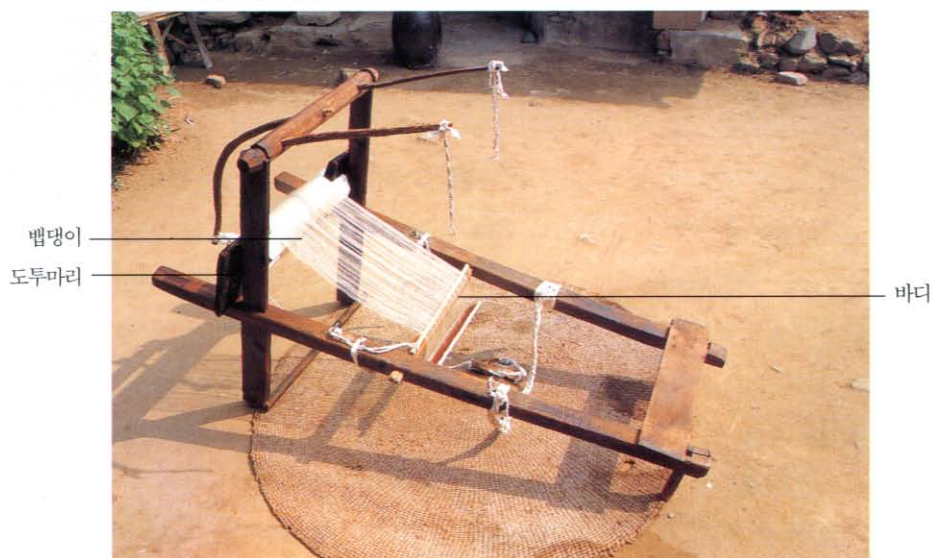
이 낱실을 당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잉아틀에서 잉아를 만들어 낱실을 걸고 얇은 대나무를 끼운 '잉앗대' 3개를 '눈썹끈'에 건다. 이 때 장인은 뒗다리 위쪽의 '얹을개' 위에 올라앉는다. 얹을개(전라도 사투리; 안창널)는 두께 2cm이고 그 크기는 15.5×71.5cm로서 뒗다리와 뒗다리를 가로질러 놓는 것이다. 그 위에 얹은 장인이 허리에 '부테' (사투리; 부티)를 찬다. 부테는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조옥이 보유자는 천끈을 엮어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부테의 전체 길이는 72cm로서 허리를 감쌀 중간부분이 두껍고 양쪽 끈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부테의 양쪽에는 '부테끈'을 매는데, 한쪽 끈은 55.4cm이고 다른 한쪽 끈은 34cm이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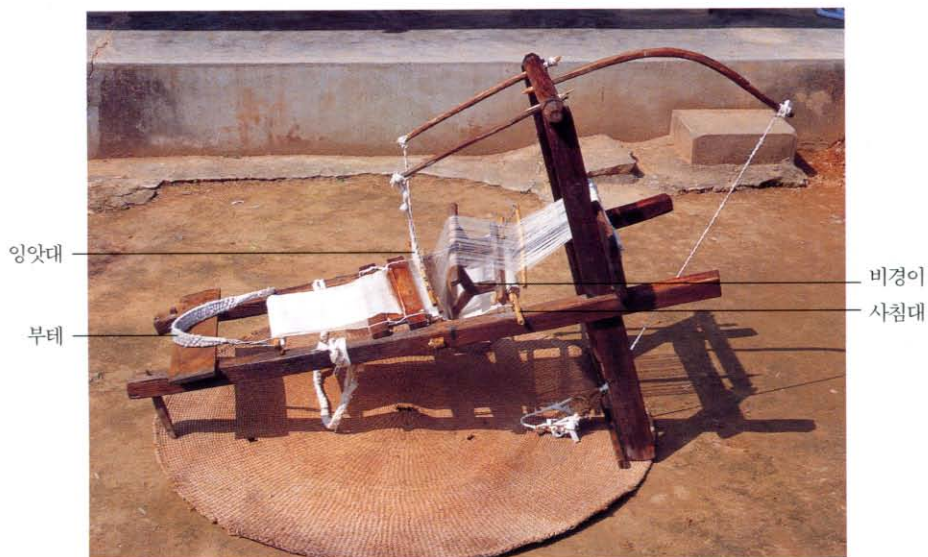




베틀의 기본 구조.

베 매기한 날실을 건 베틀.





베를 어느 정도 짰을 때의 베틀.

베틀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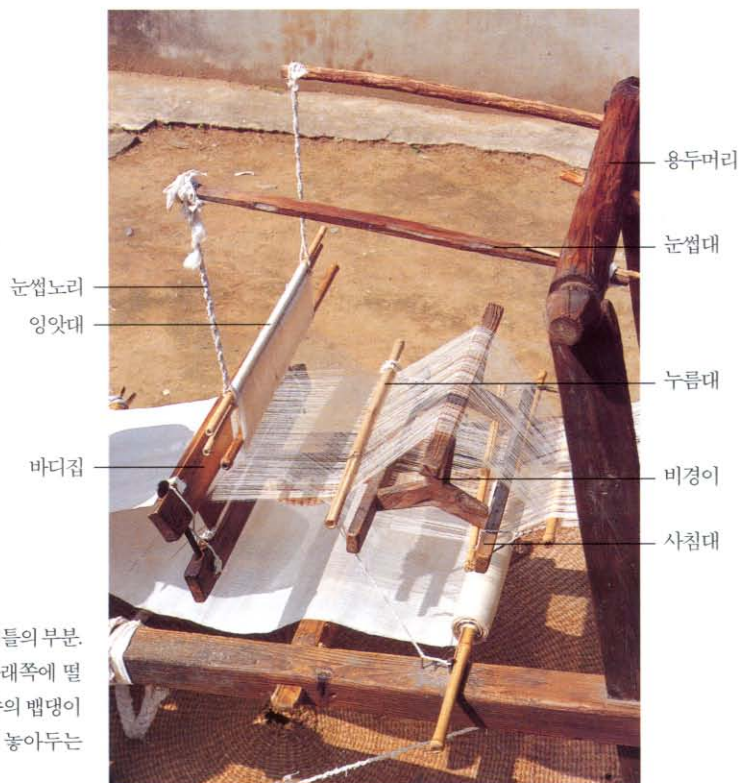
테를 건 허리 부분까지 '바디'와 낄실 끝이 매달린 '개툽대'를 끌어당긴 다음, 개툽대의 양끝을 부테 끈으로 묶어 허리에 고정시킨다.

베틀에 걸 부속품을 다 걸고 나서, 바디의 폭만큼 낄실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개툽대에 묶인 낄실의 양끝에 '최활'을 꽂는다. 최활은 경상도 사투리로는 '칫빨'이라고 부르며, 활처럼 둥글게 휘어진 상태이며 양끝에는 작은 바늘이 박혀 있다. 최활의 직경은 0.8cm이고 길이는 명주를 짤 때 좌우의 폭과 일치되어 37.5~40cm이다. 양끝에 박혀있는 0.5cm 정도의 작은 바늘은 명주베의 식서 부분에 꽂아서 폭이 줄지 않고 일정하게 짜지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활을 꽂은 다음 낄실이 걸려 있는 바디를 베틀에 안정적으로 장치하기 위해 '바디집'을 위 아래에서 끼운다. 바디집은 상하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바디의 길이와 폭보다 조금씩 길고 커서, 길이는 62cm이고 높이는 6.5cm이며 두께는 2.2cm이다. 바디집 위아래의 중앙에는 바디를 넣을 수 있도록 홈이 패어 있는데, 홈은 길이 47cm에 두께 1.8cm, 깊이 1.8cm 정도이다. 바디집은 상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양끝 부분에서 3.5cm 안쪽에 2.5×2.5cm의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바디집의 상하에 바디를 넣고 닫은 다음, 사각형의 구멍에는 무쇠로 만든 '마구리쇠' (전라도 사투리; 꼬뚜마리쇠)를 끼운다. 마구리쇠의 길이는 25cm 내외이고, 위쪽은 1.4cm 두께에 양쪽으로 나선형 문양이 돌려져 있으며 아래쪽은 0.3cm여서 끝이 뾰족하다. 바디집에 바디를 넣고 마구리쇠를 끼운 다음, 무명실이나 무명천을 잘게 자르고 꼬아서 만든 '바디집끈'으로 마구리쇠의 안쪽을 8자형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어느 정도 베를 짜면 보유자가 짠 명주베 위에는 최활이 꽂히고 그 뒤로 바디가 들어있는 바디집이 놓인다. 그 뒤쪽에 놓인 세 개의 잉앗대는







눈썹대 끝의 눈썹노리에서 내려온 눈썹끈에 묶여 있다. 그보다 뒤편에는 잉아올과 사올을 눌러주는 누름대가 걸려있다. X자형으로 교차된 잉아올과 사올은 비경이에 의해 그 간격이 확실하게 벌어지게 된다. 비경이의 한쪽 다리에는 사침대가 들어 있고, 그보다 아래쪽의 가로목 뒤편에는 어느 정도 짜서 감겨 있는 개툽대가 누운다리 위에 올려져 있다.

베를 짜면 도투마리에 감겨있던 날실이 풀리면서 날실 안쪽에 함께 감아 두었던 뱀대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뱀대이가 수북해지면 베를 많이 짰 증거여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치우지 않고 두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베를 짜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은 소반에 올려놓거나 소쿠리에 담아 베틀 옆에 항상 놓아둔다. 씨실을 넣고 짤 북이 마련되어야 하고, 바디살이 잘 미끄러지도록 바를 기름은 종지에 담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날실이 끊어지면 이을 때 바를 풀도 조금 덜어서 접시에 떼어놓고, 날실이 끊어져 올에 구멍이 생겼을 때 이 구멍을 메꿀 날실을 꿰어 명주베 위에 꽂아둘 바늘도 반진고리와 함께 준비해 놓는다. 명주베 한 필을 짜는 동안 수 천번을 오르내리는 잉아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무명실도 찾아놓고, 명주베의 폭이 줄지 않도록 최활을 옮겨 꽂을 때마다 베 위에 물칠을 하는 ‘젖을개’도 준비해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선후기 및 일제시대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재래식 베틀은 중국에서도 명나라 때까지는 사용되었다. 중국 명나라 때의 요기(腰機)가 바로 우리나라의 재래식 베틀과 형태와 구조 등이 거의 비슷하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직기로는 수건이나 모자 등의 얇은 비단을 짤 때 사용하였다. 특히 장인이 한 자 남짓 되는 부드러운 가죽을 허리에다 대고 베를 짤 때에는 허리나 엉덩이에 온 힘이 걸리기 때문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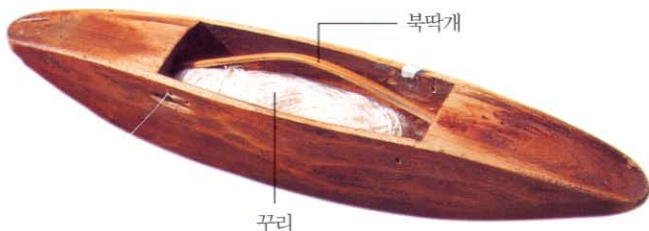
베틀을 요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각지에서 이 직기를 사용하여 삼베나 모시베와 무명베 등을 짜면 베의 표면이 매우 고르며 튼튼하고 윤택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부터 직기의 개량이 이루어져 청나라에서는 벽촌을 제외하고는 이 요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었다.

### 3) 씨실용 꾸리 도구

베를 짜기 위해서는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꾸리를 만들기 위해 낱실용 가락과 마찬가지로 물데를 돌려 돌것에 걸어둔 실끝에서 가락꽃이에 걸어둔 솥대에 소복하게 감긴 가락을 여러 개 준비한다. 가락은 상자형 바구니처럼 만든 간이틀의 상하 양단에 나란히 꽃힌 쇠꼬챙이에 일렬로 건다. 가락에 감겨 있는 실끝을 찾은 다음 꾸리를 감기 위해 대나무는 오른손에 쥐며, 북에 넣을 꾸리는 대나무에서 잘 빠지게 하기 위해 X자형으로 감는다.

### 4) 북

북은 명주베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씨실을 옮겨주는 도구이다. 북은 주로 감나무로 만든다. 대나무에 X자형으로 감아 두었던 꾸리를 빼서 북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물에 담가 촉촉하게 적서 준다. 꾸리를 북에 넣고 꾸리의 실끝 한 가닥을 잡아 북의 한쪽에 뚫어놓은 구멍에서 빼낸 다음 북덮개(사투리; 북딱개)를 덮어준다. 북덮개는 얇은 대나무 막대를 사용하여 꾸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북 중심에 뻗쳐둔 것이다.



북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36cm이고 북의 좌우의 폭은 두툼한 중앙부분의 7cm에서 점차 좁아져 끝부분은 1cm의 유선형이며, 상하의 높이는 5cm이다. 꾸리를 넣을 수 있도록 북의 안쪽에는 네모진 홈이 패여 있다. 홈의 크기는 그 길이가 14.5cm이고 좌우의 폭은 6cm이며 깊이는 3cm이다. 홈이 패인 바깥쪽의 한 쪽 끝에는 직경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씨실의 실마리를 빼낼 수 있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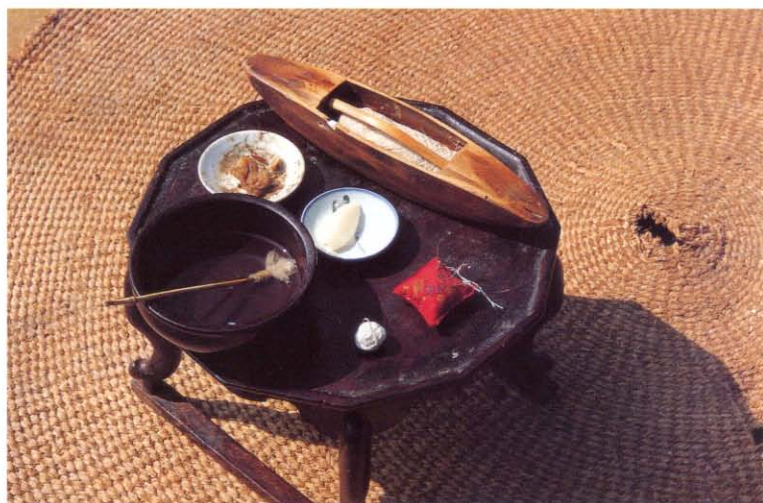
북의 형태는 날렵한 유선형으로 생겼으며, 양끝은 뾰족하고 중앙부분은 볼록한 보트 모양이다. 명주베를 짤 때 날실 위를 미끄러지듯 좌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표면이 반들반들 윤기가 돌며 특히 아래쪽이 매끈하다.

## 5) 직조용 부속품

베틀 옆에 놓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직조용 부속품은 채반이나 소쿠리에 담아 두거나 소반에 올려 두어 직조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가져다 사용한다. 그러한 종류 중 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밀침대(사투리; 다올대, 다빌대)'가 있다. 베틀 뒷다리의 앞을개에 앉은 장인이 베

를 어느 정도 짠 다음에는 도투마리를 밀어서 날실을 풀고 말코에 짠 명주베를 감아야 한다. 이 때 허리에는 부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베틀의 선다리에 얹혀 있는 도투마리까지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앓을개에 앉아서 도투마리까지 밀려면 적어도 1m 정도 길이의 나무 막대가 필요하다. 밀침대는 이렇게 앓을개에 앉은 장인이 도투마리를 밀어서 날실을 풀 때 사용한 것이다.

소반에 올린 그릇에는 물을 담고 그 안에 붓처럼 생긴 '젓을개'를 넣어둔다. 젓을개의 형태는 붓처럼 생겼으며, 그 용도는 명주베의 폭이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촉촉하게 물기를 적셔주는데 있다. 명주베를 3~4cm 정도 짜면 양쪽 식서에 꽃아 두었던 최활을 바디가 있는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최활을 옮긴 다음 그 부분의 명주베가 잘 늘어 일정한 폭이 되도록 젓을개로 물을 적셔 칠해주는 것이다.



베틀옆의 도구 북, 기름, 풀, 바늘, 반진고리, 잉아멜 실, 젓을개



한편 작은 종지에는 기름이 담겨있고 작은 '기름술'도 놓아둔다. 이 기름은 도투마리를 풀어 말코에 감은 다음 바디가 낄살 위에서 매끄럽게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 바딧살에 골고루 바르기 위한 것이다. 바딧살에 기름을 바른 다음, 바디의 앞뒤쪽 낄살에도 손에 묻은 여분의 기름을 칠해준다. 이렇게 하면 낄살 위에서 움직이는 바디가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베를 짜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또 쌀풀이 담긴 그릇과 반진고리에 꽃힌 바늘을 놓아 둔다. 워낙 가는 다란 명주실 1,120올로 열넉 새 명주베를 짜다보면 낄살 가닥이 어느새 떨어지고 끊어지게 된다. 이 때 도투마리에서 비경이와 잉아를 지나 바디까지 낄살이 걸린 정도를 살펴 실끝을 잇게 되는데, 이을 때 쌀풀을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묻힌 다음 눈썹노리에 매달린 숨을 조금 떼어 낄살과 낄살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면 감쪽같이 없어진다. 이 때 낄살과 낄살의 끝 가닥을 잘 찾아서 연결하면 상관없지만, 간혹 끊어진 낄살 끝을 찾을 수 없어 바디에 한 올이 비면 잉아에서 연결된 낄살을 바늘 끝에 꿰어 베 바닥에 꽂아두고 풀칠을 하면 낄살이 이어지게 된다.

가는 무명실 6합사를 감은 작은 실뭉치도 놓인다. 이 무명실은 잉아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실이다. 잉앗대에는 잉아올과 사올을 번갈아 꿰었지만, 워낙 가는 낄살이라서 잉아에서 빠지고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잉아에 의해 잉아올과 사올이 서로 번갈아 X형으로 벌어지지 않아 북이 자꾸 걸리면서 베를 짤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작은 실뭉치는 잉아올을 걸 잉아를 고쳐서 X자형으로 잘 벌어지게 만들어 줄 때 필요한 것이다.

## 6. 잿물 내리기(精練)재료와 도구

베틀에서 생명주를 다 짰 다음에는 베에 잿물을 내려 정련을 하고 끓는 물에 삶아서 익명주를 만들어야 한다. 베틀에서 짜서 끓어낸 생명주를 잿물에 삶으면 익명주가 된다. 생명주는 베 매기를 할 때 콩즙과 함께 풀을 먹여 두었기 때문에 이 풀기를 빼내고 폭 삶아서 뻘뻘한 느낌을 없애는 것이 익명주 과정인 것이다.

익명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잿물을 만들어야 한다. ‘자배기’ 두 개를 준비한 다음 첫 번째 자배기 위에 찻다리를 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은 다음 물에 적신 벧짚을 깔아 잿물 내릴 준비를 해놓는다.

이 때 아궁이에는 불을 지펴 벧짚을 태운다. 불이 어느 정도 타서 재가 만들어지면 불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배기에 옮겨 담고 솥에서 끓은 물



잿물 내리는 도구 자배기, 찻다리, 시루, 벧짚



가마솥에 물을 넣고, 재를 만들기 위해 벚짚을 태우는 모습.

을 바가지로 퍼서 붓는다. 잿물이 걸러지면 첫 번째 자배기에 올려져 있던 찻다리와 시루를 두 번째 자배기로 옮긴 다음, 첫 번째 자배기에 들어 있는 잿물을 시루에 다시 붓는다.

이렇게 두 번 걸러진 잿물을 솥에 퍼붓고, 뽕나무 줄기와 가지로 때서 가마솥에 잿물이 펄펄 끓게 될 때 생명주를 빨아 말린 명주천을 넣고 푹 푹 삶는다. 가마솥에서 잿물이 팔팔 끓으면 천을 대나무 막대로 뒤적이고 일부 건져서 잘 삶아졌는지는 살펴보고, 다 되었으면 모두 건져 올린다. 잿물에 삶은 명주를 자배기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 앞을 흐르는 냇물로 향한다. 명주를 빨아 잿물을 빼기 위해서이다.



## 4 명주의 제작 과정

명주베를 짜는 직조과정은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베틀을 두고 길쌈을 해 왔던 방식 그대로이다. 삼베와 모시베는 날씨가 추워지면 건조해져 실이 바스라지거나 끊어지기 쉬우므로 봄부터 초가을까지만 짜며, 명주베와 무명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짤 수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명주베와 무명베는 주로 겨울에 짰으며, 삼베와 모시베는 여름에 짜서 식구들의 옷을 당신들 손으로 해 입혔던 것이다. 과거에는 입는 문제가 완전히 아낙네의 손에 달려 있었던 셈이다.

명주베를 짜는 제작순서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명주실을 만드는 제사과정, 날실을 거는 정경과정, 날실에 풀을 먹이는 가호과정, 베틀에서 베를 짜는 직조과정, 그리고 생명주를 잣물에 담가 풀기를 빼고 빨래하여 다듬는 정련과정이다. 이러한 다섯 단계는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를 짤 때에도 대체로 마찬가지여서 베틀을 비롯한 한 가지 도구를 갖추

고 있으면 누구나 여러 종류의 베를 짤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명주베는 다른 베와 달리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이 독특하며, 나머지 제작과정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을 낚고, 베를 매고, 잉아를 걸어서 생명주를 짜고, 잣물에 베를 녹여서 익명주를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하기로 한다.

## 1. 실 씨기

조옥이 보유자는 앞마당에 50그루의 뽕나무를 기르고 있다. 이 뽕나무에서 자란 뽕잎을 따서 5월 한 달 동안 봄누에를 먹인다. 보유자는 봄에 베 2필 정도를 짤 수 있는 분량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고치가 만들어지면 보유자는 실을 씨는 과정을 하게 된다. 냄비에 물과 함께 고치를 어느 정도 넣은 다음 여남은 개씩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바글바글 끓이면 실이 풀려 나오고, 고치가 풀리면 실마리를 잡고 왕챙이에 걸어 돌린다. 이렇게 고치를 새로 넣어 끓일 때마다 물을 갈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번데기에서 물이 우러나오면서 물이 그냥 노래져서 안 된다.

명주베를 짜려면 원료가 되는 실이 필요한데, 명주실은 고치에서 뽑는다. 하나의 고치에서 뽑아져 나온 고치실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10여 개 이상의 고치실이 합쳐져야 베를 짤 수 있는 실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닥의 고치실을 꼬고 합쳐서 명주실을 만드는 것이 제사과정이고, 고유 용어로는 실 씨기 과정이라고 부른다.

실 써기를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는 작은 알루미늄 솥을 걸고 향아리가득 60리터 이상의 맑은 물을 부어 담는다. 누에고치에서 고치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을 팔팔 끓여야 가능하므로, 불을 달게 지필 수 있도록 뽕나무 줄기나 장작 등을 30kg 이상 수북하게 준비한다.

뜨거운 물에서 삶아내야 할 누에고치는 명주 한 필을 짤 때 4.5kg이 필요하다. 누에고치를 부뚜막에 쌓아두면 소쿠리 가득 수북하게 쌓이게 된다. 실 써기를 하기 전에 고치 상태의 누에는 미리 끓는 물에 삶아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이 팔팔 끓을 때 솥에 넣은 고치에서 실을 건져 자재의 대롱에 걸어 실을 헹가래한 후 왕챙이를 돌려 명주실을 만든다.

보관해둔다. 만약 누에고치를 삶지 않고 평온 상태에 놓아두고 벌이 따 뜻할 즈음,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탈바꿈하였던 누에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된다. 나방은 고치 안에서 배설을 참아왔기 때문에, 고치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사방에 황토색 똥을 쏜다. 이러한 누에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고치에 들어있던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하지 않도록 미리 삶아 두 었다가, 실을 만들 때에는 한꺼번에 담아 부뚜막에 올려 놓아 실을 만들 준비를 한다.

나무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땠 때, 아궁이 위에 솥을 걸고 그 속 에는 2~30여 개의 고치를 넣는다. 두 명이 작업을 할 때 보조를 하는 한 명은 아궁이에서 불이 잘 지퍼지는 지 계속 확인하면서 솥에 물이 팔팔 끓도록 한다. 나머지 한 명은 솥을 건 부뚜막에 앉아서 물이 끓으면 낫젓 가락을 오른손에 쥐고 끓는 물을 휘휘 젓는다. 이 때 낫젓가락에는 고치 실이 딸려 올라오는데, 왼손으로 고치실의 두께를 확인한 다음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다시 휘휘 젓는다. 보통 낫젓가락에 딸려 올라오는 고치 실은 10여 개이며, 이 실들은 낫젓가락을 저으면 실 끝이 돌돌 말리며 따 라 올라오게 된다. 낫젓가락으로 건진 고치실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두 께가 되면, 낫젓가락은 내려놓고 실 끝을 잡아채 올려 이 실 끝은 부뚜막 위에 돌로 눌러 놓은 자새의 끝 부분에 튀어나온 C형 고리에 꿰어 통과 시킨 다음 합사하여 왕챙이에 걸어 명주실을 자아내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명주실을 뽑는 방법은 『천공개물』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제작과정은 우리나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선 솥 에 물을 넣고 잘 끓여서 고치를 넣어 삶는다. 이 때 사용되는 땀감은 잘 마른 나무를 사용해야 연기가 나지 않고 실이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한 다. 실의 굵고 가늘기는 솥에 넣는 고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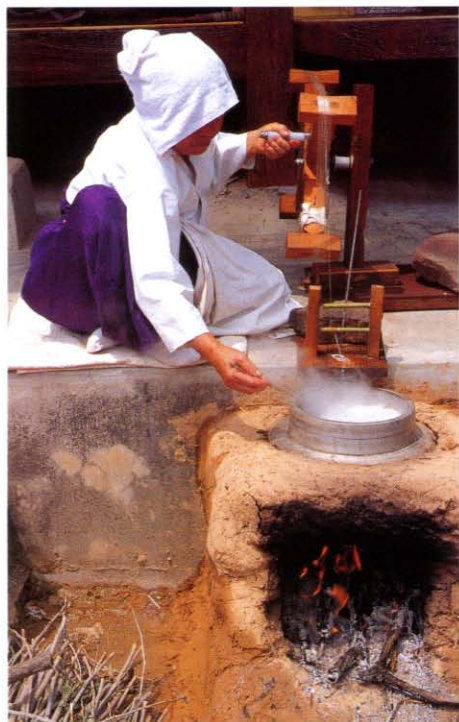




늦젓가락으로 10개의 고치에서 건진 실을 합사하기 위해  
자세 끝에 있는 쇠고리에 건다.



왼손은 실끝을 잡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교대하며  
실고리 형태로 꼬아 합사한다.



합사된 실끝을 왕챙이에 묶은 후, 왼손은 물레를 돌리고 오른손은 고치를 뒤적인다.



술에서 자세를 거쳐 합사된 명주실은 왕챙이 물레 돌리면서 한타래씩 감는다.

는데, 명주실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겨우 30냥의 실을 얻을 수 있다. 고치를 삶아 끓기 시작할 때 중국에서는 낫젓가락 대신 대빗으로 수면을 휘저어 실마리를 찾아낸다. 이 실마리를 손으로 집어 죽침 안을 통과시키고, 대나무로 만든 향통 모양의 대통에 넣고 돌려 가락에 걸치고 다시 물레에 감는다. 실이 끊어지면 실끝을 찾아 올려놓기만 하고 원래의 실과 꼬아 잇지 않아도 이어진다.

보유자의 두 동서가 작은 솥에 맑은 물을 2/3 정도 차도록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할 때 잘 손질한 누에고치 30여 개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잡은 낫젓가락을 휘저어 젓가락에 걸린 실은 왼손 끝으로 잡아 가볍게 당겨 위로 올린다. 이어서 왼손으로는 실끝을 사려 왼편에 놓인 광주리에 담는다. 오른 손으로 잡은 낫젓가락으로 솥 안의 누에고치를 가볍게 두들기면서 고치에서 풀려나오는 실오라기를 왼손으로 모아쥐고 툭툭 털면서 당겨 올라가지고 왼편 광주리에 사려 놓는다. 이렇게 왕챙이를 돌려서 처음에 만들어낸 실은 깔끔하지 못하다. 이 때 뽑혀 올라오는 실이 '목지실'이다.

목지실이 3~5m 정도로 뽑히는 사이에 솥 안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고치에서 실오라기가 목지에 걸려들면서 고치는 끓는 물에서 뱅뱅 돈다. 이 때 물이 너무 끓으면 실이 까실까실해지고 덜 끓으면 합사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실이 걸끄러워서 좋은 명주를 짜낼 수가 없다. 따라서 목지실은 그 중간을 끊어서 버리고 새로 만든 실끝을 자새와 왕챙이에 걸어서 명주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새 실을 만들기 위해 솥 안에서 필필 끓고 있는 고치에 낫젓가락을 넣고 휘휘 젓는다. 이렇게 저은 낫젓가락에 새로 열 개 남짓한 고치에서 실이 걸리면 낫젓가락을 내려 놓고 그 실끝을 자새 바탕의 C자형 쇠

고리에 꿰어서 조심성 있게 잡아당긴다.

만들어진 실끝은 자세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기둥 아래쪽에 위치한 밑 대롱에 한 바퀴 감고 S자형으로 걸쳐 윗대롱실에도 한 바퀴 감아서 전체적으로 넘긴다. 다시 윗 대롱으로 올라간 명주실은 실끝을 마치 새끼 꼬듯이 4~5차례 꼬아 밑 대롱을 지나 왼편에 장치된 왕챙이의 십자형 사이목에 단단히 잡아맨다.

합사는 자세의 뒤쪽에서 하게 된다. 명주실을 합사하는 과정은 실 씨기의 핵심적인 광경인데 매우 경이적인 모습이다. 자세 대롱의 아래와 위를 거쳐 나온 십여 가닥의 고치실은 이미 늦것가락에서 건질 때부터 꼬임을 만들지만, 자세의 뒷쪽에서는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교대로 실고리를 만들면서 꼬아서 합사하는 것이다. 검지손가락 끝에 고치실을 얹어 실고리를 만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빼 내는 것을 10번쯤 반복한다. 이렇게 실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고치실은 미묘한 꼬임이 생기면서 끝부분이 단단하게 합쳐지게 된다.

자세에 걸린 두 개의 솥대에서 8자형으로 합사된 명주실 가닥은 왕챙이 물레의 한쪽 기둥에 매듭을 지어 묶고, 물레의 위쪽에 걸쳐놓는다. 오른손으로 자세에 놓인 명주실을 들고 왼손으로 왕챙이 물레를 돌리면 명주실의 양이 조금씩 불어난다.

왼손으로 왕챙이 물레의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설설 돌리기 시작하면, 명주실이 술술 뿔뿔 물레에 감기기 시작한다. 알맞게 꿸 술에 담긴 고치에서 가늘고 긴 실오라기가 풀리는 바람에 고치는 제자리에서 뽕뽕이를 돌고 실은 자세의 고리를 통과해서 자세에 걸린 두 대롱이 달그락거리며 도는 사이에 꼬이고 합사된다. 대롱을 지난 명주실은 왕챙이에 감기기 시작한다. 둘레 1.6m의 왕챙이에 의도했던 명주실이 감기기 시작



하면 작업자는 신이 난다. 왜냐하면 처음 목지를 뽑아서 버린 다음 새로 실을 뽑아 꼬고 합사해서 왕챙이에 실끝을 고정시키는 것은 몇 차례 실패하기 마련이어서이다.

이렇게 왕챙이에 실끝을 고정시키더라도 원하는 대로 명주실이 잘 뽑아지면서 물레를 돌리기는 쉽지 않다. 보유자와 두 동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고 숙달이 되어 늦것가락으로 고치실을 채거나 알맞은 두께로 사리는 일이라든지 쇠고리에 실을 꿰어 두 개의 대롱에 휘감아 꼬으면서 합사시켜 왕챙이에 고정시키는 손동작이 재빠르고 유연하다. 이렇게 실을 써는 모습은 단순하게 숙달된 모습이라기 보다 하나의 예술적 행위라 할만하다.

왕챙이는 뽁뽁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자새대롱은 달달달 돌면서 재빨리 돌아간다. 술에서 물이 팔팔 끓는 소리와 함께 왕챙이 물레에서 실오라기가 풀리는 소리는 함께 어우러져 훌륭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성주 두리실 마을에는 이러한 장인의 심정을 노래한 왕챙이 물레 잣는 노래가 전해진다.

“자새대롱 단형제 달달달 잘도 돈다.  
왕챙이대 사형제 빙글빙글 잘도 돈다.  
부름부름 왕챙이 늙으신네 노리개  
오롱오롱 왕챙이 아가씨네 노리개  
돈다돈다 왕챙이 인기나게 잘도 돈다.  
내왕챙이 도는양은 하늘이라 문산선녀  
장매수를 가둔듯다 저명주실 귀경하소  
거미줄 모양같다”

실을 뽑을 때 한 사람은 아궁이 아래에서 불을 지피고 한 사람은 왼손으로 왕챙이 손잡이를 잡아 힘껏 돌리면서 오른손에 쥔 짓가락을 술에서 휘휘 저으면서 누에고치가 엉겨붙는 것을 막는다. 어느 정도 왕챙이가 돌고 명주실이 감기면 고치의 색깔이 희뿌연하게 변한다. 고치가 얇아지면서 고치 안쪽의 번데기가 투명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왕챙이를 계속 돌리다가 멈추기도 하면서 짓가락에 엉켜 붙은 누에고치는 끌어내려서 술 안으로 돌려보내고, 다 풀려 찌그러진 고치나 번데기는 술 밖으로 건져내기도 한다. 1980년 대 후반에는 이 작업을 할 때 왕챙이를 돌리는 일은 안동 권씨 대의 종부였던 강석경이 전담하고 조옥이 보유자는 장작불을 보거나, 고치를 첨가하거나, 실타래를 뜯어 건조시키는 일을 분담하여 맡았다. 이제 2000년대에는 불을 보는 일은 백문기 동서



한 새에 해당되는 명주실이 만들어지면 엉키지 않도록 실을 동여맨 다음, 왕챙이 기둥 중 한쪽 모서리의 끈을 풀다.



천끈으로 묶어둔 왕챙이(물레)의 한쪽 모서리를 툭 치면 팽팽하던 명주실 뭉치가 축 쳐지면서 왕챙이에서 실을 빼낼 수 있다.

가 하고, 왕챙이 돌리는 일은 이규종 동서가 하며, 조옥이 보유자는 실 써기 전체를 관장하고 앉아 있다. 이 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명주실을 뽑아내는 것이다.

한 타래 혹은 한 켓의 실이 왕챙이에 감기면, 왕챙이를 돌리는 것을 멈춘다. 왕챙이에 감긴 명주실을 왕챙이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왕챙이의 물렛살 중 하나는 기둥의 중간 부분이 어긋나게 잘라져 있고, 이 어긋난 기둥 부분에 끈이 감아져 있다. 명주실을 뽑아서 감아 두는 물레에 일정한 분량의 명주실이 만들어지면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왕챙이 물렛살에서 명주실을 풀기 쉽게 하려고 기둥 부분은 천끈으로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이다.

왕챙이가 멈춰서면 물레질하는 작업을 중지하고, 왕챙이에 쌓인 명주실은 각각의 실끝으로 네 군데를 묶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1988년, 성주두리실 마을의 안동 권씨댁 종부였던 강석경이 왕챙이를 돌리며 실을 썬는 모습.



왕챙이의 물렛살에 묶인 끈을 조심스럽게 풀어야 한다. 왕챙이에 감긴 실은 돌면서 기둥살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천끈을 푸는 작업은 신중을 요한다. 기둥에 묶인 천끈을 풀면 물렛살 네 기둥에 팽팽하게 가해지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끈을 풀어낸 기둥살 부분은 약간 어긋난 기둥을 맞물려둔 곳으로서 한 손으로 탁 치면 어긋난 기둥 부분이 옆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한쪽 기둥살이 허물어지면 왕챙이를 수백 번 돌려서 물레에 감아 수북하게 쌓은 명주실을 물레에서 빼내기가 쉽다.

왕챙이에서 빼낸 실타래는 식기 전에 툄툄 털고 어석어석 비비면서 실에 붙어 있는 번데기의 껍질이라든지 서로 엉겨붙은 티끌 등을 일일이 털고 그늘에서 말린다. 다 마른 실타래는 양 팔을 벌려 한 번 감으면 서 사려 소쿠리에 담아둔다. 소쿠리에 실타래를 담아 두었다가 실 내리기를 할 준비를 한다.

현지에서 실측한 바에 따르면 한 타래의 명주실은 직경 1.6m의 왕챙이에서 3,000바퀴 이상을 돌리게 된다. 한 타래로 감는 실은  $1.6\text{m} \times 3,000$  바퀴이므로 대략 5,000m 이상이 된다. 열넉 새 명주 한 필을 짜는 데는 이러한 명주실 10타래가 필요하므로 그 전체의 길이는 5만m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한편 열넉 새 명주 한 필을 짜는 데 들어가는 실 5만m 중에서 날실은 20,000m이고, 씨실은 30,000m가 각각 필요하므로, 날실 : 씨실의 비율은 1.0 : 1.4이다. 이 실을 제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1987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순 제사작업시간은 7.5시간이고, 여유시간은 2.5시간으로서 총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작업인 것이다.

술에 들어있는 누에고치는 원래 1,200 ~ 1,500m 정도의 고치실로 칭

칭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흰색을 띤다. 이 고치 1개에서 뽑을 수 있는 만큼의 길이로 길게 뽑고 나면, 고치가 얇고 투명해지면서 안쪽에 들어있는 번데기의 모습이 드러날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고치의 두께가 얇아지면 왕챙이를 돌리는 것을 멈추고 낫젓가락을 들어, 얇아져 번데기가 비쳐 보이는 고치를 꺼낸다.

실 씨기를 처음 할 때에는 대여섯 개에서 열 개 정도의 고치에서 실을 뽑는 것을 한꺼번에 시작했지만, 고치에 감긴 실의 양과 실의 두께에 따라 얇아지는 정도는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투명해지면서 번데기가 드러나는 고치는 건져 작은 바구니에 모아둔다. 이렇게 모은 고치에서 꺼낸 번데기는 깨끗한 고단백의 동물성 음식이기 때문에 1960~70년대에는 어린이들의 좋은 간식거리였다. 이제는 번데기를 먹는 어린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가축의 사료로 주고 있다고 하며, 다만 번데기를 발라낸 고치가 많이 모이면 고급 이불에 넣는 풀솜을 만든다.

중국에서 풀솜을 만드는 방법은 『천공개물』에서 확인된다. 풀솜을 만들 원료는 하나의 고치에 번데기가 두 개 들어있는 쌍견이나, 실을 뽑아낸 솔바닥에 남은 부스러진 고치나,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날아가 버려 고치에 구멍이 뚫린 껍데기 고치 등이다. 이러한 쌍견과 부스러진 고치와 껍데기 고치는 실마리가 끊겼기 때문에 실을 뽑을 수 없어서 풀솜으로 사용한다. 풀솜을 만들기 위해 벗짚을 우려낸 잿물에 삶은 후(석회는 안 된다) 맑은 물이 들어 있는 물동이에다 넣고 고치 꼭지를 따서 네 군데로 펼쳐 놓고 작은 대나무 활에 물려서 통긴다. 활에 고치를 물릴 때는 재빨라야 하며, 물기가 있는 채로 펼쳐야 한다.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리면 물이 빠져나가 풀솜은 덩어리가 된 채 골고루 펼쳐지지 않고 빗갈도 순백으로 되지 않는다. 실을 뽑고 남은 고치로 만든 솜은 옷이나 이불에 두어

추위를 막을 때 사용하며, 이것을 풀숨 옷 또는 풀숨 이불이라 한다. 하지만 풀숨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실을 자를 때보다 8배나 더 들어서 종일 일하더라도 단지 4냥 남짓밖에 만들지 못한다.

## 2. 물레질하기

물레질은 '실 내리기' (解絲)라는 고유 용어로 불린다. 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을 풀어서 물레로 가락이나 꾸리에 감는 방법이다. 명주실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물레는 무명실이나 삼베실을 자을 때 사용하는 것과 공통된다. 이와 같은 물레의 형태는 특히 8개의 물렛살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물레의 형태와 물레질을 형상화한 민요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경북지방의 <물레노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4)</sup>

“자외선 궁글들은 / 너덜봉에 꽃이레라  
물레살 팔형제는 / 내외선을 둘러내어  
건구지라 걸린양은 / 이아래라 칠팔때에  
사방몸은 걸린듯네 / 물렛대라 두린양은  
병영수 비가와서 / 하양땅 무지개는  
서복을 두린 듯 / 네물레도 놓인양은  
고지개돌 놓인듯네 / 게머리라 놓인양은  
은도사 노사중이 / 고를지어 놓인듯네

104) 임동권, 『한국 민요집』 5, (집문당, 1979), 172쪽. 문경지방의 물레노래.

쇠철사 가락소리 /쌩이야 외기러기  
벗부르는 소리로세 /메영가락 노는양은  
초생달 불근숫아 /달에반점 실고가는듯네”

위의 노래에도 나오듯 물레를 돌리기 위해 준비한 무명 물레는 무거운 돌로 눌러 놓으며, 그 끝에 달린 쇠철사로 꼬챙이처럼 만들어 둔다. 이 가락꽃이에는 가락을 만들 대나무 대롱을 끼운다. 이때 왕챙이에서 뽑아 사려둔 타래실은 소쿠리에 담아 두었다가, 양손의 엄지손가락에 끼고 양팔을 벌리면서 탁탁 툰다. 털어서 최대한 실이 떨어진 다음 물레의 맞은편에 세운 돌것에 끼운다. 조옥이 보유자에 의하면 타래를 다시 돌것(사투리 ; 돌개지)에 걸어 실을 길게 푼 뒤 대나무 대롱인 가락에 칭칭 감아 실 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우유깡통에 감는 것이 편해서 거기에서 한 타래씩 만들어 가지고 떼어냈다고 한다.

돌것의 십자형 기둥 위에는 4개의 갈퀴손(사투리; 갈구잡이)이 바깥쪽을 향해 벌어진 채 끼워져 있다. 얇고 가느다란 대나무 꼬챙이로 만든 4개의 갈퀴손의 1개는 빼 놓은 채 3개의 갈퀴손에 양팔로 벌린 타래실을 건다. 돌것의 갈퀴손 3개에 타래실을 건 다음, 나머지 1개의 갈퀴손은 비스듬히 기울여 타래실을 걸고 나서 비로소 돌것에 끼운다.

돌것에 타래실을 걸면 타래실을 묶어 두었던 실뭉음을 풀고 실마리를 찾아낸다. 찾아낸 실마리를 길게 뽑아 가락꽃이에 꽂힌 대나무 가락에 묶어서 고정시킨다. 돌것의 실마리가 가락에 묶인 다음, 왼손을 높이 들어 돌것에서 풀려 나오는 실의 중간을 집고 오른손으로는 물레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한다. 물레가 돌아감에 따라 돌것이 따라 돌면서 대나무 대롱으로 만든 가락에는 실이 점점 붙어난다.





물레의 한쪽 끝 가락꽃이에 대나무로 만든 대롱을 끼운다.

명주실을 탁탁 털어서 돌것에 걸 준비를 한다.





십자형 막대에 꽂힌 4개의 갈퀴손에 실을 걸 때 마지막 1개는 나중에 끼워야 돌것 위에 실이 제대로 걸린다.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는 돌것의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물레를 돌려 실을 가락에 내린다. 물레질을 할 때 장인은 가락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돌것에 감긴 명주실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물레가 돌아감에 따라 잘 끊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장인은 가락에 실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감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락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울러 가락에 감기는 실의 모양이 일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나무 대롱의 중간 부분이 불룩하고 양끝은 얇아야 날실을 날기 위해 날틀에 거는 가락으로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물레로 가락을 감으면 실올이 자주 끊어진다. 이 때마다 물레질을 멈추고 돌것에서 실끝을 찾아 가락의 실에 연결해야 한다. 돌것에 타래실



오른손으로는 물레를 돌리고 왼손은 돌것에서 풀리는 실가닥을 집어 대나무 대롱에 실이 감기도록 한다.



가락에 실이 꼴고루 감기고 있는지 확인한다.

을 걸어놓은 장인은 오른손은 물레를 잡고 왼손으로는 돌것에서 풀려 나오는 명주실을 조정하면서 실올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감는다. 이와 같은 순간적인 동작은 매우 재빠르기 때문에 마치 도르래가 돌아가는 것 같다. 눈가늠으로는 그 횟수를 측정하기가 힘들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4세 명주 1필의 실을 내리는 이러한 동작은 174,500여회 (1필에 소요되는 실의 총 길이 57,600m×가락의 둘레 33m)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수십만의 동작을 반복해서 가락의 중앙이 불룩하게 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물레질을 한다. 이러한 동작으로 하나의 가락에 알맞은 양( $2400\text{m} \div \text{날실 } 24,000\text{m} \div 10$ )의 실이 감기면 실끝을 가락 모서리에 고정시키고 그 끝은 창호지로 곱게 접어서 마무리한 다음 잘 보관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레질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30여 분 물레질을 하여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감긴 가락을 가락꽃이에서 빼낸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물레질을 하여 감은 여러 개의 가락

『천공개물』에서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피륙을 짤 때 햇볕이 잘 드는 처마 끝이 있는 방 안에서 얼레에 실을 감는다. 나무로 짠 틀을 땅에다 깔고 대나무 네개와 그 위에 바로 세운 갈고리를 준비한다. 실은 갈고리에 바르게 걸고 그 곁에 세운 기둥의 높이 8척 되는 위치에 비스듬하고 가는 다란 대막대를 못에 박아 고정시킨다. 대막대 끝에는 반달 모양의 고리를 달고 실을 이 고리에 걸친다. 손으로 얼레를 잡고 돌려서 낄실이나 씨실을 감으며 가는 대막대에는 작은 돌을 매달아 추의 구실을 하도록 하는데, 실이 끊어지면 대막대를 당겨 고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물레를 돌리며 실을 내린다. 한 필을 짤 가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물레질을 해야 한다. 이곳 성주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물레 노래에도 여인들의 한이 잘 배어 있다.<sup>105)</sup>

“오르릉오르릉 물레질 / 갈밭에갈갈 솔밭에솔솔  
이물레를 찾아가주 비를짜서 / 이비를말라가주 매여서  
누구를 해여주꼬 / 돈으팔려서 비를짜가주구  
장에가서 팔아가주 / 자여들 믹일라구  
그러구러 자여들도 / 헌길로 해입히고  
그러구러 살았더라 / 허송시월 다보내고  
인지는 가이없네 / 눈도어둡고 귀도어둡고  
가이없이 되었구나 / 허송시월 다보냈네  
히던가심 황금되고 / 껌든머리 백발되고  
아-게 웬일이냐 / 황천길가기가 유식구나”

105) 임동권, 『한국 민요집』 3 (집문당, 1975), 148-149쪽. 경상도 성주지방 물레노래.

밤을 낮 삼아 물레를 돌리며 우리네 어머니들의 한은 깊어만 갔다.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보유자는 물레를 돌리고 돌것에서 내린 낱실을 가락에 감는다. 명주 1필의 실을 물레로 내릴 때 총 작업시간은 쉬지 않고 해도 스무 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가락이 하나 둘씩 쌓여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넘으면 낱실을 정경해도 된다.

이렇게 물레와 돌 것을 사용하여 실을 내리면 그냥 감는 것보다 작업 시간은 얼마쯤 단축된다고 한다. 하지만 명주실이 워낙 가늘고 얇아서 물레를 돌리는 속도를 조금만 빨리 해도 돌것의 갈퀴손에 걸려둔 타래실이 떨어지기 쉽다. 더욱이 한번 끊어진 실마리는 실타래 속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여서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조옥이 보유자가 실 내리기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실이 엉키고 끊어져서 실마리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실타래 속에 엉켜져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애쓸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상함이라고 한다.

### 3. 낱실 정경(整經)하기

명주베와 무명베, 삼베와 모시베의 베 날기 작업은 거의 공통된다. 재래식 방법으로 실을 거는 곳은 앞 마당이다. 따라서 햇볕이 들고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앞마당에 날틀과 걸틀, 그리고 가락과 고무대 등을 미리 준비해서 늘어놓고 정경을 하기 시작한다.

정경할 낱실의 숫자는 셋수에 따라 정해진다. 조옥이 보유자는 주로 열넉 새 명주를 짜기 때문에 한 새 80올씩 14새를 곱하면, 정경해야 하는

날실의 숫자는 모두 1,120올인 것이다. 중국에서 날실을 세는 방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80가닥을 한 새로 보았다. 『천공개물』에 의하면 비단을 짤 때 사용하는 바디는 10새에 해당되는 800개나 보름새에 해당되는 1,200개의 바딿살 끼운 것을 사용한다. 비단을 짜려면 바딿살과 바딿살 사이로 풀 먹인 날실을 집어넣는데, 네 가닥의 실이 하나의 바디에 들어가고 이것을 따로 합쳐 두 가닥의 실을 만들어 짜는 얇은 비단에는 날실 3,200가닥을 사용하고 두꺼운 비단에는 날실 5,000~6,000가닥을 사용하는 것이다.

베 날기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정경을 하기 위한 각종 도구를 마당에 마련한다. 기본 도구는 의자형 날틀과 십자형 고무대 그리고 걸틀용 막대 다섯 개이다. 날틀 하단의 상하에 뚫린 각각 5개의 구멍마다 쇠꼬챙이(솥대)에 가락 10개를 비스듬히 끼운다. 10개의 가락에서 실마리를 꼬집어 날틀 상단의 빗금에 걸쳐 고무대 쪽으로 올려서 고무대의 가로대에 뚫린 10개의 구멍마다 한 구멍에 한 올씩 각각 끼워 10가닥의 명주실을 뽑아낸다.

한 필의 날실을 정경할 때에는 일곱 개의 걸틀을 박지만, 2002년 기록 영화를 촬영할 때에는 20자 반 필을 날기로 하였기 때문에 박아야 하는 말뚝의 숫자는 다섯 개이다. 첫 번째 걸틀인 첫새는 날틀과 고무대가 일직선으로 놓인 왼쪽에 말뚝을 박고, 첫새로부터 자를 재어 10자 남짓한 곳에 중간새를 박으며, 그곳으로부터 ㄷ형으로 꺾여 고무대의 앞쪽까지 순서대로 개새와 참새 그리고 막새를 박으면 날실을 날 준비가 끝난다.

가락에 감긴 10개의 실마리를 한 올씩 10개의 고무대 구멍에 켜 다음에는, 고무대를 통해 나온 날실 10올을 한 손으로 잡고 첫 번째 위치에 박아놓은 첫새에 10개의 명주실을 매듭지어서 단단하게 맨다. 이제부터





날틀과 고무대를 준비한 다음, 날틀의 하단 구멍에 가락을 끼운다.

날틀 위쪽 빗금을 거쳐 올린 날실을 고무대에 뚫린 10개의 구멍을 통과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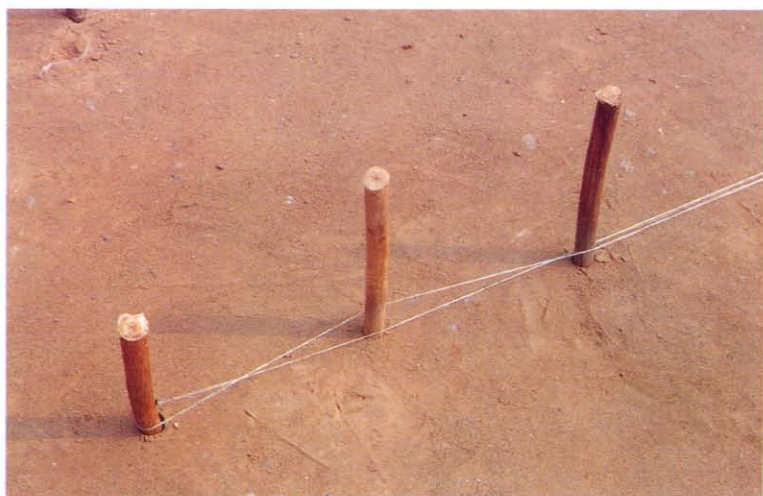




걸틀용으로 10자 위치에 표시하기 위해 자로 10자를 잴다.



첫새에 날실의 끝을 묶고 고무대를 통과한 10가닥을 쥐고 10자에 해당되는 중간새의 막대를 땅에 박는다



중간새에 날실을 걸고 난 다음 첫새 맞은편에 박은 세 개의 막대에 거는데, 이 막새용 걸들에는 X 자형으로 걸어 실을 가른다.

본격적인 베 날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첫새에 매듭을 지은 다음 10개의 명주실을 손에 쥐고 허리춤에 올리고 스무 자에 해당되는 위치까지 걸어가서 2번째 위치에 박아놓은 중간새에 한 바퀴 돌리면서 건다.

날들의 가락으로부터 풀어서 고무대를 거쳐 손에 쥐고 걷는 날실은 중간새 쪽으로 걸어갈수록 >형이 되어 당기게 된다. 즉 손에 쥔 실을 중간새에 >형으로 걸기 때문에 스무 자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길이를 풀면서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날실을 쥐고 걷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간새에 걸고 난 다음에는 먼저번에 풀었던 실을 걸기 위한 것이어서 훨씬 걷기가 쉽다. 개새와 참새, 그리고 막새까지 나란히 이어진 세 개의 걸들은 처음에 풀었던 실을 사려들고 가는 것이어서 걷기도 쉽고, 날들에서 풀리는 가락의 실도 엉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날실을 중간새에 걸고 >형으로 꺾인 다음부터는 실 가닥을 쥐고 걷기가 훨씬 쉬

워진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뚝에 낄실을 걸기 위해 걸어온 다음, 고무대 앞에 선다. 고무대의 구멍을 통해 풀려 나온 낄실 10가닥을 오른 손가락에 거는 ‘새쫓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새쫓기 작업은 두 명의 장인이 서로 협조를 해야 가능하다. 고무대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낄들과 고무대 사이에 서서 낄들의 가락에서 풀려 나온 10가닥의 명주실을 가지런히 해서 팽팽히 당겨 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고무대와 걸틀 사이에 서서 고무대의 구멍을 통해 팽팽하게 당겨진 낄실을 거머쥐고 새쫓기를 하게 된다. 막새부터 참새와 개새에 고리형태로 낄실을 걸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장인이 낄실을 걸다 말고 마당 한쪽에 세워둔 십자형 막대 앞에서 진지하게 새쫓기를 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새쫓기는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선말기 김준근의 풍속화에서도 발견되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새쫓기를 하기 위해 고무대에서 걸틀 쪽에 선 사람이 왼손으로 10가닥을 팽팽하게 잡은 다음 오른손 엄지로 맨 오른쪽의 첫 번째 낄실부터 a자 형태로 한바퀴 돌려서 걸고, 두 번째 실, 세 번째 실 … 10번째 실까지 10번을 반복해서 걸면 된다. 이렇게 새쫓기를 할 때의 장인은 마치 피아노를 치는 듯한 모습이며, 한올한올 주울 때마다 오른손가락을 모아서 텅기듯이 올려서 마치 지휘를 하는 듯한 느낌조차 준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사이에 실고리를 거는 ‘새 쫓기’는 ‘새 걸기’ 등과 같은 문학적인 용어로 불리고 있다. 새 쫓기를 해주는 목적은 참새나 개새에 걸 실이 고리를 형성해서 엉키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여러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유연한 손동작을 보여준다. 새 쫓기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을 거는 장인의 손놀림은 가까이 다가온 새를 가





고무대를 중앙에 두고 한 사람은 날들쪽에 서고 맞은편 사람은 고무대 10구멍에서 나온 실을  
'새쫓기' 한다.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피아노 치듯 움직여 엄지손가락에 한 올씩 10올을 건다.



날틀쪽에 있는 사람은 10가락의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잘 풀어준다.

범게 쫓는 듯한 모습이다. 새 걸기를 할 때 장인은 마치 피아노를 치듯 유연하고 부드럽게 손짓을 하며 움직인다. 날아갈 듯 부드럽게 산을 넘듯 둥실 오른손이 올랐다가 엄지손가락에 한 가닥의 실을 걸었다가 내려오고, 다시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다음 산을 올라가듯 상큼하게 위로 뛰었다가 다시 손가락에 실을 한 올씩 걸면서 내려오곤 한다. 새 걸기를 하는 장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세히 보면 리듬감을 살려 박자를 맞춰 꺾금질을 하는 듯 운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새쫓기가 끝나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는 날실이 a 형태로 걸리게 된다. 이 날실은 걸틀의 5, 4, 3번째 말뚝에 x자 형태로 걸면 된다. 다섯 번째의 말뚝은 마지막 걸틀이기 때문에 일종의 '막새'이다. 그곳과 네 번째 말뚝에 걸리는 날실은 서로 X형으로 교차되며, X형의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끈을 묶고 참새용 사침대를 끼우기 때문에 참새라 부르

기도 한다. 네 번째 말뚝과 세 번째 말뚝 또한 X형으로 교차되며, 이 곳에는 개새옹 사침대를 끼우므로 개새라 부를 만하다.

이렇게 한 명의 장인이 새쫓기를 하고 있을 때, 고무대 쪽에 선 장인은 날틀에 걸린 가락에서 뽑혀져 나오는 날실이 술술 잘 풀려 나오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날틀 쪽을 바라보다가 또 한 사람이 새쫓기를 할 때 가락에서 나온 10개의 실을 팽팽하게 당겨주기도 한다. 그러면 고무대 바깥쪽에 선 장인이 연달아 박아놓은 세 개의 걸들에 X자 형태로 실을 걸게 된다. 조옥이 보유자의 넷째 동서인 백문기 할머니가 날틀에 걸린 가락에서 날실 10가닥이 엉키지 않고 술술 잘 풀려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10가닥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이다.

그러면 고무대 바깥쪽에 선 조옥이 보유자의 다섯째 동서인 이규중 할머니가 고무대를 거쳐 풀려 나온 10가닥의 팽팽한 날실을 움켜쥐고 두 번째 박은 중간새 말뚝에 걸고자 걸어간다. 명주실을 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들(중간새)에 걸려고 걸어갈 때 가락에서 실이 술술 풀려 나오지 않는 점이다. 명주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날틀에 걸린 10개의 가락에서 풀리기 시작한 날실이 고무대를 따라 술술 잘 풀려 나오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날틀 가까이에 앉은 사람은 이 가락이 엉키지 않는지, 가락에 걸린 날실이 잘 풀어지는지(엉키는 것을 이곳 사투리로 “버혀진다”고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날틀 옆에 앉은 사람은 계속 가락을 만져 주며, 날실을 매는 사람은 10가닥의 날실이 잘 풀려 나오는지를 손의 감촉으로 확인해서 지시를 해 주어야 한다.

새쫓기를 하고 가장 먼 2번 걸들에 걸려고 걸어갈 때 가락의 실은 두 배로 풀리기 때문에 다시 앞쪽의 1번 걸들에 걸 때에는 가락이 엉키거나



‘새쫓기’ 한 10가닥을 첫새 막대에 ㄱ형태로 건다.

중간새를 거쳐서 다시 막새용 걸들에 X자형으로 건다.







첫새에서 시작하여 중간새를 거쳐 막새까지 10번동안 날실을 걸면 한새이고, 한새(80올)마다 끈을 묶어 표시해 둔다.

풀리지 않는다. 다만 장인은 1번 걸틀에 C자 형으로 빙 돌려 감아주고 나서 다시 2번 걸틀에 걸친 다음 새걸기를 하고자 고무대 앞에 선다.

고무대의 좌우에 두 장인이 마주서서, 한 장인은 가락을 풀어 팽팽하게 당겨주고 나머지 한 장인은 고무대를 통해 나온 10가닥의 실로 a형 새 쫓기를 해서 5번 걸틀에 ∞형으로 건 다음, 4번 걸틀과 3번 걸틀에는 X형이 반복되도록 건다. 이렇게 걸고 나서는 다시 가장 먼 2번 걸틀까지 걸어갔다, 1번 걸틀에 C자 형으로 빙 돌려 감아주는 일을 반복한다.

1번 걸틀에 매듭을 하여 날틀과 걸틀에 제대로 걸리는지를 살피면서 날틀 옆에서 '새'를 살핀 다음, 새 쫓기를 네 차례 왕복하면 명주 '한새(80올)'가 된다. 즉 이규종 조교는 잔걸음으로 달음박질하듯 날실을 쥐고 걸틀의 1-2-3-4-5 지점을 왕래하면서 실올을 걸틀의 말뚝에 걸며, 이 때 날틀 옆에 서있던 백문기 할머니가 한 새가 되었는지를 걸틀에서 확인

한다.

한 번에 10올씩 네 차례 반복해서 네 가닥씩 80올이 걸렸는지 확인한 다음, 날틀 옆에서 가락을 살펴보던 장인이 고무대 앞쪽의 걸틀로 위치를 옮겨 5번 걸틀의 C자 형 끝부분에 무명천으로 끈을 만들어 묶는다. 그런 다음 5번과 4번에 해당되는 참새부분에, 4번과 3번 부분에 해당되는 개새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무명천을 자른 끈으로 묶는다. 이렇게 참새와 개새에 띠 묶음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베틀에서 베를 짤 때 베실이 X형으로 교차시킬 사침대를 끼워 잉아를 손쉽게 벌려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명주는 한 새가 80올이고, 날틀과 고무대를 거쳐 걸틀까지 네 차례를 왕복하면 명주 한새(80올)가 되는 것이다. 보유자는 명주를 제작할 때 주로 열넉새 명주를 제작하고 있다. 14새 명주를 날기 위해서는 60번을 왕복해야 하므로 날실의 총수는 1,120올에 해당된다.

명주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열넉새 명주와 보름새 명주를 짜기 위해 수십 차례 마당을 가로질러 실을 옮겨 걸더라도 무명끈으로 표시한 참새와 개새의 부피는 늘지 않는 편이다. 날실로 사용할 명주실은 너무 가늘기 때문에 날실의 명주실에 풀칠을 하는 베 매기 작업이나, 베틀에서 짜는 베 짜기 작업을 할 때 엉키거나 끊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참새와 개새는 이렇게 엉키거나 끊어진 명주실을 잇거나 사침대를 쉽게 끼울 수 있도록 실과 실 사이를 X자 형으로 갈라놓는 작업인 것이다. 이유는 참새와 개새를 만들어두는 것은 걸틀의 말뚝 사이를 반드시 서로 교차시키는 일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명주를 날 때 실을 한 가닥을 자칫 잘못 걸면 이 실로 잉앗대 위에 한 올씩 걸 수 없어 매우 곤란해진다.

실을 어느 정도 정경한 다음에는 10자에 해당되는 중간새 부분에 가

벼운 검댕이칠을 해준다. 이렇게 칠한 검댕이를 '개미'라고 부른다. 개미는 20자 명주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0자를 나타내어 절반을 알리는 표시인 것이다. 명주 날실에 개미를 표시하기 위해, 가마솥 밑에 엉겨붙어 있는 검댕이를 오른손 검지에 묻힌다. 손가락에 묻힌 검댕이는 2번 곁들을 사이에 둔 채, 60회를 반복한 맨 위쪽 한새에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문대어 1.5cm 정도의 검은 점이 양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미 부분은 베를 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도투마리에 걸 때 가는 대가 지나 벗 짚을 끼워 두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미는 베를 짜는 장인에게는 희망을, 베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주는 것으로 믿었다. 장인은 베틀에서 베를 짤 때 개미로 표시된 부분이 나오면 스무 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10지를 짚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만큼 장인은 이 개미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게 된다. 베틀에 앉아서 몇날 며칠을 지루하게 베를 짜다가, 개미가 나오면 벌써 절반을 짚다는 생각에 나머지 절반은 금새 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베 짜기 작업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되는 지도 모른다. 3~4월의 춘궁기에 베를 짜다가 이 '개미' 부분을 보게 되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얼른 베를 짤 희망에 바디질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개미에는 틀림없이 장인의 일이 스며 있을 법하다. 때문인지 옷감 안에 개미 표시가 들어갈 경우 입는 이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올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열넉 새 1필의 명주베를 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예닐곱 시간이 걸린다. 해가 긴 8월의 한 여름에도 하루 종일을 걸려 날기 때문에 하루해가 오히려 짧게 느껴질 정도인 셈이다. 날실을 다 날고 나서 걷을 때가 되면 독특한 방법으로 사린다. 곁들에 걸려 있던 날실 묶음이 서로 엉키지 않



열넛새 명주를 짜기 위해 각각의 막대에 걸린 실에는 14번의 끈이 묶여 있는데, 날실을 나는 것이 끝나면 X형으로 교차된 개새 사이를 벌려 사침대를 끼울 수 있도록 끈을 묶는다.



실 날기가 끝나면 중간새 걸틀 부분에는 솟검땡이를 문힌 손가락으로 '개미' 부분을 표시한다.





날기가 끝난 실을 걸틀용 막대에서 빼낸다.

고 베를 매고자 풀 때에도 술술 잘 풀리도록 실고리를 만들면서 걷는 것이다. 실을 다 날고 나서 첫새에 걸어둔 실을 빼서 사리기 시작한다.

걸틀에서 실을 뺀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사려야 한다. 한 사람은 앞에서 실을 잡아주고 다른 한 사람은 양손으로 실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도와주지 않고 혼자 사리게 되면 실이 땅에 질질 끌릴 수도 있다. 깨끗한 명주실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돕는다.

실을 사리는 방법도 매우 독특하다. 걸틀에서 빼낸 실 뭉치를 왼손과 오른손의 손목에 쥐면서 나비형(∞)을 만든다. 왼손이 먼저 나비형을 만들면 오른손이 교대하여 걸틀의 실을 잡아 채면서 왼손의 나비형까지 감싸며 실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실고리가 ∞형으로 한데 뭉쳐지면 다시 걸틀의 실을 길게 사리면서 다시 왼손과 오른손으로 ∞형을 만들어가는



실을 뿔 때 한 사람은 앞에서 실을 잡아주고 다른 한 사람은 양손으로 실고리를 만든다.



실을 사릴 때 ∞형이 되도록 한 손씩 교대로 실고리를 만든다.

∞형 실고리는 한데 뭉쳐 길게 사린 다음, 다시 ∞형을 만들어간다.







머리 땅듯이 실고리를 만들면서 중간새의 막대까지 걸어온다.





실고리가 땅에 닿으려고 하면 등 뒤로 넘긴다.

것을 반복한다.

양 손을 사용해서 나비형을 한데 뭉쳐 합치는 것을 반복하면 마치 머리를 땀을 뿜은 듯한 실고리가 만들어진다. 이 실고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중간새의 막대까지 걸어온다.

실고리가 땅에 닿으려고 하면 등 뒤로 넘긴다. 사려서 등 뒤로 넘긴 실고리는 마치 흰 머리를 땀을 뿜은 것 같은 표정을 지니고 있다. 하루 종일 정경한 날실을 정성껏 사려서 땅의 티끌조차 범접하지 못하도록 정성껏 모으는 것이다. 다 사려 모은 날실은 소쿠리에 담아 바다에 켈 수 있도록 대청 마루로 옮긴다.

#### 4. 날실을 바다에 꿰기

날기 작업이 끝나면 소쿠리에 사려둔 날실을 대청마루로 가져와서, 날실을 한올 한올 바디 구멍에 정성껏 꿰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바디는 베를 땀 때나 베를 짤 때 날실이 제 자리에 걸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넉 새 바디에는 560개의 바딤살이 끼워져 있고 560개의 구멍에 만들어져 있어서, 1,120올의 명주베올을 한 구멍에 두 올씩 빠짐없이 꿰는 것이다. 바디에서 한 올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잉아올과 사올이 어긋나게 끼워져도 안되기 때문에, 장인은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한 손놀림 그리고 예민한 눈썰미를 갖춰야 한다.

바디를 꿰기 위한 준비물은 매우 단순하다. 열넉 새 바디와 사침대를 올려놓은 소반을 마련하고, 사려둔 실이 담긴 소쿠리를 놓아둔다. 이 때 바디 위에는 바늘 한 개를 꽂아두고, 마루 바닥에는 도끼를 놓아두는 점

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사려둔 날실을 풀면서 바디에 한 올 한 올 껴야 하는 장인은 소반의 좌우에 마주 앉고 소쿠리에 사려둔 날실을 조금 풀어서 그 중간 부분을 도끼에 한번 감아서 마루 바닥에 내려둔다. 이렇게 도끼로 날실을 묶는 것은 안동 권씨 댁에서 바디 껴기를 할 때마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한다. 도끼에 감아 두는 이유는 날실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무거운 돌맹이나 기타 여러 물건을 대용할 수 있다. 성주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는 도끼를 이용하지만, 한산의 방연옥 모시짜기 보유자는 방 안에 놓아둔 요강으로 눌러 놓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주변에 늘어져 있는 자잘한 도구를 활용하는 삶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사려 실고리를 소쿠리에서 풀면서 망치에 감고, 상위에는 바디와 사침대를 마련해 둔다.



바디의 한구멍마다잉아올과사올 각1올씩 총2올을 꿰어 바디옷 위에 꽃아둔 바늘에 건다.



끈으로 묶어둔 한새를 풀어 2올씩 바디구멍에 꿰 다음 바늘에 한 새 80올을 모두 꿰면 풀어두었던 끈으로 다시 묶는다.



도끼로 낚실이 움직이지 않게 눌러 놓은 다음, 막새에서 풀어낸 낚실의 실끝을 소반 위에 올리고 그 끝에 묶여 있던 끈을 풀어 버린다. 개새를 묶은 끈을 풀고, 사침대 두 개를 X자형으로 갈라진 개새의 한 쪽에 끼우고 난 다음, 다시 바깥쪽의 나머지 하나도 마저 끼운다. 개새에 끼운 사침대의 양끝을 실끈으로 묶어서 낚실이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다. 사침대를 끼운 부분에 뭉쳐 있던 낚실의 끈을 좌우로 조금씩 옮겨서 바디의 넓이만큼 벌려 준다.

이제 낚실을 바디에 끼우기 시작한다. 바디웃 위에는 바늘이 꽂혀 있다. 촘촘한 바딧살 사이로 벌어진 하나의 틈에 잉아울과 사울 각각 한 올씩 총 두 올을 켤 다음 바디웃 위에 꽂아둔 바늘에 건다. 소반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은 두 장인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시점이다. 도끼 쪽에 앉은 장인은 한 새 80올을 묶어둔 끈을 풀어서 사침대 위에서 잉아울과 사울을 순서대로 갈라서 두 올을 넘겨주면, 소반 맞은편에 앉은 장인은 두 올을 바디의 한 구멍에 켤 다음 바디 뒤쪽에서 이 두 올을 바디웃에 꽂은 바늘에 걸어둔다. 이렇게 80올을 40개의 바딧살에 반복해서 끼우고 나면 바늘에는 80올이 걸린다. 그러면 끈을 풀었던 장인으로부터 끈을 넘겨 받은 다음 바늘에서 한새 80올을 빼서 바늘에 걸었던 가운데 부분을 끈으로 다시 묶어둔다.

이와 같이 개새 사이를 X형으로 가른 부분에 끼운 사침대에서 잉아울과 사울을 순서대로 집어주면 바디 한 구멍마다 2올씩 켤다. 바디에 낚실을 켤 때는 바딧살의 구멍을 건너뛰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사침대에서 가른 잉아울과 사울의 순서도 맞아야 한다. 그리고 바딧살 한 구멍에 두 올씩 꿰는 것도 정확해야 한다. 바디를 켤 때는 섬세하면서도 차분한 손길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넉 새 1,120올을 모두



개새의 X형으로 가른 부분에 사침대로 가로질러서 잉아올과 사올을 순서대로 집어주면 바디 한 구멍마다 2올씩 켜다.



한 새 80올마다 끈을 묶어 열넉 새 바디에는 총 14개의 끈을 묶어 완성한다.

깨면 한 새 80올마다 끈이 묶이므로, 열년새 바디에는 총 14개의 끈이 다시 묶이게 되고 바디 꿰기가 끝난다.

바디에 날실을 꿰는 방법은 중국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천공 개물』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바디에 날실을 꿰려면 네 사람이 베틀의 앞뒤로 앉아서 일을 했는데, 바디에 실을 꿰는 사람은 손으로 바디집 고리를 쥐고 있다가 실을 바디에 꿰고 실이 오기를 기다린다. 날실이 바디를 지난 후 두 손가락으로 쥐고 있다가 한 새 80올이 바디를 지나게 되면 합쳐서 한 묶음으로 묶는 것도 같았다. 이 때 실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사침대 역할을 하는 교죽을 끼워 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바디에 날실을 꿰는 과정은 명주 짜기의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단순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대단히 집중력을 요구하고 세심한 정성과 고도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 5. 날실에 풀 먹이기

베 매기는 날실을 바디에 꿰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날실 위에 풀을 먹이는 작업이다. 베 매기는 두세 사람이 협동해서 햇볕이 들고 날씨가 좋은 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작업을 하며, 명주 짜기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조옥이 보유자에 의하면 젊어서 베를 많이 짤 때, 양반댁 규수나 아낙네들은 베 매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네에서 머슴을 사는 이의 아낙네나 신분이 낮거나 살림이 어려운 아낙네 두어 명이 와서 베 매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베 매

는 작업이 마당에서 햇볕을 받으며 하는 거칠고 고된 일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여겨진다.

베 매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고치 열 개 이상을 한 데 엮어 만든 명주실은 탄성이 있고 대단히 질기지만 매우 얇아서 한올 한올의 실 가닥은 눈에 쉽게 띠질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명주날실에 쌀풀과 콩즙을 한데 넣고 알맞게 저은 후 이 풀즙을 풀솔로 날실 위에 바르면, 날실의 표면강도가 증가하고 흐물거리던 실은 풀이 마르면서 뽕뽕해져 베를 짜기 편리한 상태로 바뀌게 하는 것이 베 매기이다.

중국에서도 무늬가 없는 얇은 비단을 짤 때에는 반드시 풀을 먹였지만 무늬가 있는 두꺼운 비단일 때는 풀을 먹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풀의 원료는 밀기울에서 얻은 고운 가루를 원료로 쓰는데, 풀 먹인 얇은 비단이 뽕뽕하지 않으면 쇠가죽의 아교로 풀을 먹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바디에 풀을 묻혀 오가게 하여 풀이 날실에 배어들게 한 후 마르도록 두었는데, 날씨가 맑으면 곧 마르지만 흐릴 때는 바람을 쐬어 말렸다고 한다.

별이 잘 들어 베 매기를 하기 좋은 날 아침이 되면 마당 안팎을 깔끔하게 청소한다. 명주실에 풀을 먹이면 무거워져서 자칫 바닥까지 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바닥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티끌이 명주실에 풀과 함께 묻기에 미리 청소해서 정갈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유자의 표현에 의하면 베 날기 과정부터, 베 매기, 바디 사이에 올 꿰기(이곳 성주의 사투리로는 '빚긴다' 라고 한다)를 하고 베틀에 놓고 짜는 과정까지 무명과 같고, 다만 베 매기를 할 때 보통 쌀풀이나 콩풀을 섞어 사용하는데 비해 명주짜기에는 우뭇가사리풀을 주로 쓰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배 매기 때 사용할 콩은 하루 동안 물에 불려 두었다가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찧는다.



다 찧은 콩즙을 체로 걸러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콩즙만 남긴다.



베 맬 각종 도구를 마당에 늘어놓고 들말에 도투마리를 세운 다음 바디에 꿰어 바구니에 사려둔 실을 꺼낸다.



마침대에 끼운 열넉 새의 날실을 도투마리에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쌀풀은 쌀을 으개서 쏜 풀이다. 쌀풀과 함께 섞을 콩즙을 만들려면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불려 놓아야 한다. 충분히 불은 콩은 절구에 넣고 절구공이로 찧는다. 작은 소래기 위에 체를 받친 후 절구 속에 들어있는 콩즙을 바가지로 쏜다. 절구에서 찧은 콩즙의 건더기와 찌꺼기는 체 위에 남고 소래기에는 맑은 콩즙이 걸려져 모인다. 베 매기를 하기 위한 쌀풀과 맑은 콩즙을 두 개의 소래기에 따로 담아서 준비한다. 콩즙은 명주실의 표면을 노랗게 물 들이고 마르면서 표면을 매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베 매기를 하기 위해 마당을 가로 질러 들말을 무거운 돌맹이로 눌러 놓고, 들말 앞쪽에 꽃힌 두 개의 기둥에 도투마리를 세운다. 들말 근처에는 콩즙과 쌀풀과 풀솔 및 자잘한 도구를 넣어둔 채반을 준비한다. 채반에는 참뚝대를 비롯하여 넓적한 판자로 만든 목대비와 50여 개의 뱀땡이, 사침대, 개뚝대 등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재료와 도구가 마련되면, 전날 대청 마루에서 열덥 새 날실을 펜 바디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마당으로 가지고 내려온다. 무명베를 비롯하여 모시베와 삼베에 베 매기를 할 때에는 풀이 잘 마르도록 왕겨를 준비해서 겹붙을 때야 한다. 1987년의 <명주짜기 지정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주 지방에서 명주의 베 매기를 할 때 왕겨를 때서 은근한 불에 날실을 올려 놓은 후 풀을 먹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옥이 보유자와 두 동서는 명주실은 가늘기 때문에 겹붙을 때지 않아도 햇볕에서 잘 마른다고 하였다. 결국 왕겨에 불을 지피 은근하게 겹붙을 때면서 명주베에 풀을 먹이는 것은 준비하지 못하였다.

소쿠리 속에 담긴 바디 펜 날실의 끝에 참뚝대를 끼운다. 참뚝대는 직경 2cm 정도 되는 굵고 둥근 나무막대로서, 도투마리에 날실을 단단하



게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이다. 참뿔대에는 낱실을 끼우면서 바다에 묶어 두었던 천끈을 함께 묶게 되는데 이 끈은 바다 넓이만큼 사이를 벌려 끼운다. 열네 개의 끈이 보이는 참뿔대를 도투마리에 대고 참뿔대의 양쪽은 새로 만든 천끈으로 칭칭 동여매 고정시킨다.

이제 낱실이 든 소쿠리를 들고 들말의 맞은편 마당을 향해 힘껏 걸어 간다. 두 사람이 들말과 도투마리를 잡고 있을 때 낱실을 들어 옮기는 나머지 한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마당의 한 가운데에 비경을 세운다. 낱실은 비경이 위에 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들말부터 ㄱ싱개에 걸릴 명주실의 길이는 10자가 넘기 때문이다. 명주실은 젖은 상태에서 풀쭈미의 무게 때문에 축 처져 땅에 닿으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비경이 위에 명주실을 올려서 땅에 끌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비경이로부터 2m 이상 더 가서 들말과 일직선의 위치에 ㄱ싱개를 놓고 ㄱ싱개의 말뚝에 명주실을 묶는다. ㄱ싱개가 힘을 받으면서 들말 쪽으로 쉽게 끌려오지 않도록 무거운 돌멩이 두 개를 올려 누른 후, 돌멩이 위에는 명주실이 담긴 소쿠리를 올려놓는다.

들말부터 ㄱ싱개까지 팽팽하게 당긴 후 바다에 켜 낱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명주실이 워낙 기늘기 때문에 베를 매거나 베를 찌는 사이사이에 베올이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이 끊어졌으면 얼른 실을 잇는 일부터 해야 한다.

팽팽한 낱실 위에서 바다와 사침대를 앞뒤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낱실과 낱실 사이의 간격을 벌린다. 바다에 끼워진 넓이만큼 사이를 크게 벌려야 낱실이 제 자리를 잡게 된다. 사이를 넓게 벌리는 것을 돕기 위해 개새 부분을 묶은 끈을 풀고 사침대 한 쌍을 더 끼운다.

베를 매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중간 중간에 계속 실을 확인한다. 바



덧살마다 실올이 빠지지 않고 다 꿰어 있는지, 사침대의 위아래 쪽에서  
 흑시라도 실올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명주실올이 워낙 가늘  
 기 때문에 들말에서 꼬싱개까지 당기는 동안에도 실올이 끊어지고, 바디  
 를 앞뒤로 움직이다가도 끊어지며, 사침대로 잉아올과 사올을 가를 때에  
 도 끊어질 수 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실올이 다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 중요하다.

도투마리에 걸쳐 있는 날실 위에서 바디와 사침대를 앞뒤로 움직인다.  
 도투마리에는 한 새 80올 한 묶음이 끈으로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  
 투마리에 가까울수록 날실과 날실이 뭉쳐져 있으며, 바디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날실이 한 올씩 제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바디와 사침대를 앞  
 뒤로 움직이는 것은 마치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이치여서 날실  
 과 날실의 간격이 일정하게 잡힌다.

날실에 풀을 먹여야 베틀에서 북에 씨실을 넣어 짤 때 수월하다. 그러  
 나 베를 매는 중간에 실이 끊어지면 풀을 먹일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베  
 올이 끊어지지 않고 제대로 있는지를 풀을 먹이는 동안에도 수시로 확인  
 해야 한다. 만약 실이 끊어졌으면 얼른 실을 잇는 일부터 해야 한다.

여든 살이 넘는 고령의 조옥이 보유자도 8월의 햇벌이 뜨겁게 내리쬘  
 는 마당 한 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바디에 걸린 실올이 빠짐 없는지를  
 예리하게 살핀다. 열넉 새의 날실은 1,120올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  
 심을 하고 일정하게 잡아 당겨도 가끔씩 실올이 끊어진다. 보유자는 이  
 렇게 찾아낸 실올을 어린 아이 다루듯 정성을 다해 조심스레 이어준다.

끊어진 실올을 찾아서 다 잇고 난 다음에는 쌀풀에 콩즙을 넣고 섞는  
 다. 풀즙이 알맞은 농도가 되도록 섞는 것은 보유자와 두 동서의 오랜 체  
 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풀이 너무 되면 실이 강해서 뻗뻗하고 풀이 너무



두 사람은 들말과 도투마리를 잡고 나머지 한 사람은 비경이를 중간에 놓은 다음 소쿠리에 사려 둔 날실을 들고 꼬싱개 쪽으로 다가간다.



꼬싱개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리고 그 위에 소쿠리를 올린 다음 들말이 끌릴 정도로 힘껏 잡아당겨 꼬싱개의 말뚝부분에 묶는다.



들말부터 꼬상개까지 팽팽하게 당긴 후 바디에 날실이 잘 꿰어있는지 확인한다.





바디와 사침대로 날실의 사이를 고르게 벌린 다음, 예비용 개새를 한쌍 더 끼운다.





베 매기 하기 위해  
실올의 상태를 확인  
하고 있는 보유자와  
두동서.



도투마리에 날실을  
걸고 바디와 사침대  
를 좌우로 움직이면  
서 날실의 간격을 바  
로 잡는다.

묶으면 실이 물러서 처지게 된다. 되지도 묶지도 않게 풀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풀듭이 담긴 소래기에 오른손에 쥔 풀술을 담가 풀을 듬뿍 묻힌다. 왼손으로 날실을 한 움큼 쥔 곳을 오른손에 든 풀술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풀을 바른다.

베 매기를 할 때에도 최소한 두 사람이 협동을 해야 한다. 날실을 사이에 두고 두 동서가 마주 앉는다. 한 사람은 술에 풀을 묻혀서 날실에 골고루 퍼 발라야 하고, 맞은 편에 앉은 다른 한 사람은 마른 술로 날실의 위아래로 움직여 풀이 골고루 묻도록 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풀이 묻은 술로 날실에 쓱쓱 바르면 마른 술로 고루 퍼서 빨리 마르게 만든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듯, 마주 앉은 두 동서는 풀을 바르고 풀을 말리면서 베를 만다.

알맞게 농도로 조절한 쌀풀과 콩즙을 날실 위에 바른 다음 한 새 이상에 해당되는 가닥실을 함께 옮겨쥐고 앞뒤로 10여 회 이상 문지른 다음 손질을 한다. 마른 술로 퍼서 건조시킬 때 바디와 사침대를 좌우로 왕복시키면서 날실이 서로 붙어버리는 것을 막는다. 예전에는 왕겨를 피운 것불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불 기운을 받아 빨리 마르도록 불의 온도를 조절하곤 하였다.

한 자쯤 풀을 발라 마르면 도투마리에 뱀뎡이를 넣어 날실을 감는다. 도투마리에 묶어 고정시킨 참뚝대 위로 맨 먼저 넣을 뱀뎡이는 넓직한 판자로 만든 목대비이다. 목대비를 도투마리의 앞뒤에 넣고 날실을 고루 퍼면서 감으면, 당겨지는 날실이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그 간격도 일정해지고 힘도 고루 받게 되는 것이다. 목대비 위로 날실을 한바퀴 더 돌려 감은 다음에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위에 창호지를 바른 뱀뎡이를 너댓 개 끼우고 도투마리를 감는다. 뱀뎡이로 사용하는 반 쪽짜리 대나무



바디에 걸린 실  
올이 빠짐없는  
지 다시금 확인  
하는보유자.



끊어진 실올을 찾  
아서 이어주고 있  
는보유자.



썰풀에 콩즙을 넣  
어 섞은 풀을 솔  
에 묻혀서 한 웅  
큼씩 실을 쥐고  
풀을 바른다.



한 사람은 풀을  
문헌솔로 날실에  
끌고루 바르고 다  
른 한 사람은 마  
른 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풀이 끌고  
루 문도록 퍼 준  
다.



한쪽에서는 솔에  
풀을 문혀바르  
고 또 한쪽에서  
는 고르게 퍼 빨  
리마르게 한다.





를 무명베나 삼베 등에 끼울 때에는 대나무 채로 그냥 사용하기도 하지만, 명주실은 그 올이 워낙 가늘고 곱기 때문에 대나무를 창호지로 감싸지 않으면 대나무에 명주실이 얹키기도 한다. 따라서 명주를 깔끔하게 감으며 작업하기 위해 창호지를 싼 뱀뎡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침에 시작한 베 매기는 이렇게 한 낮이 되어야 겨우 반쯤 풀칠이 된다. 베 매기 작업이 10자 정도 진행되면 중간새의 걸틀 부분에 솥 감정을 묻혀 찍어서 표시해 두었던 개미 부분이 나타난다. 도투마리를 감다가 이 개미 표시가 나오면 뱀뎡이를 넣는 대신 지푸라기 몇 가닥을 끼우고 도투마리를 돌려 감는다. 이렇게 지푸라기를 집어넣는 것이 '개미집'이며, 베틀에서 베를 짤 때 열 자를 찼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옛부터 개미 표시가 된 부분이 들어간 옷감으로 옷을 해 입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아마도 명주짜기의 지극한 정성을 상징하는 표시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베 매기를 하는 데에는 8월의 긴긴 하루해마저 너무 짧다. 아침의 청명한 시간에 시작한 베 매기 작업은 한낮을 한창 지나 그림자가 짧아지는 시간까지 계속된다. 언제 저물까 생각하던 그 길던 해도 훌쩍 지나 이제는 서산에 기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넓은 안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전히 베를 매는 세 동서의 그림자는 무척이나 길게만 느껴진다. 열 녀새의 날실에 풀을 바르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된 작업인 것이다.

하루 종일 한 사람은 풀이 묻은 젖은 솔로 명주베 위에 풀을 바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른 솔로 골고루 퍼서 말리는 일을 반복한다. 한 자 남짓 풀을 발라서 베에 바짝 말리고 한 사람이 들말에 엮은 도투마리에 다가가면 또 한 사람이 채반 위에 놓아 둔 뱀뎡이를 끼워 감는다. 도투마리

한 자쯤 풀을 발  
라 마른 다음에  
는 도투마리에  
뱀땡이를 끼우면  
서 감는다.



열넉새의 날실에  
풀바르기가 다 끝  
나면 꼬싱개의 말  
뚝에 걸어두었던  
끝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를 들어 한 바퀴 돌려서 들말에 감으면 마당의 맞은편에 놓여있던 꼬싱개가 그만큼 들말 방향으로 끌려오게 된다. 어느새 꼬싱개와 들말은 친한 친구처럼 가까워지면서 벌어진 사이가 좁혀진다. 이제 소쿠리에 담아 두었던 낱실을 풀어서 묶어 꼬싱개 앞의 말뚝에 묶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도투마리에 낱실을 감는 작업은 명주 한 필을 맬 때 70번 내지 80번쯤 반복한다. 다시 말하면 도투마리는 들말의 기둥에 기대어 버티면서 35회 내지 40회를 회전하는 셈이 된다.

점점 해 그림자가 길어지고 채반에 수북하게 쌓였던 뽕맹이는 모두 도투마리에 끼워져, 도투마리의 허리가 제법 두툼해진다. 꼬싱개 위에 올려 두었던 광주리 속의 낱실도 모두 풀어서 이제 광주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 꼬싱개에 묶어둔 낱실과 들말의 사이가 2~3m 이내로 가까워지면서 바디와 사침대를 꼬싱개 쪽으로 밀어 실을 가지런히 할 수 없을 시점이 된다. 이 때 도투마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감고 낱실의 아래 부분이 땅에 닿지 않도록 채반을 받친 다음 꼬싱개의 말뚝에 걸쳐 두었던 낱실의 끝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가위로 잘라서 들말의 도투마리 쪽에 늘어 뜨려진 낱실의 아랫쪽 부분에 채반을 받쳐 놓고, 꼬싱개의 말뚝에는 부테를 건다. 부테에 매달린 부테끈의 양 끝에는 개툭대를 감아 묶은 다음 풀 먹이기가 끝나 채반 위에 늘어져 있는 낱실의 끝 부분을 한 새싹 묶기 시작한다. 낱실을 한 새싹 간격을 띄워 묶은 개툭대는 바디와 사침대에 의해 알맞은 너비로 벌어진 낱실의 폭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개툭대는 막상 배틀에서 베 짜기를 시작할 적에 부테에 감는 막대이며, 명주베를 두세 자 이상 짜고 난 다음에는 말코라고 부르는 막대와 함께 감아서 부테끈에 함께 잡아맬 때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개툽대에 풀을 먹인 낱실을 묶을 때의 방법은 바디의 바깥쪽 쪽을 감안해서 가장 바깥쪽부터 한 새씩 묶기 시작한다. 열네 개의 끈으로 열네 새 바디의 폭만큼 열네 새의 낱실을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차츰차츰 묶으면 베 매기가 끝난다. 개툽대에 묶어 베 매기가 모두 끝나면 개툽대에 묶은 부테끈을 풀어낸 다음 도투마리에 개툽대까지 돌려감아 마무리해서 한 사람은 도투마리를 들어 베틀에 걸기 위해 마루로 올라간다. 이 때 마당에는 아직도 베 매기를 하기 위해 늘어놓은 들말과 꼬싱개를 비롯하여 풀술이나 소래기 및 자갈한 소도구가 담긴 채반 등이 여전히 늘어놓아져 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남아서 마당에 남아있는 이러한 소도구를 치워야 한다. 들말과 꼬싱개는 원래 보관해 두었던 창고로 옮기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소도구들은 잘 챙겨서 마루로 옮긴 후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6. 베틀에서 생명주 짜기

생명주는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에 감은 낱실을 베틀에 걸고 잉아를 맨 다음 30여 가지 부속품을 움직여 짠 뽕뽕한 상태의 명주이다. 명주베를 짤 베틀은 모시베나 삼베, 무명베를 짜는 베틀과 형태나 구조가 동일하다. 베를 짜지 않을 때에는 분해해서 공간에 넣어 두거나 추녀 끝에 매달아 둔다. 명주베를 짜기 위한 베틀은 베 매기가 끝나면 보관해 두었던 곳에서 꺼내온다.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올릴 수 있도록 베틀을 공간에서 꺼내어 대청마루에 세우고 조립하기 시작한다. 베틀에는 끼우거나 맞출 부속도



구가 여러 가지이고 앞뒤 좌우를 조정하고 맞춰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베틀의 조립 또한 두세 명의 장인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누운다리와 앞 뒤 다리로서, 누운다리에 앞뒤로 선다리와 뒷다리를 끼워서 세운 다음 누운다리의 좌우로 가로목을 뻗친 상태이다. 앞쪽의 비교적 높은 선다리 양쪽에 용두머리를 올리고, 용두머리의 앞쪽에는 한 개의 신나무를, 뒤쪽에는 한 쌍의 눈썹대를 꽂으면 베틀의 기본 골격은 갖추게 된다.

마당에서 풀칠하기가 끝난 날실과 뱀뎡이를 감은 도투마리를 보유자의 두 동서가 양쪽에서 마주 들고 마루로 가지고 올라와 선다리에 기대어 세운다. 베틀을 조립하기 위해 도투마리에 감아둔 날실을 조금 풀어 개툼대와 바다를 앞으로 길게 잡아끌어 가로목에 늘어뜨리고, 사침대는 도투마리 부분에서 양쪽으로 잡아 날실의 간격을 고르게 만든다.

꼬성개의 말뚝에 부테를 걸고 부테끈의 끝에 개툼대를 놓은 다음 풀먹이기가 끝난 날실의 끝부분은 한 새씩 묶는다.





개툼대에 열넉 새를 묶을 때에는 바디의 폭만큼 벌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묶는다.

베 짜기를 시작하기 전의 베틀은 기본적인 골격 외에 부속품이 거의 없다.





베틀의 기본 골격에 베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들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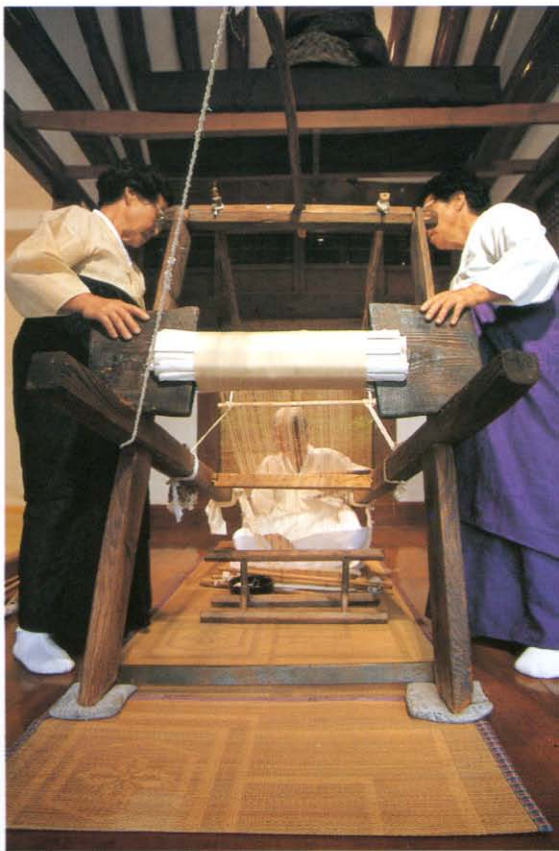
베틀에 올려진 도투마리에서 말코와 바디는 앞쪽으로 당기고 사침대는 양쪽에서 잡는다.







보유자가 베틀의 가로목과 앞을개 사이의 바닥에 앉고, 두 동서는 도투마리에서 바디를 앞쪽으로 당긴다.



보유자 앞쪽의 가로목에 바디와 말코를 걸쳐지면서 날실이 내려진다.



이제 보유자가 뒷다리 위에 앉을개를 놓고 앉으면, 두 동서는 도투마리와 사침대 사이에 잡을대라 부르는 길고 두꺼운 대나무를 넣어서 낱실과 낱실 사이를 상하로 넓게 벌린 다음 비경이를 끼우기 시작한다. 비경이가 끼워져 제 위치에 놓이면 잡을대는 빼 버린다. 비경이 위쪽에 낱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 사침대에서 갈라진 낱실과 낱실이 X자형으로 더욱 넓게 벌어지게 된다. 이 때 사침대의 두 막대를 묶어둔 실끈을 풀어 사침대 중 한 개의 막대를 비경이의 한쪽 다리에 걸친 다음 사침대의 두 막대를 실끈으로 다시 묶어 비경이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이제, 가로목에 걸쳐 두었던 개툼대와 바디를 앉을개에 앉은 보유자 쪽으로 길게 당기면서 베를 짤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이 베틀에 기본 골격을 조립해서 세우더라도 베를 짜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따로 마련해 두는 작업이 선행된다. 첫째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많이 감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베를 짤 때 사용하는 씨실의 양은 낱실의 양보다 1.5배 이상 든다. 따라서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북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잉아틀에 잉아를 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낱실은 사침대를 거치면서 상하로 갈라지고, 다시 비경이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X자형으로 벌어지지만 바디에 걸기 전에 잉아를 걸어야 된다. 끝신을 잡아 끌거나 당기면 신끈에서 신나무를 거쳐 용두머리에서 눈썹대를 지나 눈썹노리에서 잉앗대로 전달되는 동력에 의해 잉아는 잉아올과 사올로 나뉘지게 되는 것이다.

## 1) 꾸리 감기

꾸리는 베를 짤 때 북 속에 담아두는 실로서, 베틀 위에서는 날실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베의 길이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 씨실에 해당되는 실이다. 이 씨실의 실마리가 엉키지 않고 북에서 술술 잘 풀려 나오도록 꾸리에 감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통이 가는 시누대를 말렸다가 묵혔다가 말려서 만드는 '전대'이며, 이 지방 사투리로 '부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주 지방에서 사용하는 부대는 꾸리를 감아 두는 중심축으로서, 길이 15cm, 직경 0.8~1.0cm 정도의 통대 나무 대롱을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꾸리로 사용될 부대는 대나무의 마디가 없거나 마디가 있으면 그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은 다음, 한쪽 끝을 비스듬하면서도 뽕족하게 자르고 그 곳에 실마리를 걸어 감으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꾸리로 감는 전대의 경우 모시로 유명한 충남 서천의 한산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고를 수 있는 소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전대의 길이와 지름은 대체로 비슷하였는데, 다만 한쪽 끝을 다듬는 방식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한산 지역의 전대는 한쪽 끝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온 곳을 약간 움푹 파고 그 속에 0.3~0.5mm 정도의 구멍을 판다. 전대의 몸통 부분에는 얇은 빗금을 파내 그곳에 실을 동여맨 후 꾸리를 감고나서 구멍으로 실을 빼내어 고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든 전대에 꾸리를 감는 방식은 경북 성주의 명주실이나 충남 한산의 모시실이나 같다. 다만 본 조사자의 관찰에 의하면 한산 지역에서 전대에 감은 모시실 꾸리는 꾸리를 감다가 잠시 집안 일이 있어서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고 멈춘 동안에도 켄 구멍에 의해 실이 고정되

는 원리로 개량된 형태를 보인다. 전대에 감긴 꾸리는 그 형태가 틀어지거나 실마리가 엉키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멈춘 채 현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성주 지역의 부대는 밋밋한 대나무를 잘라 만든 일반적인 형태였다. 때문에 꾸리를 감다가 멈추면 대나무 끝에서 꾸리실이 빠져 나와 엉키는 일이 자주 생겨서 양쪽 지역의 도구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주 지역에서 명주를 짜는 장인들이 꾸리를 감는 방법은 무명베나 모시베, 삼베 등 직조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장인은 누에고치에서 뽑아 만든 명주실을 사려 두었다가 왼손으로 실마리를 잡고, 오른손에는 부대를 쥐는데 매끈한 대나무의 표면이 번들거리면 명주실이 잘 감기지 않기 때문에 우선 무명실로 부대의 중앙을 10여 회 정도 칭칭 감아서 밑바탕을 만든 다음 명주실을 감기 시작한다. 부대의 한쪽 끝에 명주실의 실마리를 끼운 후, 오른손으로 8자형을 그리면서 빙빙 돌려 무명실이 감긴 위에 명주실을 감는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부대 둘레에 차곡 차곡 8자형으로 실을 감을 때 왼손은 사려둔 실이 제대로 풀려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부대에 일정하게 꾸리실이 감기도록 조정한다.

꾸리 감는 작업을 곁에서 살펴보면 장인이 가만히 앉아서 실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른손 손목을 일정하게 돌려 부대에 8자형을 반복하면서 전체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베를 짜는 장인들은 오랜 세월의 경험에 의해 고도로 숙달된 작업을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숙한 장인이 부대에 꾸리를 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감지 못하거나, 8자형이 엉키거나 끝



가락을 끼운 틀에서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감고 있는 보유자와 두 동서.

가락에 X자형으로 감는 꾸리.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잘못 감기면, 베틀에 올라 앉아 복에 꾸리를 넣고 빠르게 짤 때 실마리가 제대로 풀려 나오지 않게 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꾸리 감기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오랜 경험이 쌓인 결과이며, 미숙한 장인이 감은 꾸리로 베를 짜기 어렵다고 한다. 성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속담에 의하면 꾸리 감기작업이 어느 정도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한다. '못된 가스나(처녀)꾸리 감듯 한다'라는 말은 거칠게 감은 꾸리 때문에 베를 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꾸리 감기 작업이 힘은 들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해서 숙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꾸리를 감기 위해서는 먼저 돌것에서 내린 여러 개의 가락을 준비한다. 다음, 상자형 가락꽃이에 이 가락을 꽂아둔다. 상자형 가락꽃이는 바구니처럼 만든 간이틀로서 상하 양단에 쇠꼬챙이를 나란히 꽂아서 가락을 일렬로 건다. 가락에 감겨 있는 실끝을 찾은 다음 꾸리를 감기 위해 대나무를 오른손에 쥘다.

명주실의 꾸리 감기는 부대의 가운데쪽에서 시작하여 여덟 8자가 되도록 손목을 돌린다. 완성된 꾸리의 길이는 대략 8cm 내지 11cm 정도이고 이렇게 감긴 꾸리실의 직경은 2.5cm 내지 3.0cm에 이른다. 다 감은 명주실 꾸리는 실 자체의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끝실이 자꾸 빠져나와서 형태가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다 감은 명주실의 꾸리 표면에 무명실로 여덟 8자를 10여 회 그리면서 전체를 칭칭 감이준다. 이렇게 무명실로 한 꺼풀 더 입히는 것을 '꾸리에 옷 입힌다'고 한다. 이것은 명주실 꾸리에만 하는 방법으로서, 그 이유는 무명실이나 삼베실 혹은 모시실과 같은 식물성 섬유와 달리 명주실은 섬세하면서도 탄력이 강한 동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매끄러운 명주실이 풀려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옷까지 입힌 명주실 꾸리는 부대에 끼운 상태로 보관해 두며, 씨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에서 꾸리를 뽑아내야 한다. 이 때 명주실 꾸리에서 부대 끝 부분에 감겨 있는 실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실마리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 필의 명주를 짤 때 소요되는 꾸리의 양은 베를 맨 날실의 양보다 1.5배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하지만 꾸리 감기는 베 짜기의 다른 작업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며, 장인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실 씨기와 베 날기나 베 매기는 날씨가 좋은 날 마당 가득히 고치나 명주실을 펴놓고 두세 명의 장인이 여러 시간 혹은 하루 종일 힘을 합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인이 사려둔 명주실로 베를 짜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꾸리를 감는데 베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인지, 한 필에 소요되는 꾸리 전체를 감는 데 대략 합치면 30여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하다.

미리 감아둔 꾸리를 씨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에서 빼내어 물에 담긴 그릇에 담가 축축하게 적셔둔다. 근래에는 하루에 짤 분량의 꾸리를 물에 담갔다가 얇은 비닐로 싸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처럼 건조해지 않게 조심해서 여러 개의 꾸리를 마련해 두는 것은 한 산 모시짜기의 방연옥 보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도 씨실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고치실을 얼레에 감은 후 날실과 씨실을 골라 모으는데 날실의 양이 4냥이면 씨실은 그보다 1.5배 많은 6냥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얼레에 감은 실 가운데 씨실로 쓸 실은 미리 물에 흠뻑 적셔서 물레바퀴로 가락을 돌려 왕

대나무로 만든 대룽에 감는다.

베틀에 앉은 장인은 꾸리 위에 옷을 입히기 위해 한 벌 더 감은 무명실을 풀어내고 물에 담가 축축해진 꾸리를 넣고 그 위에 가느다랗고 길쭉한 대나무 복단개로 활처럼 휘면서 덮어 꾸리를 복에 고정시킨다. 복에 넣은 꾸리의 실마리를 풀어서 복에 뚫린 작은 구멍에 꿰어 실이 풀어져 나오면 베를 짤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밑이 매끈하고 날렵한 유선형의 배처럼 생긴 복은 양끝이 뾰족하여 날실 위를 미끄러지듯 좌우로 움직이면서 명주베를 짤 수 있게 된다.

## 2) 잉아 걸기

잉아는 날실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그 사이에 씨실이 들어가도록 하는 장치이다. 재래식 베틀에는 잉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베를 짤 때마다 잉아틀에서 잉앗실을 새로 만들어 잉앗대를 끼운 다음 잉아를 눈썹노리에 묶어 눈썹대에 걸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잉아틀을 사용하여 잉아를 거는 것은 베틀 위에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선다리에 세우고 사침대의 갈라진 날실 사이에서 날실을 잉아울과 사울로 골라내어 끼우면 된다. 잉아틀에 일일이 잉앗실을 꿰는 다음 잉앗대로 바꿔 끼워 잉아를 눈썹노리에 매서 눈썹대에 거는 작업은 숙달된 장인이라도 1시간 여가 소요된다.

재래식 베틀에서 잉아 걸기는 거의 모든 베를 짤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공통된 작업과정인면서, 모든 부속품이 기계화되고 표준화된 현대식 개량 베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작업이다. 예컨대 베틀에 사용하기 위해 잉아를 거는 작업은 제주도의 망건을 제작할 때의 작업과정

중 편자를 위에서 편자를 짤 때 잉아를 일일이 만들던 방법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물론 제주도 망건의 편자는 다회나 띠를 짜는 것처럼 편자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편자들보다 앞서 잉아들에 잉앗실을 거는 작업부터 하고 있었다. 망건의 편자와 같이 좁은 폭을 짤 때 잉아들의 크기와 폭은 작고 좁다. 길이 5cm에 두께 3mm 이내의 성냥개비처럼 생긴 작고 좁은 두 개의 대나무에 X자형으로 매듭을 지으며 말총을 한올씩 걸어서 잉아들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재래식 베틀에 잉앗실을 거는 이치는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베틀에서 실고리를 이용해서 잉아를 걸 때는 최소한 두 명 내지 세 명의 장인이 서로 도와야 가능하다. 베틀 중앙의 가로목 앞 쪽에 앉은 장인이 잉아들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무명실을 걸어 8자형 실고리로 잉앗실을 만든다. 그 동안 베틀의 양 옆에 앉은 장인들은 사침대와 비경이를 통과한 날실을 잉아올과 사올로 갈라서 잉앗실에 걸게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래 베틀에 잉앗실을 걸기 위해서는 단단한 목재로 만든 ∠자형 잉아들에 잉앗실을 거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잉아들은 장인이 한쪽은 모아지고 한쪽은 벌어진 형태로서 폭이 14cm 정도인 ∠자형인데, 끝이 모아진 부분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는 무명실을 걸어 매듭을 지으며 잉아들에 걸면서 날실을 꿰며 잉아를 빠짐없이 걸어 나간다.

잉앗실을 거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잉아들의 상단에 실고리를 만들어 매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잉아들의 하단에 잉앗실이 U자형으로 돌 때 비경이를 거쳐 앞쪽으로 온 맨 왼쪽의 날실을 한 올 낚아채서 그 고리에 건 다음, 잉아들의 상단에 걸기 위해 오른손 검지를 위쪽으로 밀며 엄지로 버티면서 잉앗실의 위쪽 고리를 한 올 만든다. 이렇게 만



든 실고리를 잉아틀의 상단에 한 바퀴 건 다음 앞에서 했던 작업과정을 반복한다.

다만 이 때 아래쪽에 잉앗실을 걸 때 잉아올을 걸고나서, 상단의 실고리를 만들면서 사침대에 의해 X자형으로 교차된 나머지 한 올 즉 사올을 옮기면서 작업한다. X형으로 갈빗대를 이루며 나란히 걸린 두 올 중 잉앗실에 거는 올은 잉아올이라 하고 나머지 한 올은 사올이라고 한다. 잉아틀의 하단부에 잉앗실을 걸 때마다 잉아올을 집어 올려 걸며 사올 한 가닥은 남겨둔 채 그 다음 잉아올을 집어올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오른손 검지를 위쪽으로 밀면서 엄지로 버티어 잉아틀의 상단에 한 바퀴 거는 동작을 쉬지 않고 560번 반복한다. 이 때 마주 앉은 두 장인의 손발이 착착 맞아야 잉아틀에 잉아올이 빠짐없이 걸리며, 잉아가 잘 만들어져야 고운 명주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장인들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집중해서 작업을 하곤 하였다.

열넉 새 명주를 짤 때 잉아틀에는 560올의 잉아올이 걸려 바디를 통과하고, 560올의 사올은 잉아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디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X형으로 교차되는 잉아올과 사올이 각각 잉아틀에 걸리거나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베틀에 걸고 짤 때 눈썹대에 걸린 잉앗대를 끝신으로 당기면, 도투마리에서 비경이를 지나 눌림대와 잉앗대를 거치면서 2중 3중의 X형으로 벌어지면서 씨실로 사용하고자 감은 꾸리가 들어있는 북이 들어갈 사잇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잉아가 잘 만들어져야 바디와 잉앗대 사이가 넓게 벌어져 북이 쉽게 들어가면서 명주를 짜는 속도라든지 짜는 모양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잉아틀에 잉앗실을 거는 작업은 장인 혼자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두 세명의 장인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 잉아틀을 손에 쥔 장



재래식 배틀에서는 두 세사람이 협력하여 실고리로 잉아를 만든다.



보유자는 왼손에 잉아틀을 쥐고 두 동서가 사침대를 지나 바디에 꿰어진 잉아울과 사울을 갈라 주면, 오른손으로 잉앗대에 실고리를 만든다.



(위) 잉아올과 사올을 일일이 가르면서 잉아를 건다.  
(아래) 열넉새 짜리 잉아를 빠짐없이 잉앗대에 걸려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위)잉아올이 다걸도록잉아틀을권 왼손에 힘을준다.

(아래) 잉아틀에 건8자형 실고리의 아래쪽에만 두개의 대나무속대를 끼운다.





인은 베틀 뒷다리 밑에 앓을개를 빼고 바닥에 앉아서 잡을대와 바디를 아래로 늘어뜨린 다음 잉아들을 손에 쥐게 된다. 이 때 또 한 명의 장인은 베틀의 왼쪽 옆에 앉아서 도투마리에서 사침대를 거쳐 비경이 위에 걸친 날실을 잉아올과 사올로 가르면서 잉아들에 가지런히 잉아올이 걸리도록 한 가닥씩 잡아서 건네주면 된다. 이렇게 협조를 하면 잉아를 거는 장인은 잉아들에 잉앗실로 고리를 만들면서 보조하는 장인이 건네준 잉아올을 잉아들 하단에 걸면서 계속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잉아들에 어느 정도 잉앗실이 걸리고 나면 장인은 왼손의 엄지와 네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잉앗실이 걸린 잉아올이 빠져나가지 않게 꼭 잡아야 한다. 이렇게 560번을 하고 나면 왼쪽 손에 걸린 560올의 잉아올은 왼손으로 잡은 중간 부분이 움푹 들어간 오목렌즈의 형태가 된다.

왼손에 걸린 잉아올을 잉앗대에 걸기 위해 오른손에 잉앗대 세 개를 잡고 오른쪽부터 끼우기 시작한다. 잉앗대 세 개가 걸리는 위치는 잉아들의 상단부에 만든 고리 윗부분에 맨 첫 번째 잉앗대를 끼우고 나머지 두 개의 잉앗대는 잉아들 하단부의 고리 아래부분에 끼우게 된다. 이렇게 끼운 잉앗대는 베틀에 걸면 위쪽 고리 부분을 사이에 두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잉앗대가 서로 맞걸린 형태가 되고, 나머지 세 번째 잉앗대는 잉아들 하단부에 U자형으로 걸어맨 아랫쪽 실고리에 걸리면서 그 아래로 잉앗실에 걸린 명주 잉아올이 착 걸리게 되는 것이다.

잉아들  $\angle$ 형의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며 잉앗대 세 개를 끼우면서 잉아들을 왼손으로 빼내게 된다. 잉아들을 다 빼고 잉앗대를 다 걸게 되면, 베틀 아래 앉아있던 장인은 베틀 위로 올라가 앓을개 위에 앉고 개 툽대에 부테끈의 양끝을 잡아맨 다음 눈썹대에 길게 걸쳐 내려온 양쪽 매듭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잉앗대를 8자형으로 걸어 엮으면 잉아 걸기

가 끝난다.

이렇게 건 잉아는 잉아틀에서 잉앗대로 빼내면서 간격이 벌어지거나 좁아지고 서로 엇갈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곧바로 북에 들어있는 씨실을 걸어 짜 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사침대와 비경이로부터 잉앗대를 거쳐 바디까지 걸려 있는 잉아올과 사올이 X형 갈빗대를 이루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잉앗대의 잉아실을 가지런히 간추린다. 이때 비경이에 걸린 잉아올과 사올이 서로 제 순서로 걸려 있는지, 잉앗대의 잉아에 잉아올이 빠진 것이 없는지, 바디에는 올이 걸려 있는데 잉아에도 걸려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잉아올과 사올이 순서에 따라 교대로 X형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빠진 올이 있는 경우 끝신으로 신나무를 끌어올린 다음 눈썹대로 잉아를 들어올릴 때 잉아와 바디의 벌어지는 각도가 좁거나 한두 올이 밀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이 곳 사투리로는 올이 처지는 것을 '올이 늣다' 라고 표현한다.

잉아가 제대로 걸리고 당기는 힘이 일정해야 베를 짜기가 좋다. 만약 어느 한 올이라도 처지거나 벌어지는 공간이 너무 많으면 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고 날실의 각도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북을 빠르게 넣을 수 없어서 짜는 속도가 지체된다. 또 중간 중간에 잉아올과 사올이 끊어진 것을 이 지역 사투리로는 '실이 떨어진다' 고 하는데, 끊어진 올을 찾고 연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짜는 시간이 지체된다. 하지만 보유자와 두 동서들은 손동작이 잽싸기 때문에 이러한 잉앗실 거는 작업을 한 시간 정도에 끝내곤 한다.

잉아틀에서 잉아올과 사올을 각각 나누어 걸어 바뀐 끼운 잉앗대를 눈썹노리에 묶고 그 위의 눈썹대에 건다. 잉아를 다 걸면 누름대로 누르



8자형의 위쪽 실고리에 또 하나의 잉앗대를 끼워 총3개의 잉앗대가 끼워진다.

세 개의 잉앗대를 눈썹대 끝의 눈썹노리에서 실을 꼬아내려온 눈썹끈에 건다.





잉아까지 끼운 보유자는 앉을개에 앉아부테를 찬다.

고 바디 앞에 날실을 묶어둔 개툽대를 당기며, 개툽대의 끝은 허리에 맨 부테끈으로 묶는다. 이제 바디의 폭에 맞춰 날실의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활'을 쫓으면 베를 짤 준비는 다 된 셈이다.

### 3) 베 짜기

베 짜기란 베 매기가 끝난 날실을 베틀에 걸고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켜 피륙을 만드는 것이다. 베를 짜기 위해서는 씨실로 사용할 꾸리를 감아서 준비해 두어야 하고, 잉아틀에서 잉앗실을 걸어서 눈썹대에 매어 놓아야 된다. 이제야 비로소 베틀의 모습이 제 꼴을 갖추게 된다. 베틀에서 날실에 마지막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씨실을 넣어 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잉아이다. 잉아의 양쪽에 걸린 눈썹끈에 의해 끝신을 끌거나 미는 힘에 의해 날살이 벌어지고 잉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베를 찢 때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하는 작은 소도구들을 준비해서 소반 위에 올려놓는다. 물에 담가 축축해진 꾸리를 넣은 북, 바디를 통과 시킬 날살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해 바딿살에 바를 기름, 꿰어진 날살을 연결할 때 바를 풀, 날살을 꿰어 명주베 위에 꽂아둘 바늘이 꽂힌 반진고리, 떨어진 잉아를 연결할 무명실, 최활을 옮겨 꽂을 때마다 물을 칠하는 젖을개 등이다. 베틀에 올릴 모든 소도구들이 준비되면 베를 찢기 시작한다.

베틀의 선다리 위에는 날살이 감긴 도투마리를 기대어 놓았으며, 사침대로 올을 가른 부분에는 비경이를 끼워 더 사이를 벌린다. 그 앞쪽의 눈썹대는 날살을 누르고 눈썹대에 걸린 잉아에는 잉아올과 사올이 교대로 교차되어 바디를 통과한 다음 개툭대에 한 새씩 끈으로 묶여 있다. 장인은 뒷다리의 앓을개에 바르게 앉는다. 이어서 허리에 두른 부테의 끝으로 개툭대의 양끝을 휘감아 단단하게 묶는다.

곧 이어 오른발에 신은 끝신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잉아가 바른지, 잉아의 움직임에 따라 날살과 날살의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지, 잉아올과 사올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왼손으로 바디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몇 차례 취해본 다음,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 오른손으로 북을 잡아 날살 사이를 통과시켜 이를 왼손으로 받아서 베틀대 위에 놓고 다시 오른손으로 바디를 잡아당긴다.

장인이 바디집을 바라보며 오른손에 북을 쥐고 왼손은 바디집을 잡고 오른발은 베틀신을 신는다. 오른발의 베틀신을 뒤로 잡아당기는 순간 잉

아가 위로 당겨지면서 잉아웃에 해당되는 절반의 낱실은 위쪽으로 사올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벌어진다. 이처럼 두 갈래로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오른손에 전 북을 밀어 넣는 순간, 왼손으로 밀고 있던 바디집을 놓고 미끄러지는 북을 오른손으로 받아 왼쪽으로 북을 옮긴다. 오른손으로 북을 밀어 넣는 순간, 왼손으로 바디집을 잡아 앞의 개툽대 쪽으로 잡아당겨서 베 바닥을 친다. 이 순간 꾸리로 감아둔 씨실이 북에서 빠져 나오면서 낱실 사이를 통과하고 바디를 치는 힘에 의하여 한 올의 명주가 짜여진다.

이렇게 낱실에 넣은 실이 첫 번째 씨실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어섯 번의 씨실을 짜 넣고는 그것들이 제대로 짜지는지 확인한 다음, 바디를 바디집의 위아래에 놓으며 바디집을 닫고자 마구리쇠를 끼우고 실끈을 묶어 고정시킨다. 이제 북을 들어 씨실을 한번 던져 넣고, 오른발에 신은 끌신을 잡아당긴다.

베틀의 움직임은 이 끌신을 잡아당길 때부터 시작된다. 끌신으로부터 비롯한 베틀의 움직임이 신나무에 전달되고, 곧이어 용두머리를 거쳐 눈썽대에서 눈썽노리를 타고 내려가 잉아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한편 낱실의 움직임은 도투마리로부터 시작된다. 베 매기가 끝난 도투마리를 베틀의 선다리에 세운 다음 낱실을 약간 풀면 사침대에서 X자형으로 실올을 가르는 작업을 한다. 곧 이어 비경이를 끼워 낱실을 확실하게 벌린 다음 누름대로 누르고 잉아올과 사올이 갈리면 잉아에 걸린다. 바디에는 이 두 올 한 쌍을 한 개의 바디구멍에 꿰고 개툽대에 천끈으로 한 새씩 묶어둔 부분부터 짜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점이 되면 앓을개에 앓아 부테를 허리에 찬 장인은 개툽대 부분에 최활을 꽂은 다음 짜기 시작한다. 첫 번째 짤 때는 오른손에 북을 들



도투마리에서 날실을 풀어서 배 부분까지 당기고 개툼대를 부테 끈으로 묶는다.

도투마리와 사침대 사이에 비경을 끼워서 잉아울과 사울 사이를 벌린다.





바디에 바디집을 채우고 마구리쇠를 상하에 끼운 후 실끈으로 묶는다.

고 왼쪽을 향해 날실 위에 넣은 다음, 오른발에 묶은 끝신을 뒷다리 쪽으로 잡아채 잉아가 올라가면서 X자형으로 날실이 벌어지면 오른손으로 바디를 쳐서 날실 위에 씨실이 교차되도록 한다. 두 번째 짤 때는 북과 바디를 잡은 손이 바뀌어 왼손에 북을 들고 오른쪽을 향해 날실 위에 넣은 다음, 오른발에 묶은 끝신을 선다리 쪽으로 뺀 후 오른손으로 바디를 쳐서 날실 위에 씨실이 교차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짜는 방법과 두 번째 짜는 방법을 교대하면 날실과 씨실이 일정하게 교차되면서 베가 짜지게 된다. 즉 오른손에 북을 들어 씨실을 넣고 끝신을 앞으로 끌어서 잉아가 들리면 왼손으로 바디를 치고, 다시 왼손에 북을 들어 씨실을 넣고 끝신을 뒤로 밀어 잉아가 바뀌면 오른손으로 바디를 치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왼손





베들의 모든 부속을 갖추고 베를 짤 준비가 된 보유자.



왼발은 버팀근에 올려 버티고, 오른발은 끌신을 신는다.

왼손에는 북에 들어 꾸리를 풀고, 오른손은 바디집을 잡아 베를 찢는다.



의 북과 오른손의 바디, 오른손의 북과 왼손의 바디를 교대로 반복하면서 끝신을 당겼다 밀면 차곡차곡 평직의 명주베가 쌓이기 시작한다.

중국의 경우 『천공개물』에 의하면 비단을 짤 때 실을 잉아에 꿰어 직기에 걸어서 잉아를 밟아 올리면 그대로 날실이 꼬여서 구멍이 생겨 또 렇한 그물눈을 맺는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중국 비단의 품종은 잉아에 의해 생기는 데, 잉아를 움직일 때 구멍을 정렬하지 않고 드문드문한 것을 사(紗), 왼쪽으로 꼰 실과 오른쪽으로 꼰 실로 한 북씩 교대로 짠 것을 추사(鄒紗), 날실을 한 가닥씩 올리고 내려서 짠 것을 나(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베를 짜기 위해 작동되는 장치는 매우 많고 복잡하다. 베틀은 도투마리로부터 사침대, 비경이, 놀림대, 잉아, 바디집, 최활, 개툼대와 말코, 부테, 북 등과 그밖에 30여 가지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 짜기 작업에서는 명주 20~25cm를 명주 '한 앞'이라 한다. 한 치 이상을 짠 '한 앞' 부분에서 베를 짤 부분과 바디가 놓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북을 놓기 위해 날실을  $\angle$ 형태로 벌리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때문에 베를 짜는 작업의 능률은 북을 놓기가 어려운 한 앞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5~6cm에서부터 17~18cm를 짤 적에는 북에 모터를 달아 놓은 것처럼 속도가 빨라서 베 짜는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업이 절정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방금 짠 베의 3cm 아래쪽에 꽂혀 있는 최활은 베를 짠 맨 마지막 부분 위로 올린 다음, 미리 준비해둔 1m 이상의 긴 대나무 밀침대를 오른손에 들고 베틀의 앞쪽으로 쪽 밀어 도투마리의 아래쪽을 민다. 이때 선다리에 기대어 서 있던 도투마리가 쿵 소리와 함께 누운다리 쪽으로 넘어진다. 이와 같이 도투마리를 밀침대로 밀어서 쓰러뜨리는 것을

이곳 사투리로는 '앞 다빈다' 라고 하며,도투마리를 미는 밀침대를 이곳 사투리로는 다올대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왼손과 오른손은 북과 바디집을 번갈아 사용하며,이와 동시에 끝신을 한번은 끌고 한번은 미는 동작을 한다.명주 1cm를 찌러면 이러한 일련의 동작으로 날실(잉아울과 사울)과 씨실이 일대일로 교차하는 단위 동작을 16번 내지 17번을 반복해야 한다.베는 3cm 정도를 찌면 씨실이 날실 사이로 들어가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베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최활을 끝아 버티어 좌우의 폭이 바디 너비와 일치하게 조정한다.최활을 10회 정도 옮겨 놓는 사이에 명주는 30cm 정도 찌여지며,바디와 찌여진 명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북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

이 때가 되면 앓을개에 앓아있는 장인은 허리에 찬 부테를 풀고 개툽대 위에 얼마큼 짠 천을 둘둘 말은 다음,허리에 부테를 두르고 양 끝의 부테끈으로 개툽대의 양끝을 묶는다.천을 짠 양이 조금 많아지면 개툽대 위에 말코를 감고 그 말코 부분을 부테끈으로 묶어야 된다.이때 개툽대에 감긴 천은 가로목 쪽으로 길게 걸쳐서 전체적으로 ∟형태로 두는 것이다.

장인이 짚신으로 만든 끝신을 오른발에 신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그 동력이 신끈-신나무-용두머리-눈썹대-눈썹노라-눈썹끈-잉앗대, 속대를 지나 잉앗실에 전달되어 잉앗실에 걸려 있는 날실이 작동한다.신을 뒤로 당기면 잉앗실에 걸려있는 날실이 위로 올라가고 내밀면 아래로 내려간다.한편 잉아울과 사울이 교대로 교차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사침대에서 날실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비경을 거쳐 누름대가 한번 눌러준 다음 잉아와 바디집을 거치면서 날실이 X자형으로 교차되고 잉아울





짜여진 베를 개톱대에 감은 다음 부태끈을 다시 감는다.

사침대에서 비경이와 누름대, 잉아와 바디집을 거쳐 잉아울과 사율이 X자형으로 교차된 모습.





베를 짤수록 바닥의 뱀뎡이 숫자가 늘고 중간중간 쉴 때 도투마리는 눕혀 놓는다.

과 사울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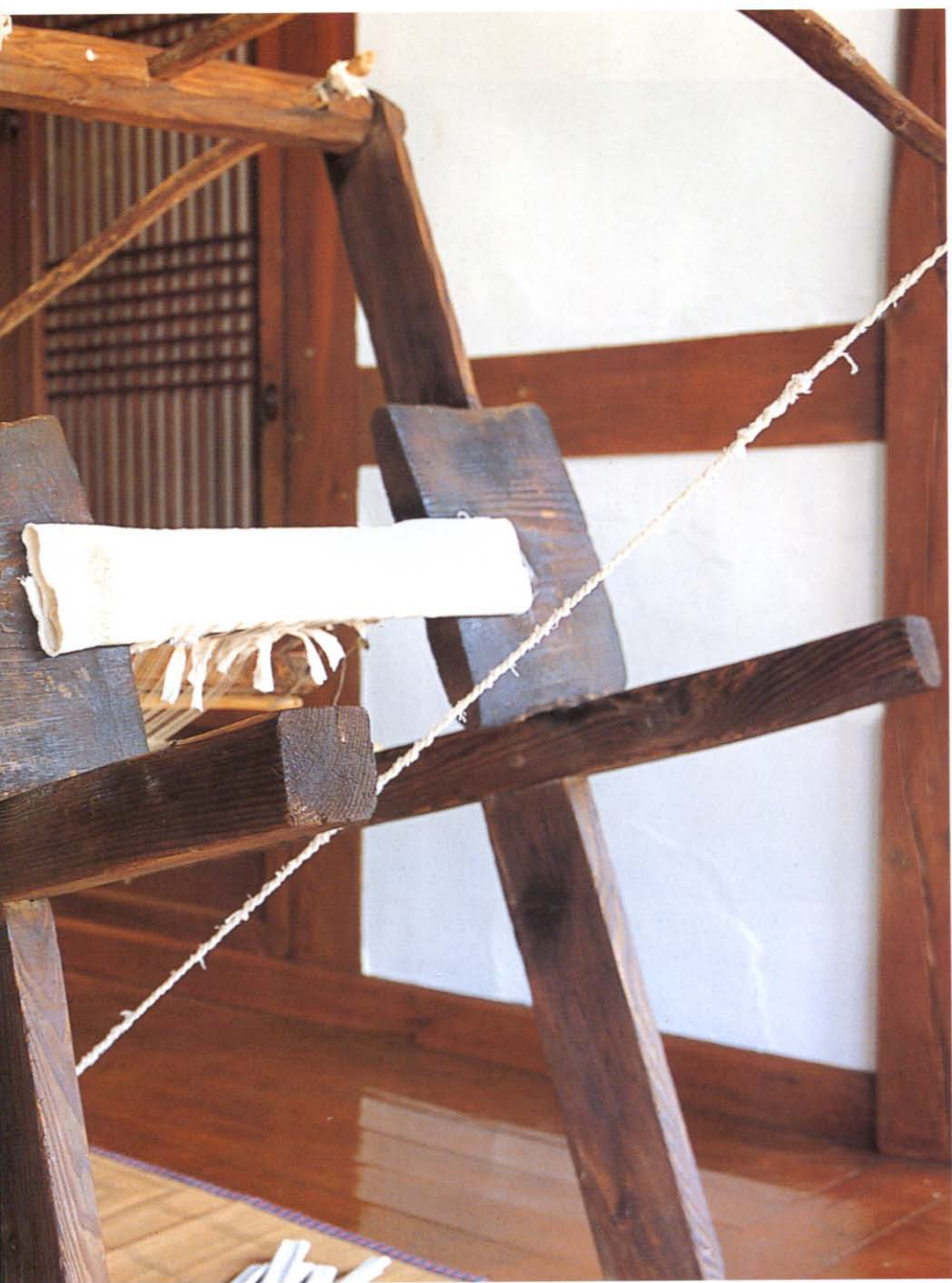
어느 정도 베를 짜고 나면 또다시 밀침대로 도투마리를 밀어서 넘어 뜨린다. 도투마리를 넘어뜨리면 날실이 앞으로 풀려 나오고 날실로 감아 놓았던 뱀뎡이가 도투마리에서 빠져 나와 신나무와 신끈을 따라 마루 바닥에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뱀뎡이의 숫자가 많을수록 베를 많이 짰다는 증거가 된다. 베를 짜는 사람은 이 뱀뎡이를 보고 자신이 얼마큼 더 짜야 명주 한 필을 완성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또 가끔 베 짜는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바닥에 깔려 있는 뱀뎡이를 보여주며 자랑을 하고 친구는 이것을 부러워한다고 한다.

장인이 베틀 위에서 베를 짤 때에 도투마리는 항상 선다리에 세워진 상태로 작업을 하지만, 짜지 않고 베틀에서 내려와 쉴 때는 도투마리를



최활을 끝는 부분에는 젖을개로 물을 묻히며 바디에 기름을 칠해서 북이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면서, 보름 이상을 편다.









베 짜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밀침대를 오른손에 들어 도투마리를 밀어 날실을 풀어준다.

눅혀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도투마리를 세워둔 채로 오랜 시간동안 베를 짜지 않으면, 그 부분의 날실이 힘을 받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태가 좋은 잘 짠 베는 날실의 긴장감이 항상 일정해야 하는데, 계속 짤 때 도투마리에서 날실이 풀어진 상태와 짜지 않은 채 당겨진 실의 상태는 달라진다. 따라서 장인이 베틀에서 내려올 때에는 도투마리를 밀어서 누운 다리에 눅혀두고 내려와야 한다.

잠시 쉬었던 장인이 다시 베를 짤 때에는 허리에 부테를 두르고 천이 짜진 부분에 말코를 감고 말코의 양쪽을 부테끈으로 단단하게 묶는다. 그러면 누운다리에 누워 있던 도투마리가 툭하는 소리를 내면서 베틀의 선다리에 세워지게 된다. 도투마리를 세운 장인은 날실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 베를 매끄럽게 잘 짜기 위한 독특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첫째, 짜야 할 베의 너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최활을 쏜다. 북에 담아 좌우로 옮기면서 넣는 씨실은 활처럼 둥글게 휘어서 넉넉한 양을 넣고 바디를 친다. 씨실을 둥글게 휘면서 넣는 이유는 날실에 씨실이 일대일로 교차될 때 일정한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북에 씨실을 넣고 바디를 쳐서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키면서 베를 짜다 보면 어느새 베의 좌우 폭이 줄어들기도 한다. 최활을 쏴 버터주면 북을 넣을 때 베의 좌우 폭이 일정해지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베를 짜다가 한 치(3cm) 정도 쌓이면 최활을 빼서 새로 짜야 할 위치에 옮겨서 쏜다. 장인은 한 필의 베를 짜는 동안 최활을 수백 번 옮겨 쏴면서 좌우의 폭이 일정해지도록 노력한다.

둘째, 바디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바딧살의 대나무에 기름칠을 해준다. 베를 한 자 정도 짜면서 바디를 수백 번 이상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두 올의 날실이 촘촘히 꿰어 있는 바딧살과 바딧살의 작은 틈

새에는 어느새 명주실의 찌꺼기가 묻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바닷살의 대나무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장인 자신의 앞쪽으로 바디를 눕힌 다음 종지에 들어 있는 기름을 손에 묻히거나 형겅에 적셔서 바닷살의 앞쪽과 뒤쪽에 쓱 발라준다. 손이나 형겅에 기름이 묻어 있는 여분의 기름은 바디 앞쪽과 잉아 사이의 짜야할 부분의 날실 전체에 한두 번 기름칠을 해 준다.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면 날실 위에서 바디를 칠 때 훨씬 매끈하게 움직이게 된다.

셋째, 베를 짜려는 부분에 습기를 주기 위해 젖을개로 물기를 칠한다. 소래기에는 맑은 물을 담고 붓처럼 생긴 젖을개를 그 속에 넣어둔다. 베를 짜다가 최활을 옮겨 꿸고 나서 최활 위쪽의 새로 짜야할 부분에는 물을 충분히 적신 젖을개로 문지른다. 이렇게 짜야 할 부분의 날실이 물기에 의해 축축해지면, 날실의 길이가 약간 늘어나고 부드러워져 씨실과 교차하면서 짜기 쉽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를 짜는 작업이 시작된다. 보유자는 돋보기를 쓰고 있지만 한 손에 북을 쥐고 날실 위에 던지자마자 다른 한 손으로 바디를 치는 등 베틀 위에서 취하는 하나하나의 동작은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하다. 오랜 세월 베틀을 벗삼아 함께 한 세월의 연륜이 녹아 흐르는 것이다. 20m 정도에 해당되는 40자 1필을 짜려면 이와 같은 행동을 5만 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sup>106)</sup>

북을 통과시키는 동작과 바디집을 치는 소리가 교대로 반복되면서 일정한 리듬이 생기고 그만큼 베 짜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진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힘들고 고된 일일수록 도리어 흥을 불어넣으며 즐기는

106) <지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씨실의 총길이는 33,600m인데 이것을 단위동작으로 나누면 71.2cm가 되어, 총 47,191회를 반복해야 한다고 계산해 내었다.

여유를 갖고 있었다.

안동 권씨 댁 백문기 씨가 적어서 가지고 있는 <베들노래>에는 이러  
한 장인의 심정이 잘 그려져 있다.

—생략

옥난간에 베들놓아 앞두다리 도아놓고  
뒷다릴랑 낮게놓고 도투마리 없어놓고  
구름에다 잉애걸고 두루명주 짜내보세  
안개 속에 앉은 품이 양귀비의 뉘이로다.  
짚신일랑 발에 걸고 북바디집 마주잡고  
부티허리 두른양은 매봉재라 높은봉에  
허리안개 두른 듯이 휘영청 감돌았다  
북이라 노는양은 피꼬리가 둥지찾아  
버들가지 넘나들 듯 바디집 치는양은  
해인사 절지을제 연목거는 소리로다  
잉엣대는 삼형제 눈썹대는 홀아비  
세모졌다 버기미는 올올이 갈아놓고  
눈썹노리 잠긴양은 강태공이 낚시대를  
위수강에 던지듯이 사치미라 갈린양은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 이별하듯  
밀침대 치치는양 정든임과 말다툼뒤  
그렇지도 앓으면서 등을 밀어 밀치는 듯  
가리새 저는양은 청룡황룡 굽니는 듯  
용두머리 우는양은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러기 짝을 잃고 벗부르는 소리로다.  
 도투마리 노는 양은 늙으신네 병일런가  
 심심하면 누웠어라 누웠다가 앉았어라  
 절로 굶은 신나무는 헌신짝에 목을매고  
 땡겼다가 물리서며 꼼짝없이 늙어간다.  
 말코대에 감은명주 초례청에 새아씨가  
 두손목을 감추는 듯 아금아금 저치받은  
 남원아전 이방이가 갈짓자 걸음걸이  
 오뉴월 삼복더위 명주한필 다짜내어  
 옛새삼베 고쟁이가 땀주머니 되었고다  
 액미간에 고인땀은 목땀으로 시냇물가  
 등에서 솟은땀은 안동포 낚은 적삼  
 갈기갈기 다적시고 살갗이 되었고다  
 허리에 감긴우리 후유하고 풀어놓고  
 은장도라 드는칼로 어석어석 끓어내어  
 은척에도 마흔자 늦척에도 마흔자  
 —이하 생략

이처럼 성주에서 전하는 <베틀노래>는 베틀을 놓고 베를 짜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베틀을 놀 곳이 없어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난간에 설치 하며, 베틀의 두 다리 중에서 앞다리는 높게 돌아 세우고 뒷다리는 낮게 놓은 다음 잉아를 걸어서 명주 짜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앉을개에 높이 앉은 모습이 마치 안개 속의 양귀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짚신을 신고 북과 바디집을 양손에 각각 하나씩 잡은 다음 허리에 부테를 둘러는

데 높은 봉우리의 중간 부분을 안개가 감싸고 도는 형용이었다. 북 안에  
는 비단실 꾸리가 담겨 있어서 찌꼬리가 등지를 찾는 듯 보이며, 바디집  
을 움직일 때마다 탁탁 치는 소리는 해인사를 지을 때 연목을 거는 소리  
와 같다고 느꼈다.

베틀의 부속품인 잉앗대는 세 개가 삼형제와 마찬가지로인데, 잉앗대가  
걸리는 눈썹대는 각각 하나이기 때문에 홀아비로 비유하였다. 세모 기둥  
형의 비경이(버기미)는 낄실과 낄실을 올올이 갈라놓는 기능이 있음을  
관찰해 내었다. 눈썹대에 매달린 눈썹노리가 내려뜨려진 모습은 강태공  
이 낚시대를 강물에 던지는 듯하고, 이 낄실을 사치미가 갈랐는데 서로  
엇갈리는 모습은 칠월칠석날에 견우와 직녀가 이별하는 듯이 의인화하  
였다. 베의 한 앞을 짜고 나서 밑침대로 도투마리를 미는 것은 마치 정든  
임과 말다툼을 하고 난 뒤 등을 떠다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를 짤  
때 용두머리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는 새벽에 외기러기가 짝을 잃고 벗  
을 부르는 듯이 묘사하였으며, 도투마리가 누웠다 세워졌다 하는 모습은  
늙은이가 병이 들어 누웠다가 심심하면 앉았다 하는 모양으로 비유하였  
다. 용두머리에 걸린 신나무는 둥글게 휘어 있는데 그 끝에는 흰 쥘신짝  
이 매달려 있어서 베를 짤 때마다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하면  
서 잉아 사이의 낄실을 벌리게 되어 있다. 바디집 앞에 피륙은 말코에 둘  
둘 감겨 있어서 마치 초레청에서 혼인을 하는 새아씨가 흰 한삼 속으로  
두 손을 감춘 형상이며, 베 앞에 꽃힌 최활(칫발)은 3cm를 짤 때마다 앞쪽  
으로 옮겨 꽃기 때문에 남원 관청의 이방이 갈짓자로 걷는 것으로 묘사  
하였다.

오늘월의 따가운 삼복더위를 몇날 며칠을 참으며 베틀 위에 앉아서  
명주 한 필을 다 짜게 된다. 그러면 굵은 삼베옷에 땀이 가득 차고 이마

에도 땀이 고여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시냇물을 이룰 정도이다. 등에 서도 땀이 솟아 안동포로 지은 낡은 삼베가 땀에 젖어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이 때쯤 허리에 감아둔 부테를 풀고, 은장도로 베를 끊어내면 마흔 자 한 필의 명주를 다 짠 것이다.

이렇게 길고 긴 노래를 풀어내며 절로 흥을 맞추다보면 어느새 명주는 다 짜여진다. 성주의 안동 권씨 댁에서 전해지는 <명주짜기> 노래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명주를 짜는 장인의 깊고 넉넉한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명주 한 필을 짜기 위해서는 보름 밤낮을 꼬박 베틀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실제 베를 짜는 작업은 꼼꼼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보유자들이 부를 수 있거나 부르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노래를 들음으로써 힘겨운 명주 짜기의 고됨을 이겨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성주 지방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베틀노래>는 명주를 짤 때 장인들의 심정을 잘 그리고 있다.

“월궁에 노던선녀 /노자하니 심심하야  
 금수한필 잘라하니 /베틀없어 못짜겠다  
 서울이라 다달아서 /도대목을 잡아다가  
 달가운데 계수나무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비어내어 /동쪽으로 뵈은가지  
 굵은나무 굵다듬고 /얇은나무 잣다듬어  
 얼른뚝뚝 베틀을 /베틀한쌍 걸었더니  
 좌우를 둘러봐야 /베틀놀데 전혀없네  
 옥난간이 비었거늘 /옥난간에 베틀놓아

배틀다리 돈우놓고/앉을개라 더저놓고  
 배오리라 가는양은/뒷동산 왕거미가/줄을쳐서 터진듯고  
 부티라 두린양은/용문산에 실안개나/두린듯고  
 말코라 차인양은/우빙사 자빙사에/패동개나 차인듯고  
 잉엣대 노는거는/청도황도 손에들고/  
 짐장군 노는데와/이무용두 나는듯고  
 바디집 치는소리/백옥산 깊은골에/벽력으로 우린듯고  
 북이라 나돈양은/벽랑강에 금오리가/알을품고 나른듯고  
 지질개라 치는양은/하늘에 나돌아/비오는날 시월이라  
 최활이라 가는양은/남산에 무지개가/북해로 이은듯고  
 버기미라 누운양은/거우에 앉은임이/낭군에 자위하고  
 눈섭대 노는양은/홍문연에 높은잔치/칼춤추는 자색아요  
 칠그신 나돈양은/영금에다 옥을매어/지두방에 나는듯고  
 고다눈살 놀부대는/강태공의 뉘싯댄가/뉘시에다 피운듯고  
 용두머리 우는양은/쌍기러기 외기러기/짹을읽고 우는듯고  
 도투마리 누운양은/구월이라 광중에/위디죽은 무덤걸고  
 배비라 드는양은/구시월 시단풍에/떡가랑잎 드는듯고  
 금수한필 다쫓더니/은장두라 드는칼로/어리설빅 목을비어  
 반달길은 큰술에다/어리설적 삶아다가  
 뒷넷물에 씻어다가/앞넷물에 행귀내어/백설같이 바랬더니  
 킁킁한 그몸밤에/앞치마를 지었더니  
 혼술없이 지너다가/용우줄에 걸어놓고  
 입어보자니 몸때묻고/만져보자니 손때묻어  
 들며보고 날며보고/눈살맞아 다 떨어진다."<sup>107)</sup>



위 노래는 성주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베틀노래>로서 베틀에 걸고 비단을 짜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맨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비단을 짜려고 하는데 필요한 베틀을 마련하는 것부터 비롯한다. 베틀을 만들 목수(도대목)를 불러다가 계수나무를 옥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베어, 벌은 가지와 굵은 나무를 다듬어서 베틀을 만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비어 있는 난간에 놓아두었다.

이후 베를 짜기 위해 설치한 여러 부속품의 형상과 움직일 때의 상태 등은 베틀 뒷쪽부터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실감나게 묘사해내고 있다. 베틀의 뒷다리에는 앞을개를 던져놓고 그 위에 베율이 쌓이는 모습은 마치 왕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직녀의 허리에는 부테를 두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용문산에 실안개가 깔린 듯 표현하였으며, 부테끈에는 말코의 좌우를 묶어 마치 동개를 찬 것과 같은 형상인 것이다.

잉앗대는 위쪽에 2개와 아래쪽에 한 개가 놓여 모두 3개가 있는데 이 잉앗대가 움직이는 것은 청도와 황도를 손에 들고 짐 장군이 노닐면서 이무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더욱이 베를 짜기 위해 앞뒤로 바디집을 치는 소리부터 이하의 문장은 대단히 문학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다. 바디집 속에 들어가 있는 바디는 앞뒤로 베를 칠 때마다 찢거덕 소리가 나는데, 명주베를 짜고 있는 상태의 흰 천은 백옥산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바디집을 옮겨 치는 것은 깊은 골짜기에 벼락이 치는 듯하다고 여겼다. 나머지 한 손에 켜 붙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날렵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북 안쪽에는 하얀 씨실용 꾸리가 담겨진

107) 임동권, 『한국민요집』 3(집문당, 1975), 122-123쪽. 베틀요 7. (성주지방)

채 날실 사이에서 울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모습을 마치 맑은 강에 금빛 오리가 알을 품고 날아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편 바디집을 치고 북을 울려 베를 어느 정도 짠 다음에는 젖을개(지질개)로 물을 적셔서 발라야 신축성이 생겨서 베를 짜기 쉽다. 때문에 젖을개로 바르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긴다. 아울러 베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둥글게 꽃는 최활은 마치 남산의 무지개가 북해로 이어간 듯 보인다.

날실과 날실의 사이를 벌릴 때 집어넣는 비경이(비기미)가 마치 누워 있는 것처럼 놓인 상태에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낭군을 위로하는 듯이 보였다. 그 앞쪽에 놓인 눈썹대는 용두머리에 걸려 상하로 움직이는데 그 모습 또한 홍문연에 설치한 높은 누각에서 잔치를 벌일 때 칼춤을 추는 듯한 자태로 비유하고 있다. 이 눈썹대에 묶인 눈썹노리의 실끈은 엉금에다 옥을 매어 지두방에 나는 듯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개의 눈살이 용두머리에서 앞쪽을 향해 움직이면서 노니는 모습은 강태공이 낚시를 하기 위해 드리운 낚시대와 같고 움직임은 낚시를 할 때처럼 느끼게 한다.

베틀의 중심을 이루는 용두머리 위의 한쪽에는 잉아를 양쪽에서 걸어 올리는 2개의 눈썹대가, 다른 한쪽에는 끝신을 매달아 둔 신나무가 꽃혀서 리드미컬하게 작동하면서 소리를 낸다. 여기서 2개의 눈썹대는 쌍기러기로 생각하고 1개의 신나무는 외기러기로 보아, 끝신에 의해 신나무를 움직여 용두머리가 돌아갈 때 맞은편의 눈썹대가 위쪽으로 들리면서 내는 용두머리의 소리를 마치 기러기들이 우는 것처럼 묘사해내었던 것이다. 용두머리 아래 베틀 앞 쪽의 선다리 쪽에는 도투마리를 세워 두는데 그 움직임은 베를 짜지 않을 때에는 누워 있다가 베를 짤 때는 선다

리에 둘러볼게 된다. 이렇게 베를 짤 때마다 도투마리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9월 추위에 얼어죽은 사람의 무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서 있던 도투마리가 누우면 그곳에 갇혀 있던 여러 개의 뱀뱀이가 베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습은 9월과 10월에 든 단풍이 가랑잎처럼 떨어지는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다. 베틀에서 베를 짤 때 이렇게 뱀뱀이가 여기 저기 떨어져 바닥에 수북해지면 어느새 한 필의 비단을 다 짤 것이다.

비단 한 필을 다 짜면 은장도와 같이 잘 드는 칼로 바디 앞쪽을 어석어석 베어내는데, 이 또한 마치 목을 베는 듯이 나타내었다. 베틀에서 끊어낸 생명주는 반달같이 큰 술에 넣고 푹푹 삶아서 뒷쪽의 맑은 시냇물에서 풀기를 씻어내고 앞냇물에서는 갯물을 행귀내서, 햇볕에 말리면 흰 눈처럼 하얗게 바래면 익명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익명주를 잘라서 감감한 그믐밤에 앞치마로 지어내고 할 일 없이 지냈다가 햇대에 걸어 놓고 입으면 몸땀 묻고 만지면 손땀 묻기에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저 눈으로 바라만 보았는데도 다 떨어졌다는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주 지방에 전해지는 <베틀노래>를 통해 한 필의 베를 짜는 생생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북이 장인의 손을 떠나 날실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또 다른 한 손으로 바디집을 들고 쳐주고, 이제 북을 다시 날실 사이에 넣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날실과 씨실이 일대일로 교차된다. 2개의 올이 명주로 짜는 기본 단위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본 단위를 통해 살펴 본 결과 마흔 자 1필을 쉬지 않고 짤 때 걸리는 총시간은 25시간 21분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사람이 잠시도 쉬지 않고 베를 짤 수는 없다. 명주베를 짜는 동안에는 명주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바디살을 통과하면서 날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을 잇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어떤 날은 베를 짜는 시간보다 떨어진 날실을 연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버린다. 끊어진 날실 중 잉아울과 사울을 찾아 잉아와 바디에 끼우고 나서 이어야 할 날실에 풀을 조금 묻힌 후 눈썹노리 끝에 매달린 숨을 뜯어 함께 비벼서 엮는다. 간혹 끊어진 날실의 길이가 짧아져 있으면 피륙 위에 바늘을 꽂아 연결하기도 한다. 아울러 3cm를 짤 때마다 최활을 옮기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젖을개를 칠하거나 말코를 감거나 밀침대를 미는 등 30여 가지의 부속품을 이리저리 운용할 때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다.

이런 시간은 베를 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여유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 여유시간은 베를 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또는 사고 등으로 부득이 소요되는 시간이다. 한 필을 짜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시간 21분 정도였다면, 준비작업이나 수정하고 고치는 등에 소요되는 여유시간은 10시간 7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직조시간과 여유시간을 합치면 한 필의 열넉 새 명주베를 짜려면 아무리 빨라도 35시간 28분이 소요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명주짜기의 종목을 지정하기 위해 조사한 1987년에 기계적으로 측정한 시간에 비해 2002년 현재의 작업속도는 두세 배 이상 더 걸렸다. 이미 조옥이 보유자의 연세가 여든을 훌쩍 넘긴 상태이고, 곁에서 보유자를 도와주는 두 동서들도 일흔을 훨씬 넘겼기 때문이다.

베틀에 올려 쉬엄쉬엄 명주를 짜기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 드디어 한 필의 명주가 짜여졌다. 베매기작업이 시작될 적에 날실을 알맞은 너비로 벌려서 도투마리서 잡아 매어둔 참톱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다. 베를





한 필을 다 짜면  
부대는 아직 맨  
채, 날실을 걸어  
두었던 바디 위  
의 바디짐을 벗  
기고자 바디끈  
을 풀고 마구리  
쇠도 뺀다.



최활이 꽃혀 있  
는 상태로 가위  
를 들고 한 필의  
명주베를 베어  
낸다.



바디와 잉아, 누  
름대와 비경이,  
사침대를 모두  
빼고, 도투마리  
에 묶어둔 참뚝  
대에 걸쳐 있는  
'참뚝'이라 부  
르는 명주실끝  
을 끈 채로 빼낸  
다.

다 짤 뒤 피륙 끝에 남은 날실은 참톱실(톱실)이라 한다. 명주를 다 짜서 풀어내는 작업도 두세 명이 옆에서 거들어야 한다. 보유자가 베틀에 앉아 한 필의 명주를 다 짜고 나면, 허리에 두른 부테는 그냥 놔 둔 채 씨실을 넣고자 좌우로 던지던 복을 소반 위에 내려놓는다. 다음으로 날실 위에 걸어 두었던 바디집에서 실끈을 풀고 마구리쇠를 빼서 바디집과 바디를 분리한다.

바디에서 바디집을 빼낸 다음, 조옥이 보유자는 다 짤 명주를 살펴 하여 흠이 없는지 유심히 보는데 이러한 할머니의 눈길에서 철저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보유자는 잘 드는 가위를 들어 베의 끝쪽 날실을 조심스럽게 끊어내고 두 동서는 양쪽에 앉아 베어낸 베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다. 보유자는 끊어낸 베를 말코에 둘둘 감고, 말코에 묶은 부테끈을 푼다. 허리에 두른 부테를 풀어서 잘 간추려 둔다.

이처럼 베를 끊어내고 나서는 베를 간추리고 베를 짤 때 넣어 감았던 말코와 개톱대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말코에 감아 둘둘 감아두었던 베를 다시 감기 시작하는 것이다. 날실에서 끊어낸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둘둘 말면 말코에 감아두었던 베가 술술 풀려 나오게 된다. 한 필 마흔 자를 한꺼번에 되감는 작업인데, 거의 다 감으면 베를 짜면서 감아두었던 말코가 나오게 되므로 이 말코를 빼낸다. 완전히 다 감으면 맨 처음 부테끈에 묶었던 개톱대에 묶인 '개톱'이 나온다. 물론 이 부분은 베 날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열넉새에 해당되는 끈으로 묶어 두었던 바로 그 가장자리 부분이다. 개톱대에 연결된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완전히 감으면 둘둘 말린 명주베의 직경은 12~15cm 정도가 된다. 이 베는 채반에 담아 맑은 물에서 세탁할 준비를 하고, 베에서 빼낸 말코와 개톱대는 잘 간추려서 다음번 베 매기와 베 짜기를 할 때 꺼내어 다시 사용

한다.

한편 두 동서는 베를 다 짜고 난 베틀을 분해하는 중요한 작업을 한다. 베를 끊어낸 베틀은 베를 짜기 위해 올려 두었던 30여종의 부속품과 각종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베틀에서 내리고 분리하는 것이다. 베틀을 분해하는 방법은 베틀을 조립할 때와 반대의 순서이지만,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린다. 베를 끊을 때 베틀의 양쪽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이제 마주 서서 한 사람은 날실을 빼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날실이 들어있던 부속도구를 챙기는 것이다. 날실을 챙기는 사람은 날실이 꿰어있던 바디와 잉아와 누름대와 비경이에서 차례로 날실을 빼내면, 다른 사람은 꿰어있던 날실을 뺄 때 바디가 바닥에 놓이도록 하고 잉앗대는 눈썹대에 잘 걸어둔 다음, 누름대를 치우고 비경이와 사침대를 빼서



비경이, 바디, 용두머리, 도투마리, 뱀땡이 등 베틀에 관련되는 30여 가지의 부속품을 분해한다.





분해한 베틀의 부속품은 다음 베를 짤 때 사용하기 위해 잘 정리해 둔다.

잉아에 건 잉앗대의 실은 차근차근 풀어 감아두었다가 다음에 잉아를 걸 때 사용한다.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낱실을 빼고 도구를 챙긴 두 사람이 베틀의 선다리 앞쪽으로 와서 서면, 도투마리의 참톱대에 열네 개의 끈으로 80 가닥씩 묶어둔 참톱대가 보이고 여기에 묶여있던 '참톱(톱실)'에 해당되는 낱실이 남아있게 된다. 1~2m 정도로 길게 남겨진 참톱실은 실끈이 묶인 채 일일이 빼내고, 참톱대는 바닥에 내려놓는다.

베틀에서 베를 끊어내고 낱실까지 제거하고 도투마리까지 바닥에 내려 놓으면 베틀의 부속품은 분해된 것이다. 바닥에는 수십 개의 뱀땀이가 쌓여있고, 부테와 개톱대와 말코, 바디, 누름대, 비경이, 사침대, 참톱대, 도투마리 등이 베틀에서 분리된 채 바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분리된 부속품은 30여 가지로서 모두 다음에 베를 짤 때 사용하기 위해 잘 간추린다. 베를 짜는 장인에게 베틀은 자신의 분신과 같다.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모두 소중한 것이므로 베틀에 올려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분리하여 보관해두어야 한다. 조옥이 보유자나 이규종 조교는 명주 짜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십여 개의 바디와 북을 간직하고 있었다.

베틀에서 분해된 부속품을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둔 다음, 눈썹대의 눈썹노리에 묶어두었던 잉아를 내린다. 잉아를 걸기 위해 끼워 두었던 잉앗대 세 개를 뺀다. 맨 마지막으로 매듭지었던 잉앗실의 실마리를 찾아 잉아 매듭을 풀면서 돌돌 감기 시작한다. 이렇게 감은 잉아실은 다음에 베를 짤 때 다시 잉아를 매는데 사용하기 위해 둥근 모양으로 잘 감는다.

베틀의 완전한 분해는 베를 짜기 위해 올리는 부속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베를 다 짜고 나서 다음 베를 짤 때까지 베틀에 끼워둔 앞뒤다리 등을 빼내어 베틀의 기본 골격조차 분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

기 위해 잉아를 제거하고 눈썹노리까지 뺀 눈썹대를 용두머리에서 분리시킨다.다음으로 짚신을 묶어둔 신끈을 푼 신나무도 용두머리에서 분리한다.그런 다음 용두머리를 내리고 앉을개도 바닥에 놓고 누운다리에 서 가로목을 빼고 선다리와 뒷다리까지 차례차례 분해하는 것이다.그러면 베틀의 기본 골격은 물론이고 형태조차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오직 굵고 가늘고 길고 짧은 수십 개의 나무토막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저히 분해시킨 베틀은 방 한 구석이나 공간에 세워 놓았다가 다음에 베를 짤 때 다시 처음부터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해가 끝나고 베틀에서 끊어낸 베는 생명주이다.생명주는 베를 땔 때 쌀풀과 콩즙이 발랐기 때문에 뽀뽀하게 풀기가 먹여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깔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늦봄과 초가을용의 옷감으로 사용된다.

다 짜서 채반에 올린 생명주는 베 매기를 하기 위해 바른 콩즙과 풀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맑은 개울물에서 땀다.개울에서 생명주를 빨고 나면 생명주 위에 바른 노란 콩즙물과 풀기가 대충 빠져 나오게 되고,여러



베틀에서 끊어낸 완성된 생명주 한 필



한 필의 명주를 흐르는 맑은 물에서 뻥다.

양지 바른 마당에 널어서 말린다.



차례 빠는 동안 개울물에는 누런 물이 흘러 내려간다. 빨기를 마친 생명주는 집에 가져와서 양지 바른 곳에 세워둔 빨랫줄에 넓적넓적하게 펼쳐 널어서 고슬고슬하게 잘 말린다. 생명주 상태로 그냥 두면 풀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가 끼어 보관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생명주의 풀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잣물에 삶아 익명주를 만들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 7. 정련(整練)하여 익명주 만들기

생명주를 빨아 어느 정도 마르면 잣물에 삶아 익명주를 만들어야 염색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옷도 만들 수 있고 보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주를 익명주로 만드는 것은 『천공개물』에도 간략하게 실려 있다. 명주를 짜더라도 실은 여전히 생사이며, 삶아야 고와진다. 삶을 때는 벗짚 잣물을 쓴다. 생명주를 부엌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더운물로 삶아 빨면 눈부시게 윤이 난다. 생명주에 사용한 날실과 씨실의 종류에 따라 삶고 나면 3/10이나 2/10이 줄어들므로 삶은 후 더운물로 빨아 세게 당기면서 햇볕에 말리고 매끄럽게 한 큰 대합조개 껍데기로 온 힘을 다해 문지르면 직물이 광택을 띠게 된다고 한다.

조옥이 보유자의 표현에 의하면 명주는 다 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잣물 삭이기'를 하는 것이 무명이나 모시와는 다르다고 한다. 짚을 때서 짚 잣물을 만들어 그 잣물을 걸러서 소쿠리 같은 데다 놓고 천을 넣어 삭여 내면 옷감이 하얗게 변한다는 것이다.

익명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잣물을 만들어야 한다. 다 마른 명주



를 삶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입이 넓은 자배기 두 개와 시루, 나무로 만든  $\angle$ 자형 찻다리를 준비하고, 맑은 물 한 동이와 바가지, 그리고 벚짚 두서너 단 및 단불로 뿔 뿔나무 가지도 한 두 단 마련해 두고 벚짚재를 풀 부삽도 마련한다.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 옆에는 다 마른 생명주를 담아둔 광주리와 이것을 뒤적일 수 있도록 길이가 긴 대나무 막대도 준비해야 한다.

제일 먼저 재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아궁이 옆에는 두세 단의 벚짚을 가져다놓고 가마솥에는 물을 가득 부어 담는다. 아궁이에 벚짚만 넣고 불에 태워, 솥 안의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벚짚을 여러 차례 아궁이에 넣고 계속 댄다. 2~30분 동안 벚짚을 넣고 불을 때면 아궁이에는 벚짚 재가 소복해지고, 가마솥 밖으로 김이 서려 나오고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눈물 같은 물방울이 맺혀 솥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규종 조교가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솥의 물을 끓이는 동안, 조옥이 보유자는 부뚜막 위에 앉아 냇가에서 빨아 풀기를 어느 정도 없앤 생명주를 살펴본다.

찻물을 만들기 위해 우선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아궁이에는 벚짚만 넣고 불을 붙이고, 솥 안의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벚짚을 여러 차례 아궁이에 넣고 댄다. 솥 밖으로 김이 서려 나오고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 때는 것을 멈추고, 자배기 위에 찻다리를 놓고 시루를 얹는다. 이 때 불을 끄고 3~5분 정도 기다려 재가 식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첫 번째 자배기 위에  $\angle$ 형으로 생긴 찻다리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시루를 얹는다. 시루의 안쪽 바닥에는 재를 거르기 위해 삼베나 무명베로 만든 천을 넣기도 하지만, 현재 보유자와 전수조교는 삼베나 무명베 대신 생벚짚을 사용하고 있었다. 물에 적셔서 깨끗하게 만든 벚짚을 반

쥼 꺾어서 자배기의 안쪽에 구겨서 꺾꺾 눌러 넣는다. 벧짚을 물에 적셔 야 탄성이 생기고 구겨 넣어도 바스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을 끈 재에 약간의 불기운이 남아 있을 때 부삽으로 아궁이에 쌓인 재를 퍼 담는다. 부삽으로 푼 재는 약간 빨간색의 불꽃을 띠고 있어서 아직 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삽으로 퍼 담은 재는 시루 안 쪽 바닥에 벧짚이 깔려 있는 곳에 붓는다. 맨 처음에 재를 부으면 물에 젖은 짚에 재의 불기운이 닿으면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온다. 자배기에 재가 가득 담겨야 하므로 삽으로 푸는 것도 십여 차례 이상 반복한다. 삽으로 재를 퍼 담을수록 아궁이 속의 재는 점점 줄어들고, 자배기에는 재가 가득 담기게 된다.

부삽으로 벧집재를 계속 퍼 담는 것을 반복하여 시루 가득 소복히 담게 되면, 이제 잣물을 내릴 차례이다. 시루에 재가 가득 담기면,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가마솥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연다. 바가지로 팔팔 끓는 물을 퍼서 재가 담긴 시루에 붓는다. 물은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데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울러 물이 시루 밖으로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바가지로 푼 첫 번째 물을 부으면 재에 남아있는 불기운에 물이 닿기 때문에 “치익~”하면서 불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럽게 한 바가지를 재 위에 부으면, 시루에서 자배기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 부었을 때에는 자배기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 “똑~ 똑~” 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가마솥 안에 가득 담아 끓고 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시루 위의 재에 계속 붓는 것을 반복한다. 그러기를 되풀이 하다보면 어느새 시루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많아져 “팔팔” 소리와 함께 시루에서 자배기로 쏟아져 내려온다. 가마솥의 물을 바가지로 퍼 나르는 십여 차례 이상



시루와 자배기를 준비한 다음 재를 받기 위해 아궁이에 뱃짚을 태우고 가마솥에 물을 부어 끓이면서 빨아말린 생명주를 살피본다.





자배기 하나에 찻다리를 올리고 그 위에 시루를 얹은 다음, 시루 안쪽에는 벼짚을 구겨 꺾꺾 눌러 놓는다.

아궁이에서 태운 벼짚재의 불꽃이 아직 남아있을 때 시루 위에 퍼 담는다.







바가지로 가마솥의 펄펄 끓는 물을 여러 차례 퍼서, 재 위에 가득 붓는다.

하면 자배기에 노란 잿물이 가득 담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누런 잿물이 주룩주룩 떨어져 자배기를 가득 채우게 되면 물 붓기를 그친다.

첫 번째 자배기에 잿물이 가득 담기면, 잿물을 한번 더 부어 맑게 거르는 작업으로 넘어간다. 잿물을 거르기 위해 두 번째 자배기를 준비해 놓은 다음 첫 번째 자배기 위에 올려놓았던 찻다리와 시루를 한꺼번에 번쩍 들어서 두 번째 자배기 위에 옮겨 놓는다. 이제 첫 번째 자배기에 걸러 내린 잿물을 바가지로 퍼서 두 번째 시루 위에 퍼붓는다.

이렇게 시루 위의 재에 처음에 만들어낸 잿물이 담긴 자배기의 물을 다시 부으면 잿물이 걸러지게 된다. 한번 거른 잿물은 노랗고 잿물기가 강해 거센 데 비해, 이와 같이 두 개의 소래기를 아래에 놓고 찻다리와 시루를 옮겨 만든 잿물은 비교적 그 색상은 맑아지게 된다. 두 번째 자배기에서 걸러낸 잿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잿물의 색깔이 맑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잿물의 표면이 부글부글 끓으며 거품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잿물을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찻다리와 시루를 내려 놓고, 자배기에서 부글부글 끓는 잿물을 바가지로 퍼서 가마솥에 들이부은 다음 생명주를 삶는 작업으로 전개된다. 이때 아궁이에서 태울 불은 달고 열이 높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은 화력이 센 것을 선택해야 한다. 불이 쉽게 났다가 쉽게 사그라드는 땔짚 대신 불이 팔게 오래 타도록 뽕나무의 줄기와 가지 등을 넣고 태운다.

불을 지필 뽕나무의 가지 등은 보유자의 안 마당 맞은편 창고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매년 누에를 키울 때에 뽕잎을 따서 주는데, 누에가 자라면서 주어야 하는 뽕잎의 크기가 달라진다. 어린 누에일 때에는 어린 뽕잎을 하나씩 따서 일일이 잘게 썰어주는데 비해, 한달 정도 뽕잎을 먹



첫 번째 자배기 위에 얹은 찻다리와 시루를 두 번째의 빈 자배기로 들어 옮긴다.





맑은 갯물로 거르고자 두번째 자배기 위에 얹은 시루에 첫 번째 자배기의 갯물을 퍼 붓는다.



여 키운 4령 누에나 5령 누에는 대단히 먹성이 좋기 때문에 일일이 뽕잎을 따서 줄 시간이 없으므로 뽕나무 가지 채 베어다가 먹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뽕나무를 가지 채 잘라다 주어도 누에는 여전히 뽕잎만 먹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은 뽕나무 가지 등은 창고에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모아둔 뽕나무 가지를 벗짚 대신 뽕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벗짚은 너무 가벼워서 불을 때다보면 작은 바람에도 훨훨 날아 다녀 정성껏 짠 명주 옷감에 지푸라기 등 더러운 티끌이 묻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명주를 만들고자 누에를 키우면서 베어다 먹인 뽕나무 가지를 때는 것은 바로 주변의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활용하는 지혜가 엿보인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만든 고치실로 짠 생명주를 뽕나무 가지로 불을 지핀다는 것에서 모든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동양적인 사고방식도



두번째 자배기에서 걸러낸 잿물은 부글부글 거품이 이는데, 이 잿물을 가마솥에 들이붓는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잣물이 끓으면 생명주 한  
필을 빠른 속도로 집어넣는다.



아궁이의 불을 달구고자 뽕나무 줄기를 때며, 술  
안의 명주를 이리저리 뒤적여준다.

파악하게 된다. 더욱이 생명주에서 익명주를 만들면서 이제는 뽕잎과 뽕나무 가지까지 다 태운 재는 뽕나무밭에 거름을 주어, 다음해에 다시 뽕나무에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만들고자 함이다. 자연에서 나고 자란 것을 원래 그 자연이 난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옛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뽕나무 가지를 알맞은 굵기로 베어서 모아 둔 것을 잘게 꺾어서 땀값으로 사용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가마솥의 잿물이 팔팔 끓으면서 잿물에서 생긴 거품이 부글거리면 광주리에 담아둔 생명주를 펴서 빠른 속도로 솥에 넣는다. 생명주와 뜨거운 가마솥이 직접 닿으면 명주가 상하기 때문에 대나무 막대로 계속 휘저으면서 스무 자, 혹은 한 필의 명주



솥 안의 잿물이 끓을 때 막대로 천을 뒤적이면 생명주에 노랗게 남아있는 콩즙과 풀기가 빠진다.





불 때는 것을 멈추고 부뚜막에 자배기를 올린 후, 잿물에 삶아진 익명주를 솥에서 꺼낸다.

자배기 채들고 냇가로 가서 방망이로 익명주를 두드려 콩즙물과 잿물을 없앤다.





를 계속 넣는다.

명주가 가마솥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을 조금 식히기 때문에, 물을 더 팔팔 끓여 명주를 잘 삶아 내기 위해 아궁이에는 계속 뽕나무 가지를 넣는다. 잿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솥에 넣은 명주를 대막대로 열심히 휘저어 준다. 자칫 생명주가 솥 바닥에 닿아 누렇게 변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솥 안쪽에 들어 있는 명주를 뒤적이는 것이 중요하다. 팔팔 끓으면 천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일부 건져서 잘 삶아졌는지 살피기도 한다. 다 끓고 나면 생명주를 물에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콩즙이나 풀기도 다 빠지게 된다. 명주의 색깔이 하얗게 바래진 것을 볼 수 있다.

잘 삶아졌는지 살피면서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것을 멈춘다. 솥에 넣은 천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자배기를 솥에 바짝 가져다 대고 부뚜막에 있던 보유자와 불을 때던 전수조교가 함께 대막대를 들고 가마솥에서 명주를 건져낸다. 명주는 뜨거운 물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매우 무겁다. 때문에 명주를 솥에서 건질 때 자칫 뜨거운 솥이나 불길 이 센 아궁이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대막대를 휘저으며 빠르게 건져 자배기에 담아낸다.

다 건져낸 명주는 자배기 채 넣어 머리에 이고 집 앞을 흐르는 냇물로 향한다. 명주를 빨아 잿물을 빼기 위해서이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자배기를 내려 놓고, 명주천을 집어 맑은 물에 담그면 부글거리는 거품과 함께 노란 콩즙물과 희뿌연한 잿물이 빠져 나온다. 손으로 주물러 잿물을 어느 정도 뺀 명주에서 잿물이 더 잘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둔 빨래 방망이로 힘껏 두드린다. 두드리면 명주 안에 들어있던 잿물을 비롯하여 노란 콩즙물이 빠져 나와 맑은 물을 뿌엇게 흐

린다. 여러 번 두드리면 표면이 누굴누굴해지면서 흰색이 된다. 물에 담가 몇 차례 헹구고 빨아서 깨끗한 물이 나온 명주는 꼭꼭 짜서 광주리에 건진다.

빨래를 마친 익명주는 하얀 색깔로 반짝이며, 생명주일 때의 뻗뻗함이 나 거친 느낌이 없어지고 대신 부드럽고 매끈하다. 다만 끓는 물에 삶고 빨래 방망이로 두드렸기 때문에 구김이 많은 편이다. 이런 익명주를 양지 바른 마당의 빨랫줄에 넓고 가지런하게 펴서 말린다.

## 8. 익명주 다듬질하기

이렇게 생명주를 녹여 만든 익명주는 용도에 따라 풀 먹이기를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기도 한다. 마당에 널어 말린 명주천을 걷어 채반에 담아 놓고, 풀을 썰어 준비한다. 명주천과 풀과 물이 마르면, 명주천이 가득 담길 정도로 큰 자배기를 옮겨와 풀을 붓는다. 자배기에 담긴 풀의 양은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며, 이 풀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 손을 집어넣어 물과 풀을 알맞게 섞는다. 여러 번 주물러 물과 풀의 양이 적당하면 풀을 먹일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다.

채반 위의 천은 그 끝 자락을 잡고 펼치면서 풀이 담긴 자배기에 넣는다. 자배기에 넣을 때마다 풀이 천에 골고루 스미게 하기 위해 꼭꼭 눌러 준다. 어느 정도 풀기가 배이면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꼭꼭 누르기를 반복한다. 중간쯤 주무르다가 다시 펴보고 살펴서 풀기가 너무 발라졌는지, 덜 발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수 차례 주물러 골고루 풀을 먹인다. 풀을 다 먹인 다음에는 한 자 정도씩 위로 펼쳐 들어서 다시 풀기의 상태를

살펴본다.

풀을 다 먹인 명주는 양지 바른 앞마당에 가지런히 널어 잘 말린다. 널 때는 한 자 간격으로 일정하게 늘어뜨리고 줄 위에 한번 걸치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걸치는 폭을 일정하게 하여 명주와 명주가 겹치거나 포개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이를 벌리면서 널어놓는다. 널어놓은 명주가 최대한 펼쳐져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표면을 반듯하게 펴놓는다. 반나절을 늘어놓으면 촉촉하던 풀기가 마르면서 익명주의 표면이 고슬고슬해진다.

다 마른 익명주 한 필을 한 자 단위로 널어놓은 간격을 거의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걷는다. 명주천을 걷거나 널거나 접을 때마다 길이나 폭은 어림 잡아 한 자 남짓 되었다. 굳이 자를 대어 보지 않더라도 그 길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보유자와 조교가 서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어도 언제나 그랬다. 5~6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들은 그 정도의 길이만큼을 접거나 널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르고 난 익명주는 풀기가 마르면서 표면이 뻣뻣하고 쭈글쭈글한데 이것을 반듯반듯하게 펴기 위해서는 힘껏 잡아당기거나 다듬이 방망이로 두들기는 등 여러 단계의 손질을 필요로 한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도 앞서의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협력을 해야 손쉽다. 다 말라서 걷어온 명주천을 가운데에 놓고 두 동서는 한 자 남짓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는다.

명주천의 끝자락을 찾은 두 사람은 양손으로 명주천의 끝 부분부터 5cm 내외의 폭으로 주름을 잡으면서 자신의 무릎 앞쪽으로 내려놓는다. 한 필의 명주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들면서 내려놓는 데 걸리는 시간



양지 바른 마당에 익명주 한 필을 가지런히 펴서 널어놓는다.

다마른 익명주를 채반에 걸고, 풀을 준비하여 소래기에 물과 풀을 알맞게 섞는다.







풀이 담긴 소래기에 익명주를 담그면서 주무른다.

익명주를 꼭꼭 주물러 풀기가 골고루 스미게 한다.





풀먹인 익명주를 한자씩 겹쳐 들면서 풀기를 확인한다.

양지 바른 앞마당에 풀먹인 익명주를 가지런히 널고 있는 보유자와 두 동서.



은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주름이 잡힌 조글조글한 명주천은 두 사람의 무릎 앞에 고스란히 내려져 있다.

주름 잡힌 천을 두 사람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한다. 천을 한데 모아 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젖 먹던 힘까지 내어 힘껏 당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름 잡힌 천은 한 사람의 무릎 앞으로 옮긴 다음,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한 자 정도의 길이를 내민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잡은 한 자 나뼌의 긴 명주 천을 길쭉길쭉한 폭으로 좁혀 왼손과 오른손을 일렬로 놓은 다음 “팽팽” 소리가 나도록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골리고자 천을 힘껏 잡아당기다가 힘을 빼면 힘이 약한 시어머니가 뒤로 벌렁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잡아당길 때에는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같아야 하는데 한쪽의 힘이 약하면 잘 당겨지지 않는 것이다.

일자형의 길이로 쪽쪽 잡아당긴 명주천은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네 귀퉁이를 평평하게 잡아 네모로 만들면서 쪽쪽 펴 준다. 크게 펼쳐서 상하로 탁탁 치면 구김이 없어지고 좌우의 시접까지 팽팽해진다. 이와 같이 명주천을 있는 힘껏 당기고 펴는 이유는 익명주의 울과 간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베틀에 올려 짠 명주베를 꿰어내면 베틀에서보다 폭과 길이가 줄어드는데, 잣물에 삶고 빨래를 하면 팽팽하던 날실과 씨실이 실 상태로 만들었던 원래대로 돌아가 더욱 폭이 좁아지고 길이도 짧아지게 된다. 때문에 명주천을 양손에 쥐고 주름을 잡아 좌우로 폭을 늘려야 하고, 명주천을 길게 잡아 앞뒤의 길이를 늘려 주며 좌우의 시접과 울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폭이 늘고 길이가 길면 명주천을 시장이나 남에게 팔 때 이익이 된다고 한다.



한 사람은 천이 잘 펴지도록 익명주를 폭으로 세워 쭉쭉 퍼주면, 맞은편의 사람은 앞 사람이 잡았던 천의 한 끝 위쪽을 잡아 쥐고 지그재그 형태로 포개기 시작한다. 자신의 한팔과 가슴까지가 포개야 하는 길이가 되는데 거의 한 자 가량에 해당되며, 가슴 앞 부분에서 반으로 접으면서 포개고 한쪽 끝을 넘긴다. 이 때 구김이나 반듯하지 않은 모양은 바로 잡으면서 지그재그형으로 포개놓는다.

지그재그로 포개 명주천은 전체적으로 펴서 다시 한번씩 당겨주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한번 펴준 명주는 다듬이 돌의 길이와 폭에 맞추어 한 치 가량의 폭으로 접는다. 접은 명주천을 무명보자기에 넣고 싼 다음 발로 밟는다. 한참 동안 밟아주면 온기가 빨라예 고루 퍼지고 구김살도 어느 정도 펴진다.

밟고 난 명주천을 싼 무명베 보자기를 다듬잇돌 위에 얹고 한 할머니



다마른풀먹인익명주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있는 힘껏 팽팽 소리가 날 정도로 잡아 당겨야 익명주 한 필이 넘는 길이가 충분히 나온다.

익명주에 물기가 고슬고슬 남아있을 때 양손으로 조글조글 주름잡듯이 잡아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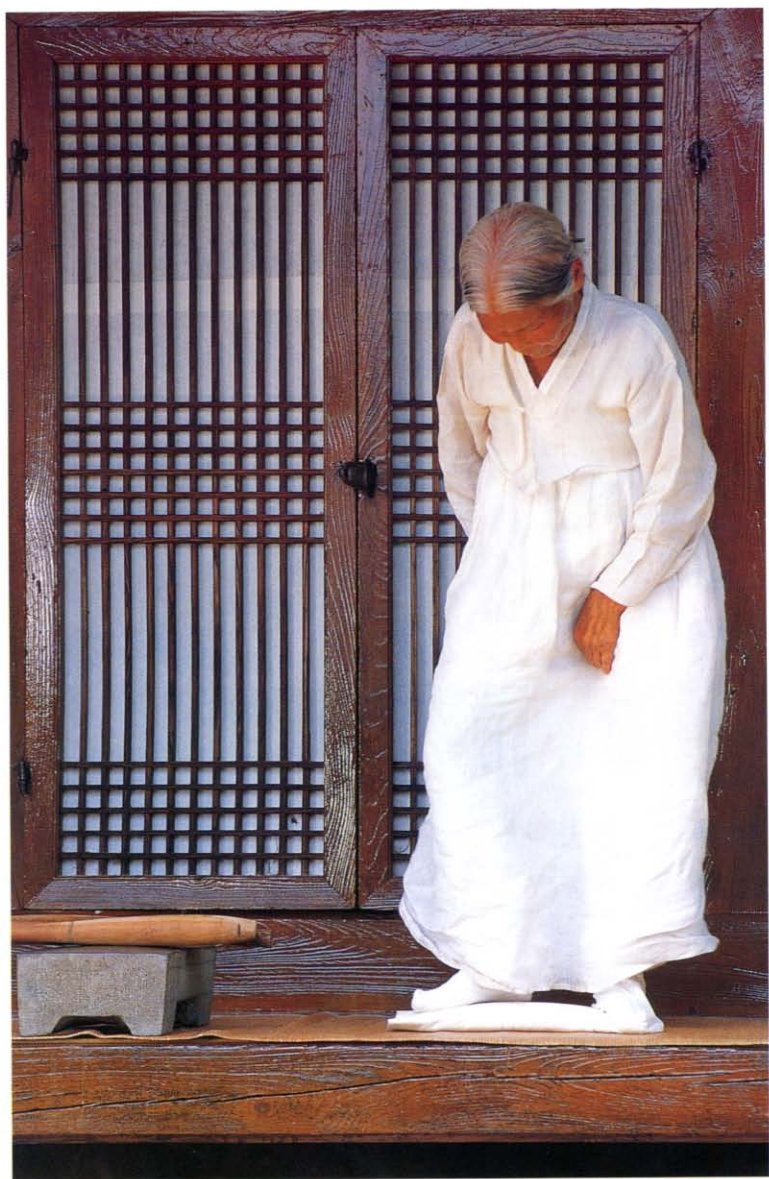




마주앉은 두 사람이 네 귀퉁이를 평평하게 잡고 쪽쪽 퍼 주어야 익명주의 울과 간격이 바로 잡힌다.

익명주를 세우되, 한 사람은 길이대로 펴주고 또 한 사람은 한 자씩 접는다.





한치의 폭으로 접은 익명주를 무명천으로 싼 다음, 두 발로 꼭꼭 눌러준다.



가 두드리거나 혹은 박자를 맞추기 위해 두 할머니가 마주 앉아서 두드린다. 어느 정도 두드린 후에는 보자기를 펼쳐서 명주천을 다른 방향으로 접은 다음 보자기로 감싸 또 다시 두드리기를 되풀이한다. 계속되는 다듬이질에 명주는 윤기가 나고 구김이 퍼지며 풀기도 풀고루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주는 손질하는 방식에 따라 생명주도 되고 익명주도 되며 풀먹여 다듬이질한 명주도 된다. 여기에 치자꽃이나 잇꽃 등 집 안팎에서 자라는 여러 꽃이나 식물을 따서 염색을 하여 색을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주는 고급 옷감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 값도 매우 높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필의 명주 천을 만들기 위해 누에를 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손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기에 그 어느 하나도 고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누에를 치고 뽕잎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실을 뽑고 실을 날고 풀을 매기고 명주베를 짠 후 다시 잣물을 내려 익명주로 만들고 또 다시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느라 봄과 여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오랜 시간을 수고하여 정성껏 만든 명주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배어 나온다. 벌써 여든을 넘긴 조옥이 할머니가 오늘도 여전히 베틀에 앉아서 명주를 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일 평생 쉬지 않고 계속 되어온 명주 짜기는 조옥이 할머니의 삶의 일부이자 삶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필의 명주를 만들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는 것은 어쩌면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된 것이다.

조옥이 보유자는 한평생을 베틀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평생동안 수백 필을 짚으려만 자신은 명주 옷감으로 옷을 해 입어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옛날 어머니들처럼 명주는 식구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명주를 팔





다듬이돌 위에 눌러준 익명주를 놓은 후 방망이로 박자를 맞추면 두드린다.



다듬이질하여 완성된 익명주와  
노란 치자물을 곱게 들인 황색명주



치자물 들인 익명주를 안감으로 사용해서 만든 수의용이불과요



조옥이 보유자 자신이 짠  
명주베로 만든 수의 일습;  
수의용 치마, 지고리



수의용 원삼



수의용 비선, 멍등

아 밥을 먹이기 위해 찢던 것이다. 그래서 평생 입어보지 못한 명주를 자신의 내세에는 함께 가지고 가려는 듯 자신의 수의를 곱게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가 수줍게 내보였다. 식구들을 위해서만 찢던 명주를 생전 처음 자신을 위해 찢본 것이다. 이제 명주 짜기는 다 끝났고, 또다른 의미를 간직한 명주옷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5 성주의 명주짜기 전통과 전승 실태

경상북도 성주는 조선 초기부터 다른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뽕나무를 재배하고 명주를 짜내어 이를 공물로써 정부에 수납하던 곳이었다. 특히 안동 권씨가 이 마을에 입향하여 숙부인 민씨가 명주를 짜기 시작한 이래 가전 비법으로 며느리들에게 전수되었다. 이러한 400여 년의 전통이 14대를 이어져 내려와 현재의 조옥이 보유자와 이규중 전수조교에게 전수된 것이다.

조옥이 보유자가 성주의 안동 전씨 댁에서 전수되던 전통적인 명주짜기의 제작기술을 배우고 익히던 당시는 일제시대이다. 이 때 일제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재래식 벼를 개량하면서 조선의 재래식 벼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명주의 제작기술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안동 권씨댁에서는 왕실용 진상 명주를 짜던 전통을 이어 받아 오늘날까지도 쉬지 않고 짜고 있는 것이다.



## 1. 성주 두리실 마을의 명주짜기 전통

명주 짜기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는 명주가 있었으나 현재는 참외가 가장 유명하다. 이처럼 성주의 명산물로서, 두리실 명주를 짜낸 곳은 두리곶방이라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주의 주남으로 20리에 해당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sup>108)</sup>

두리실 명주로 유명한 성주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성주는 성산가야의 옛지명이다. 성주는 신라 중기까지는 본피현으로 불리다가 경덕왕대(742~765)에 성주군이라 개칭한 이래, 여러 번 고을 이름이 바뀌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산 또는 성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109)</sup> 조선시대에도 이 고을은 땅이 비옥하고 바람이 따뜻하며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숭상하고 여인네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였다. 토질은 벼, 조, 기장, 피, 삼, 뽕, 목화 등의 재배에 알맞다. 따라서 성주목의 공부(貢賦)로는 명주를 비롯하여 무명, 삼베, 목화씨, 쌀, 조, 콩을 바쳤고, 토산공물로서는 종이, 옷,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을 비롯하여 당귀와 백부자, 생지황, 주치, 낭아 등의 약재를 수납하였다.<sup>110)</sup>

이렇듯 성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뽕나무를 재배하고 명주를 짜내어 이를 공물로서 정부에 수납하였던 것이다. 옛 노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왕실용 진상 명주를 이곳에서 짰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성주에서 짠 명주가 유명했다는 것은 몇 가지 정황으로

108) 『세종실록지리지』 성주목조.

109)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성주목.

110) 『경상도지리지』 성주목조.

짐작된다. 첫째, 이 지방에서 명주를 짜면서 불렀다고 생각되어 안동 권씨댁에서 전해지는 <베틀노래>이다. 두리실의 명주 짜는 베틀노래가 지금까지 내방가사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나릿님이란 말이 나오고 한필일랑 나릿님께 진상품으로 바쳤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두리실의 자연환경이 명주를 짜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다. 위의 베틀노래에도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을 앞에는 맑은 봇물이 항상 흐르고 있고, 바른 편으로 흘러 들어온 큰 냇물은 남쪽으로 앞들을 휘감아 동쪽으로 흘러가서 낙동강으로 합류된다. 이 큰 냇물을 추천, 또는 새내라고 하는데, 추천은 그 발원지, 두리실 서쪽 12km 지점에 높이 솟은 추산(501m)에서 연유한다. '새내'란 그 후 제방공사를 시공하여 그 흐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큰 냇물을 건너 서남쪽 600m 지점에는 오늘날 각종 과수원이 펼쳐져 있는데, 광복 전까지 이 일대는 뽕나무밭이었다.

셋째, 두리실 명주의 효시는 안동 권씨 가문이 입향한 1456년까지 소급된다. 당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보고 안동 권씨 가문이 이 마을에 낙향을 하여 권문세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주의 입향시조인 영야헌 권유검(행가산 군수)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의 부인인 여흥민씨가 가족의 옷감을 조달할 목적으로 명주를 손수 짜면서 두리실 명주의 명성이 시작된 것이다.

입향시조의 숙부인(淑夫人)민씨가 명주를 짜는 기법은 문중 부녀자들에게 전수되면서 후손들에게 따뜻한 옷을 공급하는 동시에 근면과 검소성도 일깨운 것이다. 이에 따라 두리실의 명주는 더욱 섬세해져서 마침내 공물로 바친 두리실의 명주로까지 승화된 것이다. 안동 권씨댁의 족보에 전하고 있는 종가집 머느리들의 성씨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두리살 명주짜기 기능의 전승계보도〉

여흥 민씨(1456; 단종 2년) - 성주 여씨 - 성산 이씨 - 서흥 김씨 - 영월 엄씨 - 밀양 박씨 - 성주 전씨 - 벽진 이씨 - 경산 이씨 - 남평 문씨 - 경주 김씨 - 고령 신씨 - 동래 정씨 - 남양 홍씨 - 강석경, 조옥이, 백문기, 이규중

조선 초 여흥 민씨에서 시작된 명주짜기의 기능은 구한말에는 동래 정씨에서 남양 홍씨로 전해졌다. 이후 일제 시대에는 이 집안의 14대 종부였던 맏며느리 강석경이 시어머니인 남양 홍씨로부터 누에를 치고 실을 갖고 명주를 짜는 일련의 기예를 전수 받은 것이다. 조옥이는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서 15세 이전에 이미 친정 어머니께 배 짜는 기예를 익혔지만, 19살에 시집을 와서 강석경과 함께 시어머니 남양 홍씨에게 명주 짜기의 여러 기술을 더욱 배우고 익힌 것이다. 이처럼 현재 명주짜기



1980년대 후반, 성주 안동 권씨 대 세 며느리들의 배 날기 모습; 첫째(강석경)는 앉아서 명주실을 살피고, 둘째(조옥이)는 날틀의 실을 잡고, 다섯째(이규중)는 걸틀의 막대에 거는 모습

보유자인 조옥이의 기능은 시어머니인 남양 홍씨에게 배운 것이지만, 그 시어머니는 또 윗대인 동래 정씨로부터 계승하고 있어서 이 집안의 명주짜기 기능의 전승과정은 멀리 15세기 중기까지 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강석경과 조옥이가 명주짜기를 배우던 일제시대에 한국은 일본을 위한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 상품판매시장, 나아가 자본의 수출지였다.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라는 초점에 맞추어 본다면 일제가 한국에서 수탈해 가는데 중점을 둔 것은 쌀과 섬유자원이었다. 특히 섬유자원은 부녀자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있었다. 더욱이 1926년 1월 제령 제2호로 <조선산업조합령>이 발표되면서,<sup>111)</sup> 견직물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몰락해 가던 농촌 경제를 연명시키고 농한기의 유희노동력이나 부녀자의 노동력을 부업 등 생산활동에 동원하려는 것이었다. 1926년 법령 발표 이후 1932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어 특산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직물이나 한지 등 특산품을 주로 취급하였다. 1938년 현재 전국 116개소의 산업조합 중 직물을 판매하고 있었던 조합은 62개소여서 직물업이 농촌의 가내부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112)</sup> 당시 경북에는 상주와 예천, 안동, 의성, 경산, 영덕, 경주 등 일곱 고을에 여덟 군데의 공동작업장을 두어 생산해 오다가 전액 국고 보조비를 받는 공동작업장이 설립되었다.<sup>113)</sup>

일제의 기업장려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장려는 특히 견직물에 집중되었다. 견직물의 경우 국내 생산 건포는 1922년 현재 국내수

111) 문정창, 『조선농총단제사』, 1942.

112) 조선총독부, 『조선의 상공업』, 1939, 15-24쪽.

113) 『동아일보』, 1932.6.9.



요의 2할, 1926년에는 2할 6푼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제 견포로 보충되고 있는 형편이었다.<sup>114)</sup> 중국제 마포와 견직물의 유입은 대외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1923년부터 견직물에 100% 사치품세를 부과하여 중국제품의 유입을 막고 자신들의 제품을 팔 수 있었던 것이다.<sup>115)</sup> 또 견직물의 경우 총독부는 일제의 주요 외화 취득원인 생사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조선에서의 고치 공판량을 늘리고 농민들의 자가 소비를 억제하였던 것이고 이 때문에 국내의 견직물 생산자는 원료가 되는 누에고치를 획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때문에 누에고치의 생산량이 늘어갈수록 수출되기에 부족한 열등견과 이를 이용한 견직업도 발달할 소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1931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가격이 폭락되어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생사의 처리가 문제가 되었다.<sup>116)</sup> 결국 일제는 견사의 수출 일변도 정책에서 부업의 성격을 지닌 견직물을 발달시키는 정책을 통해 조선 내에서의 소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식민지 통치상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일본 내 견직업자의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 될 수 있겠으나 그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또 중국제 견포가 차지하던 넓은 판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sup>117)</sup> 또 일제는 중국 비단 제품의 유입을 막은 뒤 점차 자기의 제품을 팔 속셈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14) 궁전무린, 「조선의 마직물 및 견직물」, 『조선경제잡지』 121, 1926. 36쪽.

115) 궁림태사, 앞 책, 32쪽, 40쪽 참조; 궁전, 위 논문, 37쪽 참조. 궁전에 의하면 이 당시 일본 견직물 제조자들은 불황의 절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선으로의 수출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16) 궁림태사, 앞 책, 34쪽.

117) 손송완차, 「조선의 잠사업과 견직물」, 『조선직물협회지』 13, 1940 참조.

어떻든 견직물의 경우 생산작업이 연중 계속되지만 벼농사나 밭농사 일이 바쁜 농번기에는 쉬는 것이 보통이어서 부업으로 장려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이다.<sup>118)</sup> 일제 때 지역적인 분포상황을 보면, 견직물 생산 작업장의 경우 경북지역에 있었던 것이 18개소로 반을 넘었는데, 이중의 성에는 10개소가, 상주에는 7개소가 있었다.

이렇게 일제시대에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명주 짜기가 산업화되고 기업화하면서 기계식으로 개량되어가던 시기에 조옥이 보유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주 짜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조선 초부터 400년간, 14대를 연속하여 이어 오던 전통적인 명주 짜기가 단절될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강석경과 조옥이, 그리고 이규종 등 안동 권씨댁의 며느리들은 이런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통 명주짜기를 계속해 왔다.

특히 해방 이후에는 나일론을 비롯한 화학 섬유가 등장을 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벽촌을 제외하고는 사라졌다. 1967년대 후반에 전국을 전통방식의 명주 짜기를 하는 곳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서 명주를 생산하던 곳은 이곳 성주 지방 밖에 없었다고 한다.

## 2. 명주짜기의 전승 실태

보유자 조옥이는 시집을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성주 두리실

118) 『가정공업조사』, 1937, 156쪽과 194쪽 참조.

마을의 고택에 홀로 살고 있다. 그 곳의 앞마당은 넓고 마당 한 옆으로는 뽕나무 50그루가 자라고 있다. 별이 잘 드는 작은 툇마루가 있고 나무결이 살아있는 서까래가 있는, 한 마디로 옛 빛을 그득 품은 집인 것이다. 이러한 고색 속에서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린 분이 바로 조옥이 할머니이다.

조옥이 보유자는 두리실 마을(용암면 본리) 안동 권씨댁의 둘째 며느리이다. 그녀의 친정은 시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영암면에 소재해 있으며, 그녀의 집안은 밭 500평 이상에 목화를 심었던 중농이었고 큰 아버지는 서당을 세워 글을 가르치던 양반 가문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길쌈을 잘 하던 친정 어머니에게 열 대여섯 살부터 길쌈을 배웠다. “클 적에 우리 집이 동생이 많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 키우지, 방아 찧지, 그러니 내가 더러 베 짜느라고 베틀에 올라갔어요 그거 아이면 베를 꿴데 우야꼬 시집 와서 명주도 하고 베도 하고 무명도 하고, 아이고 오만 거 다 했지.”

그녀가 안동 권씨 댁으로 시집을 온 나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18살이었다. 일제시대에 처녀들은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 대개 15살 내외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녀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18살에 권씨 댁에 시집을 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권씨 댁의 며느리는 다섯이 있었는데 14대 종부인 큰며느리가 강석경이고, 그녀는 둘째 며느리이며, 넷째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16호 무명 짜기의 백문기이고, 다섯째 며느리가 명주 짜기의 전수조교인 이규중이다.

조옥이 할머니는 시집 와서 큰댁의 원편에 현재의 상태로 새집을 짓고 살아 현재도 ‘새댁’으로 불리고 있으나 시집살이를 많이 하였다. 시집간 이듬해 의대를 나온 그녀의 큰 시숙, 강석경의 남편은 전염병에 걸



조옥이 보유자의 근영



렸다가 그해 겨울에 죽었고, 둘째인 그녀의 남편은 일본으로 장사를 하러 집을 나가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큰 아들은 죽고 작은 아들은 객지에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어서 시아버지 또한 화병으로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결국 시집을 가자마자 빈청을 두 개나 설치하면서 조옥이 할머니는 이 곳에 삼시 세 때 밥을 해서 들고, 머슴 세 명에게도 조식으로 밥을 해 주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시집온 지 이태만에 외동딸 하나를 낳았지만 당시 스무살 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의 남편은 일본을 간 뒤 소식이 두절되었고, 돈 많이 벌어서 외동딸 공부를 시키겠노라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었다. 여러 해 지난 후 그녀의 남편은 만주 등지를 떠돌다가 전염병으로 객사하였다고 한다.

남편도 없는 시집에서 조옥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안 살림을 돌보고, 밤낮으로 베를 짜는 일 뿐이었다. 보유자가 일제 때 명주 베와 무명베 등의 피륙을 많이 짤 때는 연간 200자 정도, 5필 정도까지 짰다고 한다. 외동딸은 거의 시어머니가 계신 큰댁에서 재우고,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베틀에서 베를 짜기 시작하였다. 일제 시대 말에는 순사들이 수시로 집을 뒤져서 무명도 공출되고, 유기도 공출되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나는 물건이 없을 정도였다.

“옛날에 무명을 짤 때는 그 때마다 일본 놈들이 마구잡이로 목화 같은 것을 막 빼앗아 갔거든. 그러니 목화를 해 놓고도 집으로 가지고 못 들어오고 산에다 무명대를 널어 말려 가지고 몰래 가져와서 짜고 그랬어. 아이고 들켰다가는 왜놈들이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 그래서 그때는 길쌈을 가마이 가마이 짜고 그랬지. 저쪽 시택은 수시로 막 디비러 오니까 우리 집에서 몰래 짰어. 근데 목화솜에서 씨를 뺄 때 씨아기로 빼는데 이게



베틀에서 평생을 보낸 조옥이 보유자

기름을 안치면 삐약삐약 아이고 병아리 소리가 나.그러면 그 소리가 밖  
에까지 들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살았어.그때는.”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였다.

더욱이 그녀의 친정에서는 시집간 지 1년 만에 독수공방을 지키고 있  
는 그녀를 출가외인이고 권씨 집안 사람이므로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하  
였다.이에 그녀는 시어머니께 고명딸을 맡기고 베를 새집의 안방에  
놓고 벗삼아 살게 되었다.공출을 피해 친정 오빠가 친정 밭에서 만 묵화  
를 그녀 집 뒤 곁에 놓고 가면 잘 다듬고 손질해서,밤에는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고 방문 밖에는 두꺼운 담요를 쳐서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하여 밤낮 베틀에 앉아서 베를 짜느라 밤을 지새웠다.“우리 서방  
님은 일본으로 가서 안 오지,잠은 안 오고,저절로 죽어라 명주하는게 지  
금까지야.이제는 나이를 먹어 베를 매지는 못하고 짜기만 하지.”

더욱이 여름에는 삼베를 짜서 삼베를 짜고 가을에는 무명을 짜고,겨  
울에는 명주를 짜는 등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삼베나,무명베나,명주  
베를 짜는데 세월을 보냈다.이렇듯 그녀의 베 짜는 솜씨는 동네에도 소  
문이 자자하였으며,특히 그녀의 집에서 삼작(골목)을 따라 두 집 위에 있  
는 시삼촌(권병탁의 아버지)이 그녀의 생계와 베 짜는 솜씨를 높이 사서  
여러 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베틀에서 짜낸 명주를 팔아서 가게에 보태거나 옷을 만드  
는 모습은 성주에서 전래되는 <베틀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제처제 키큰처제 /베잘짜다 소문났네

그베짜서 누를줄레

우리오빠 장가갈 때 /가마휘장 둘러줄레

그남치기 누굴줄레

이내적삼 비었드니 /깃도없고 쏘도없네

앞집에야 내동모야 /뒷집에야 내동모야

깃한자루 쏘한자루 /뀌여다고 꺾여다고

맨드라미 깃을달고 /봉숭아라 쏘을달아

입어보니 때가묻고 /벗어보니 입구접고

만치다가 다떠랴네.”<sup>119)</sup>

위의 노래를 통해 여인들이 짠 베는 팔아서 집안 살림에 보태거나, 식구들의 옷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짠 베는 너무 아까워서 스스로 옷을 해 입지 못한 채 걸어두었다가 만져보다가 때가 탄 정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동네에서 베를 잘 짠다고 소문이 난 처녀가 베를 짜서 오라버니가 장가를 갈 때 가마에 사용할 휘장으로 둘러주고 있었다. 아울러 자기가 입을 적삼을 만들었는데 옷감이 아까워 깃도 못 달고 쏘도 못 달아 앞집에 사는 친구에게 꺾서 달고 있었다. 결국 입어보니 때가 묻고 벗어 놓으니 입고 싶어서 만지작거리다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

조옥이 보유자가 베틀에서 짠 베를 시장에서 팔 때 시삼촌이 함께 가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그 시삼촌은 동네에서도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권씨 댁 형제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동네에 있을 때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안을 드려야 하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불호령이 났다고 한다.

119) 임동권, 『한국민요집』 2(집문당, 1974), 145쪽. 베틀요 4. (성주지방)



시삼촌의 도움은 여러 모로 받고 있었다. 예컨대 그녀가 베를 짜서 성주 시장에 내다 팔 때 시삼촌이 함께 따라가 주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섬을 잘 하는지, 명주베를 팔고 돈을 제대로 받는지를 먼발치에 서서 지켜주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논마지기를 살 때 문서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등을 옆에서 살펴준 것이다. 이렇게 명주베를 팔거나 무명베, 삼베를 팔고 난 그녀는 그 돈을 잘 모아 두었다가 논 8마지기와 밭 500평을 샀다고 한다. 남편도 없이 오로지 외동딸 하나를 키우는 시골 아낙네가 오로지 베틀 하나로 그 정도의 살림을 일구었다는 점만 보아도 그녀의 베틀 솜씨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녀의 베를 짜는 솜씨는 성주 시내에 소문이 나서 그녀가 짠 명주를 서로 탐을 내고 사 가려고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밤낮으로 베를 짜서 오일장이 설 때마다 시장에 나가면 “베가 곱다”면서 서로 웃돈을 주고 사가서 그녀는 밤낮을 도와 베틀에서 베를 짜기에 바빴다고 한다. 특히 명주의 경우 열넉새나 보름새로 짜서 매우 곱고 치밀하게 짜는 솜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처럼 섬세하고 차분한 성격에 어울리는 작업이었다.

그녀가 베를 한창 짜던 60년대에는 성주 근방에도 명주나 삼베, 무명 등을 짜는 집이 많아서 베틀 소리가 울타리를 넘나들었다. 아울러 장이 설 때 성주 읍내에 가 보면 거간꾼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전을 받고 베를 사고 파는 모습은 매우 혼한 정경이었다. 그러나 60년대 말이 되면서 점차 명주를 짜는 집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스무 살에 청상과부가 되어 혼자 살았던 조옥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평생 앉았던 베틀에 앉아 손에 잡았던 북을 잡고 베를 짜는 것이다.

그녀의 딸이 시집을 갈 당시 본건 명주이불 한 채가 소 한 마리와 맞

먹을 때였다. 당시 그녀의 딸이 스무 한 살에 시집을 갈 때 본건 이불 한 채를 마련해 주었고, 그 당시 비쌌던 싱거 채봉들을 명주를 팔아 보탠 돈으로 혼수감을 사서 시집을 보냈다. 이 모든 딸의 혼수감은 당시 조옥이 할머니가 베틀에서 명주를 짜서 마련한 돈이었다.

그녀의 딸 권인실은 어머니가 워낙 일찍 홀로 되셔서 베 짜는 것만 낙으로 삼았기에, 자신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품에서 잤던 기억 밖에 없다고 한다. 아버지와 1년 반 정도 살고 나서 홀로 된 어머니는 자식에게도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셨고 오직 베틀과 벗하며 명주를 짜는 재미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평생 베틀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쳐서 그녀는 명주 고치를 따다 주는 일도 돕고 실 썬는 일이나 베를 날고 매는 일은 도와주지만 베틀에 앉아서 명주를 짜는 것만은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60년대까지 성주의 두리실 마을에는 곳곳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누에를 치고 고치를 따서 실을 뽑고 실을 날고 매서 베틀에서 명주를 짜는 일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나일론이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도 급격하게 명주를 짜는 일이 적어지면서 60년대 말에는 조옥이 할머니택을 제외하고는 명주를 짜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특히 농약을 친 뽕잎을 주면 누에가 모두 죽기 때문에 집에 있는 뽕잎 이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누에 칠 때 신경 엄청 가. 누에가 이게 약해요. 뽕나무를 집에도 심은 것은 되지만, 논이나 고추밭, 그런데 농약을 치는 데에 뽕나무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래요. 농약 치는 밭 근처서는 이거 못 먹어요. 약을 뿌리면 그게 날라와 뽕에 묻거든. 그거를 먹이면 누에가 다 죽어”

결국 조옥이 할머니는 명주를 짜기 위해 할 수 없이 집에도 뽕나무를 옮겨 심고 누에를 봄가을로 먹어서 봄누에는 5월에, 가을누에는 8월에

먹인다. 누에를 먹이면 누에가 한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부터는 어찌나 뽕을 많이 먹던지 밤낮으로 따도 뽕잎을 대기가 바쁠 정도여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뽕을 주는 일도 허다했다. 결국 누에가 다섯잠을 자고 다 큰 누에가 되면 마당에 심어둔 뽕잎을 가지 채 잘라주게 되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여든이 넘은 지금도 새댁처럼 수줍음이 많은 조옥이 보유자의 얼굴에는 명주올 같이 자잘한 주름살이 가득하다. 젊어서 혼자 된 할머니는 외동딸을 시집 보낸 이후 60년을 또 다시 혼자 살며 말년의 외로움을 오로지 명주 짜기를 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봄가을로 누에를 치면 한번에 대여섯 근씩 일년에 열 근을 넘게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옥이 보유자도 근래에는 여든 살의 나이에 베틀에서 평생동안 명주를 짜느라 허리가 아프다. 이 때문에 삼년 전 쯤에 허리를 치료하면서 힘이 많이 부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삼 년 전부터는 봄누에는 조옥이 할머니가 먹이고 가을누에는 이규종 조교가 먹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보유자인 조옥이 할머니와 전수조교인 이규종 할머니 두 분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명주짜기의 기예를 후손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가 그대로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인이 손에 익힌 전통적인 공예기술이란 1~2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나 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그들 모두 대구나 서울 등지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기술을 배우기가 그리 쉽지 않다.

아니면 누군가 성주의 외딴 마을에 와서 살면서 배워야 하는데, 이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고된 과정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그

래서 두 할머니는 더욱 초조하다.누군가에게 명주 짜기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집 안에는 길쌈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그대로 소장되어 있다.마치 이들이나 손주처럼 아끼고 사랑해줄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간혹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며칠씩 와서 명주짜기의 전과정을 체험한다고 오기는 하였다.그러나 전통 공예기술이 그러하듯이 단 며칠만에 모든 것을 익힐 수가 없는 것이다.최소한 보유자 할머니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며 10여 년을 함께 해야만 모든 작업과정이 능숙해지기 때문에 명주 짜기를 전수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또 이와같은 수직 명주의 생산이 단절되는 까닭은 몇 가지가 있었다.우선 뽕나무를 어디서나 쉽게 딸 수 없다는 것이다.예전에는 동네 어귀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현장과 제작진: (왼쪽부터) 김연과 감독, 조옥이 보유자, 백문기, 장경희 자문, 이경수 촬영, 김기태 조명, 김정석 촬영보, 이규종 전수조교, 박준신 조감독



에 있는 뽕나무로 누에를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농약 등에 의해 뽕나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누에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돌방에 잠실을 만들고 누에를 키울 때 뽕잎을 따서 주고 똥갈이를 하고 잠을 잘 때와 먹이를 먹을 때를 알고 키우기가 만만치 않았다. 간혹 이렇게 기른 외국산 누에고치를 수입해 명주를 짜긴 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누에고치 대신 누에로 건강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명주실을 자을 누에고치 또한 구하기 어려워졌다. 요근래 누에가 동충하초 등 건강식품을 만드는 원료여서 고치를 짓기 전 단계의 익은 누에, 5령 누에 때 식품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보유자의 나이가 연만해서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사 먹다보니까 그 때문인지 점차 충기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이 명주짜기 기술을 어떻게 하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뽕나무를 키우는 것도, 누에를 치는 일도, 명주베를 짜는 일도 이젠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다.

## 【참고 문헌】

###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통문관지』 『임원십육지』 『용재총화』  
『대동야승』 『우서』 『열하일기』

### 일제시대 자료

『황성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금촌병 편, 『이조실록 풍속관계 자료촬요』, 조선총독부  
山龜豐定, 『朝鮮之研究』, 1914년.  
室田武隣, 『朝鮮の機業』, 1930.  
조선총독부,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 『각년도 시정년보』  
조선총독부, 『가정공업조사』, 193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월보』  
조선총독부, 『朝鮮の商工業』, 1939.  
村松完次 「朝鮮の蠶絲業と絹織物」, 『조선직물협회지』 13, 1940.

평양상공회의소 『平南메리야스工業と平南の農村機業』, 1943.  
室田武隣, 「朝鮮の麻織物及絹織物」, 『조선경제잡지』 121, 1926.

## 도록

한국의 미 19 『풍속화』, 중앙일보사·계간미술, 1985.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89.  
중국판화 2,000년전 제3부 『중국고대판화전』, 町田市立國際版畫美術館,  
1988.  
『프랑스 국립기메 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2002.

## 단행본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한길사, 1973.  
권병탁, 『이조말기의 농촌직물 수공업연구』, 영남대출판부, 1969.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공보부, 1969.  
김종원, 『근세동아시아 관계사 연구』, 해안, 1999.  
김종태, 『한국 수공예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5.  
민길자,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  
송응성 저, 『천공개물』, 최주 주역, 전통문화사, 1997.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주신여 주편, 『중국사주사』, 방직공업출판사, 1992.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잠사회 80년사』, 대한잠사회, 2000.

논문·보고서

- 민길자, 「우리나라 고대 직물 연구 ; 견직물 중심으로」, 『교육』 2집, 국민대, 1983.2.
- 유희경·권병탁,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75, 「명주짜기」, 문화재리국, 1987.
- 이순섭, 「고대 견직물의 문헌적 고찰」, 『논문집』 9집, 한양여전, 1986.
- 임화원, 「한국 전통 견직물의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장경희, 「고려말·조선전기 염직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장경희, 「14세기 고려 염직연구」, 『미술사학연구』 제190·191집, 한국미술사학회, 1991.9.
- 장경희, 「15세기 『악학궤범』에 보이는 염직 기술」, 『역사민속』 제5집, 역사민속학회, 1995.12.
- 장경희, 「연산군조 왕실공예품 제작연구」, 『중산 정덕기박사 화갑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5.12.
-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완섭, 「우리나라 직물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15집, 관동대, 1987.
- 정완섭, 「우리나라 고대 견직물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17집, 관동대, 1989.2.
- 조효숙, 「한국 견직물 연구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한상진,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1983.



글 · 장경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직,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미술문화의 이해』(공저)

『종이 조형』(공저)

사진 · 최원진

해천대 영상디자인과 조교수

『한발문화제 멀티미디어 영상전』 기획, 전시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 명주짜기

초판 인쇄 | 2002년 12월 20일

초판 발행 | 2002년 12월 26일

기획 | 국립문화재연구소

글 | 장경희

사진 | 최원진

발행인 | 허만일

발행처 | 화산문화

등록 | 1994년 12월 18일(제2-1880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6 효자상가 A 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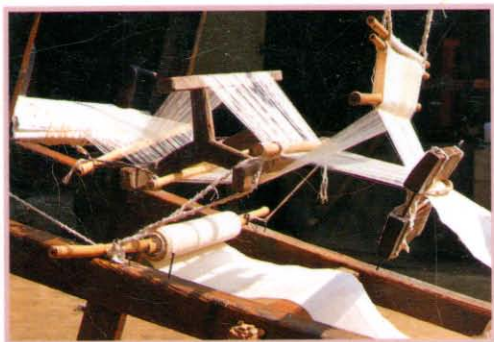
전화 | 02)736-7411~2 팩스 | 02)736-7413

E-mail | hwasan1939@yahoo.c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ISBN 89-86277-64-6 93380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 명주짜기

우리 나라에서 명주짜기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조 세종<sup>世宗</sup> 연간에는 전국 각지에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늘리고 잠실을 설치하였다.

이 책에서는 명주짜기의 유래와 역사, 명주의 재료와 제작 도구, 명주짜기의 제작 과정, 전통과 전승 실태를 현장에서 관찰·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밀려오는 현대 옷감들로부터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우리 전통 명주와 명주짜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되살리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값 13,000원



9 788986 277647

ISBN 89-86277-64-6